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研究

— 忠清道를 중심으로 —

姜 敬 淑*

차 례

- I. 머리말
- II. 忠清道の 15세기 요업상황 문헌기록
- III. 忠清道 陶窯址의 지표조사, 발굴조사 및 연구현황
- IV. 『世宗實錄』地理志 忠清道 磁器所·陶器所 分析
- V. 『世宗實錄』地理志 忠清道 磁器所·陶器所의 陶磁史의 意義
- VI. 맺음말

I. 머리말

『世宗實錄』의 부록인 地理志에는 각 지방의 토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 土產條에 보면 磁器 혹은 陶器를 제작하고 있던 곳은 관아를 중심으로 그 위치를 동·서·남·북으로 기록하고 그 품질에 있어서는 上·中·下品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 당시 8도의 자기를 굽던 곳은 모두 139개소, 도기를 굽던 곳은 185개소여서 자기와 도기를 굽던 곳을 합치면 모두 324개소가 된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다. 또 이러한 제작상황을 조사한 시기는 1424~32년 사이므로 324개소는 이 시기에 실제로 제작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570년 전의 기록에 의거하여 그 때의 제작지를 직접 답사해 보면, 그 흔적이 제법 잘 남아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전혀 흔적이 없는 곳도 있는데 특히 최근에 들어 고속도로, 택지개발, 산업도로 확장 등의 현대 문명으로서의 발달음에 밀려 그나마도 몇몇 산골오지를 제외하고는 도요지의 보존상태는 파괴되었던지 아니면 곧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되어 있는 충청도 지방의 23곳의 자기소와 38곳의 도기소에만 국한해서 현장을 답사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고 또 지표수습된 도편을 가지고 15세기의 요업상황과 도자사적 의의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먼저 15세기 충청도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92 자유공모(지방대학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忠北大學校 人文大學 考古美術史學科 副教授

의 요업상황에 대한 문헌 기록을 검토한 후, 충청도 지역의 도요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된 그 동안의 상황을 소개하고 개별연구의 현황도 살펴보려고 한다.

Ⅱ. 忠淸道の 15세기 요업상황 문헌기록

충청도의 15세기 요업상황에 관한 문헌기록은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조사되어 있는 내용이 중심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는 世宗의 명에 의해 1424~32년 사이에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1454년 『世宗實錄』의 편찬과 함께 그 부록으로 간행되었다.¹⁾ 이 지리지에는 8도의 자기소와 도기소가 각각 139개소와 185개소가 조사되어 있으며〈表 1〉, 충청도는 자기소 23, 도기소 38개소가 조사되어 있다〈表 2〉.

〈表 1〉 『世宗實錄』地理志 8道の 磁器所·陶器所 분포현황

분류 지역	磁 器 所				합계	陶 器 所				합계
	上品	中品	下品	표시없음		上品	中品	下品	표시없음	
京畿	1		13		14		6	12	2	20
忠淸		12	11		23		6	31	1	38
慶尙	3	8	26		37		6	28		34
全羅		15	12	4	31		8	23	8	39
江原		2	2		4			10		10
黃海		6	6		12		6	11		17
平安		2	11		13		1	10	1	12
咸吉			5		5			6	9	15
합 계	4	45	86	4	139		33	130	22	185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도의 자기소는 21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全義와 公州 지방에만 각각 2곳이 있어 모두 23곳의 자기소가 운영되었다. 품질로는 上品은 없고 중품이 12곳, 하품이 11곳으로 中品과 下品생산지는 다음과 같다〈表 3〉.

1) 鄭杜熙,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Ⅰ)」 『歷史學報』 제69집, 歷史學會, 1976, pp. 66~83.

<表 2> 『世宗實錄』地理志 忠清道の 磁器所・陶器所

磁 器 所					陶 器 所									
지방	수량	방향	소재지	품질	지방	수량	방향	소재지	품질					
忠州	1	州西	보련동(寶蓮洞)	下	忠州	1	州北	월호현(月乎峴)	下					
槐山	1	郡南	인현리(茵峴里)	下	淸風	1	郡北	위곡리(位谷里)	下					
					槐山	1	郡南	오지현(吾只峴)	下					
					堤川	1	縣西	마곡동(馬谷洞)	下					
					淸州	2	州南	가좌골(加左谷)	下					
天安	1	郡南	개재골(介峴洞)	下	天安	1	郡南	기화곡동(其火谷洞)	下					
木川	1	縣北	오산(烏山)	中	沃川	1	郡西	금이산(金伊山)	下					
					木川	2	縣北	널으니(板陰)	下					
全義	2	縣西	망현리(芒峴里)	中	靑安	1	縣東	개목(大項)	下					
					縣南	송현리(松峴里)	中	全義	1	縣西	완곡(蕪谷)	下		
燕岐	1	縣北	요혜방(要惠方)	中	燕岐	1	縣北	부동리(釜洞里)	中					
溫水	1	縣南	윗골(上谷洞)	中	稷山	1	縣東	천흥리(天興里)	下					
										永同	1	縣西	금곡동(金谷洞)	中
										黃澗	1	縣東	목촌리(木村里)	下
鎭川	1	縣西	대삼동(大三洞)	下	懷仁	1	縣西	둔안리(屯安里)	下					
					公州	2	州北	외임리(外任里)	下					
					州東	동학동(東鶴洞)	中	鎭川	1	縣西	구사리(狗死里)	下		
藍浦	1	縣東	취련모노리(吹鍊毛老里)	中	公州	2	州南	분포황옹장(粉浦黃翁匠)	下					
					林川	1	郡北	구이동(仇耳洞)	下					
定山	1	縣西	장항리(筭項里)	中	藍浦	1	縣東	장암리(場巖里)	中					
鴻山	1	縣北	밤한골(所音漢洞)	中	庇仁	1	縣南	탄부포(炭釜浦)	下					
					鴻山	2	縣東	장항리(筭項里)	下					
連山	1	縣東	벌곡리(伐谷里)	下	鴻山	2	縣北	계봉동(鷄鳳洞)	中					
										扶餘	1	縣西	유현동(楸峴洞)	下
瑞山	1	郡北	사기동(沙器洞)	下	鎭岑	1	縣西	성북리(城北里)	下					
					洪州	1	州北	홍천리(弘天里)	下					
					泰安	1	郡北	말흘천(末訖川)	中					
					瑞山	1	郡東	보현동(寶賢洞)	下					
禮山	1	縣東	초이방(草伊方)	下	海美	2	縣東	장항리(筭項里)	下					
					禮山	1	縣東	지품금(只品金)	下					
					靑陽	1	縣西	풍지동(楓枝洞)	下					
					保寧	1	縣北	동화이(冬火伊)	下					
大興	1	縣東	부은이리(夫隱伊里)	中	大興	1	縣東	관동(板洞)	下					
					大興	1	縣西	장척동(長尺洞)	下					
大興	1	縣東	거변리(居邊里)	下	大興	1	縣東	거변리(居邊里)	下					
21	23기				33	38기								

〈表 3〉 忠淸道の 磁器 中品・下品 생산지(『世宗實錄』地理志)

磁 器 中 品		磁 器 下 品	
1	木川 烏山	1	忠州 寶蓮洞
2	全義 芒峴里	2	槐山 茵峴里
3	松峴里	3	天安 介峴洞
4	燕岐 要惠方	4	永同 加ヶ帖里
5	溫水 上谷洞	5	鎭川 大三洞
6	黃澗 臥鼎洞	6	連山 伐谷里
7	公州 軍知村	7	扶餘 柵峴洞
8	東鶴洞	8	瑞山 沙器洞
9	藍浦 吹鍊毛老里	9	禮山 草伊方
10	定山 獐項里	10	靑陽 長谷洞
11	鴻山 所音漢洞	11	保寧 靑淵里
12	大興 夫隱伊里		
계	12곳		11곳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하품의 비율은 거의 반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품과 하품으로 평가되었던 당시의 기준은 글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는 점이 문제이지만 품등의 기준은 태토, 유약, 무늬, 기타 만듦새 등으로 보아 결정했으리라고 생각된다.

陶器所는 33개 지역에 38기의 가마가 있었는데 淸州, 木川, 公州, 鴻山, 海美 등에 각각 2개소가 존재했다. 38개소 중 6개소가 中品, 31개소가 下品, 나머지 한 곳은 품질표시가 없는데 도기 역시 중·하품의 기준은 알 수 없다. 중·하품의 생산지는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表 4).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38곳의 도기가마 중 하품 생산가마가 31곳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충청도에서는 대부분이 하품 도기를 생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磁器와 陶器의 품질을 결정했던 등급의 기준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磁器와 陶器 자체 성격에 대한 구별의 기준 역시 어떠한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을 십분 이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世宗 당시에는 磁器는 白磁요, 陶器는 粉靑沙器를 지칭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어왔지만²⁾, 현대인의 개념으로 볼 때 도자기로 구분지을 수 있는 白磁와 粉靑沙器가 자기일 것이며 陶器는 유약을 씌우지 않은 소위 토기나 옹기의 종류가 아닐까 라는 견해가 지배적

2) 대체로 日人학자들의 견해이고, 60~70년대의 국내학자들은 이 설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80년대 이후부터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表 4〉 忠清道の 陶器 中品・下品 생산지 (『世宗實錄』 地理志)

陶 器 中 品		陶 器 下 品		표시 없음	
1	全義 釜洞里	1	忠州 月乎峴	1	海美 只品金
2	溫水 金谷洞	2	淸風 位谷里	계	1곳
3	林川 場巖里	3	槐山 吾只峴		
4	鴻山 沙邑峴洞	4	堤川 馬谷洞		
5	板梯	5	淸州 加左谷		
6	泰安 末訖川	6	牛項		
계	6곳	7	天安 其火谷洞		
		8	沃川 金伊山		
		9	木川 板陰		
		10	犬項		
		11	青安 蘆谷		
		12	燕岐 要惠方		
		13	稷山 天興里		
		14	永同 木村里		
		15	懷仁 屯安里		
		16	報恩 外任里		
		17	鎭川 狗死里		
		18	公州 粉浦黃瓮匠		
		19	仇耳洞		
		20	藍浦 炭釜浦		
		21	庇仁 簞項里		
		22	定山 鷄鳳洞		
		23	鎭岑 城北里		
		24	洪州 弘天里		
		25	瑞山 寶賢洞		
		26	海美 簞項里		
		27	德山 楓枝洞		
		28	禮山 冬火伊		
		29	青陽 板洞		
		30	保寧 長尺洞		
		31	大興 居邊里		
계		계	31곳		

이다.³⁾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지금까지 현장답사에서 얻은 결과로는 陶器所라고 판단할 만한 窯址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아 사실상 그 당시의 자기와 도기의 성격규명은 현단계에서는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新增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편찬의 계획은 盧思愼, 徐居正 등이 『三國史節要』를 撰進한 成宗7년(1476)에 우리나라 文士의 詩文을 모아 梁誠之가 만든 八道地理志에 첨재할 것을 명하여 成宗12년(1481) 4월에 『東國輿地勝覽』 50권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成宗16년(1485) 金宗直에게 『大明一統志』⁴⁾의 예를 따라 그 내용을 수정 증보할 것을 지시한다. 그 후 燕山君 5년(1499) 任士洪 등에 의해 교정되었고 中宗 26년(1531) 李荇에 의해 거듭 증보되어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됨에 이르렀다.⁵⁾ 그러나 成宗 16년 金宗直 등에 의해 수정 증보된 『東國輿地勝覽』의 체제는 변경됨이 없고 증보된 부분은 “新增”이라고 표시한 후 그 뒤에 조사된 내용을 적고 있다. 따라서 도자기를 생산하던 가마 가운데 新增란에 기재되어 있는 곳은 1481~1531년 사이에 새로 생긴 가마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1481년 이전부터 활동하던 가마임을 알 수 있는데, 충청도에는 신증에 기록되어 있는 가마는 없다. 그러면 8도에 분포되어 있는 생산현황을 표로 만들고〈表 5〉, 그 다음 충청도의 도자기 생산지를 표로 만들어 보자〈表 6〉.

〈表 5〉 『新增東國輿地勝覽』 8도의 磁器·沙器·陶器 생산현황

지역 \ 분류	磁器	沙器	陶器	합계
京畿	5	1	8	14
忠清	8	1	4	13
慶尙	4	1	1	6
全羅	10	1		11
江原	1			1
黃海	3			3
平安	1			1
합계	32	4	13	49

3) 姜敬淑, 『粉青沙器 研究』 一志社, 1986, pp. 25~28 ; 尹龍二, 「世宗實錄地理志의 磁器所·陶器所에 관하여」 『第27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84, pp. 311~314 ; 鄭良謨, 「粉青沙器의 編年」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pp. 329~330.

4) 『大明一統志』는 世祖 9년에 편찬된 明의 대표적 地理志.

5) 鄭杜熙,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Ⅱ)」 『歷史學報』 제70집, 歷史學會, 1976, pp. 104~105.

<表 6> 『新增東國輿地勝覽』 忠淸道 磁器 · 沙器 · 陶器 생산지

지명 \ 분류	磁器	沙器	陶器	합계
淸州牧	○		○	
天安郡	○		○	
木川縣	○			
全義縣	○			
燕岐縣	○		○	
黃澗縣	○			
林川縣			○	
藍浦縣		○		
定山縣	○			
禮山縣	○			
합계	8	1	4	13

그런데 『新增東國輿地勝覽』이 간행된 이후 약 100여 년 뒤에 『東國輿地志』가 간행되는데 이 곳의 기록도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과 거의 같아 토산공물로서의 지방 도자기의 역할은 1481년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土貢의 대상임을 명기하고 있는데 비해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단지 土產物로서만 조사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니 그 이유는 국가가 직접 제조를 관장했던 分院이 1469년 이후부터 운영되어⁶⁾ 京畿道 廣州로부터 국가가 필요한 그릇을 직접 조달받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15세기 전반과 후반의 현황을 말해주는 두 지리지의 자기소, 사기소, 도기소에 대한 기록은 기초사료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언급할 문제들과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

Ⅲ. 忠淸道 陶窯址의 지표조사, 발굴조사 및 연구현황

본 장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충청도 지방에 대한 지표조사 현황, 발굴조사 현황 그리고 그 동안의 연구현황 등을 살펴보겠다.

6) 姜敬淑, 「分院成立時期小考」 『美術史論叢』, 通文館, 1988, pp. 655~663.

1. 지표조사현황

일인들에 의한 20세기 전반의 지표조사 연구는 1980년에 발간된 『世界陶磁全集』 19권(李朝)에서 집약되므로 이 책에 수록된 「李朝陶磁窯跡表」를 가지고 소개하려고 한다.⁷⁾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실제 답사로 얻어진 지표조사는 『錦江誌』⁸⁾ 『忠北地方陶窯址地表調査報告書』⁹⁾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밖에 단행본 책의 부록으로 전국 도요지를 일람표¹⁰⁾로 정리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1) 『世界陶磁全集』 19(李朝)

『世界陶磁全集』 19의 「李朝陶磁窯跡表」에 보면 충청남·북도에 분포되어 있는 도요지는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62지역(북도 14, 남도 48) 161곳이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조선전기로 조사된 곳은 남·북도를 합쳐서 전기 백자요지가 3지역이고 26지역은 모두 粉靑沙器 요지인데 26지역 중에서도 24지역이 충남에 분포되어 있다.

忠北의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가마는 粉靑沙器(槐山 沙潭里, 松亭里)와 白磁(中原 龍垞里, 鈞川里)가 각각 2개 지역에서 조사되고 있고, 中期 가마는 10개 지역에서 모두 16기가 조사되었으며 後期는 백자가마 1곳(中原 寺門里)뿐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에서는 中期에 요업이 성행하였으며, 특히 白磁와 白磁鐵畫가마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忠南지역의 조선시대 도요지 조사상황을 살펴보면 48개 지역의 98기 가마 중 前期 가마가 62기이다. 이 가운데 瑞山 高豐里 가마만 백자이고 61기는 모두 粉靑沙器 가마이다. 中期는 17개 지역의 29기, 後期는 7개 지역에서 7기가 조사되어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충남에서는 60%가 분청사기 가마가 차지하고 있고 특히 忠南은 15세기에 公州와 燕岐를 중심으로 분청사기가 매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북도의 조선전기 도요지만을 종합해보면 29개 지역에서 64기의 가마터가 조사되었는데 백자가마는 3기 뿐이고 61기는 모두 粉靑沙器이다. 따라서 충청도는 조선전기 특히 15세기에는 대부분 분청사기를 제작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李朝陶磁窯跡表」는 비교적 상세히 조사되어 있으나 그 때 수집된 도편의 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도편의 성격파악은 할 수 없고 단지 도요지 분포상황만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7) 香本不苦治·鄭良謨·尹龍二 編, 「李朝陶磁窯跡表」 『世界陶磁全集』19, 李朝(東京:小學館), 1980, pp. 250~251.

8) 姜敬淑, 「陶窯址」 『錦江誌』 下, 충청남도·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3, pp. 343~400.

9) 忠北大學校 博物館, 『忠北地方 陶窯址 地表調査 報告書』, 1993.

10) 鄭良謨, 「高麗 朝鮮時代 磁器窯址分布現況」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pp. 493~501; 尹龍二, 「韓國陶瓷窯址一覽表」 『韓國陶瓷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pp. 490~511.

2) 『錦江誌』下

『錦江誌』는 上·下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권 제3편 문화유적편의 제6절 「陶窯址」에서는 금강에 접해 있는 전북, 충북, 충남 3개도의 도요지를 다루고 있다. 도요지 조사는 土器, 靑磁, 粉靑沙器, 白磁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실제 답사에서 수집한 도편은 사진과 실측도면을 곁들여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世宗實錄』地理志와 연관되는 가마들은 15세기에 해당되는 가마로서 백자가마는 없고 주로 15세기의 분청사기 가마들이며 이들은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陶器所의 도자사적 의의를 논하는 V장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3) 『忠北地方陶窯址地表調査報告書』

이 지표조사보고서는 충북 10개군에서 130기의 가마터를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각 유적의 전경사진과 위치지도 그리고 도편의 사진과 실측도면을 곁들이고 그 특징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3년 현재의 유적현황 상태, 시대 등도 밝히고 있어 본격적인 도요지 지표조사보고서로는 모범적인 보고서라고 하겠다.

130기의 조사내용을 인용하여 소개하면 백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충북에서는 17세기 이후 백자제작이 매우 성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으로는 단양군과 중원군을 중심으로 후기백자의 생산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30기중에서 15세기에 해당하는 가마는 백자는 없고 18기의 분청사기가마뿐이다. 분포지는 괴산과 영동에 밀집해 있으며 다음장에서 언급하겠지만 특히 영동의 추풍령면 사부리 황보1호가마는 주목되는 분청사기 가마터이다.

2. 발굴조사현황

충청도의 도요지 발굴조사는 지금까지 공주 학봉리, 연기 송정리, 중원 미륵리 등 모두 3건이 있었다. 그 중 학봉리와 송정리 2곳은 분청사기 요지로서 보고서가 나와 있으며 중원 미륵리는 17~20세기에 걸쳐 제작된 백자 가마터이고 보고서는 미간이다.

학봉리와 송정리 가마는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에 기록된 東鶴洞과 松峴里로 생각하며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듯이 1420년대에 활동하고 있었다는 연구논문이 이미 발표되었다. 그러면 학봉리와 송정리의 발굴조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公州 鶴峰里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에는 15곳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조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927년 발굴조사되어 1929년 보고서가 간행된 바 있다.¹¹⁾ 발굴된 가마터는 그 후 아무런 보존조치도 취하지 않은

11) 野守健, 『鷄籠山麓 陶窯址 發掘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9.

채 방지되어 발굴 직후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퇴적층이 인위적으로 모두 파괴되어 교란되어 버렸다. 1992년 국립중앙박물관과 호암미술관에서는 재발굴작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가마를 다시 찾아내는 등 학술적인 발굴이 진행되었고 또 일인들에 의해 잘못 발굴된 부분도 지적되어 사실상 1929년에 간행된 보고서는 더이상 인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발굴한 가마와 새로 발굴된 가마 그리고 상당량의 도편을 수습하였으나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학봉리 분청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용이나 더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학봉리 분청사기 가마와 도편분석은 V장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주생산품은 분청사기이며 또 백자로 이행해 갔으므로 백자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봉리에서는 1420년대~1530년대까지 약 100여년 이상 요업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다양하고도 많은 양의 폐기도편 퇴적이 있었다고 본다. 1992년 재발굴시 완전한 퇴적층의 확인은 실패했기 때문에 100여년간의 선후관계는 밝히지 못했으나 많은 양의 도편이 수습되어 앞으로의 보고서 간행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 燕岐 松亭里

연기군 전동면 송정리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 의해 1990년 12월 한 달 동안 산업도로 확장으로 인한 긴급 구제발굴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적층과 작업장은 찾지 못하고 가마구조만이 불완전하게 확인되었으며 도편도 표토로부터 수습한 것 뿐이다. 그러므로 연기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송정리 분청사기 가마는 그 실상의 전모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다만 가마의 대체적인 구조와 최소한의 도편 성격만을 규명할 수 있었다.¹²⁾ 이상에서와 같이 불완전하고 영세한 발굴자료와 대강의 지표조사만 되어있는 현 상태에서어나마 충청도의 도사기에 대한 연구현황은 어떠한지를 보기로 한다.

3. 연구 현황

충청도 지방의 일부 가마터 혹은 이로부터 출토된 도편을 자료로 하여 연구된 책으로는 『粉靑沙器研究』¹³⁾가 있고 논문으로는 「燕岐 松亭里 粉靑沙器 대집」¹⁴⁾과 「初期 粉靑沙器 가마터 분포에 대한 一考察(Ⅰ)」¹⁵⁾ 등 그리고 석사논문이 있다. 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忠淸南道 燕岐郡·高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公州大學校 博物館, 『松亭里陶窯址』, 1991.

13) 姜敬淑, 『粉靑沙器研究』, 一志社, 1986, pp. 164~258.

14) 姜敬淑, 「燕岐松亭里 粉靑沙器대집」 『美術史學研究』 197, 韓國美術史學會, 1993, pp. 5~53.

15) 姜敬淑, 「初期 粉靑沙器 가마터 분포에 관한 一考察(Ⅰ)」 『泰東古典研究』 제10집, 泰東古典研究所, 1993, pp. 957~1013.

1) 『粉靑沙器研究』

『粉靑沙器研究』에는 분청사기의 개념과 특징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8개 市·道의 61基의 窯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부터 직접 수집한 도편을 분석하여 각각의 제작시기 추정과 그 지방의 특색을 밝히면서 아울러 분청사기의 편년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도편을 기본자료로 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여기서 처음 시도되었다.

〈表 7〉 충청남·북도 분청사기 요지 출토 도편분석 연구현황(『粉靑沙器研究』1986, pp. 164~258)

도	요 지	수	시 기	특 징
충	공주군 의당면 가산리	1	약 1430~1440년경	1. 기종다양(11종류) 2. 印花文과 集團連圈文
	공주군 의당면 중흥리	2	1417~1427년경	1. 흑백상감기법, 魚文 2. 촘촘한 集團連圈文이나 단독 小菊花文 없음 3. 「金」「司」銘흑백상감 명문접시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7	약 1420~1530년경	1. 鐵畫기법, 귀얄기법 2. 지방특색 뚜렷 3. 묘지편 출토(1487, 1490, 1536년) 4. 백자로 이행해간 분청요지
청	공주군 반포면 온천리	1	약 1430~1440년경	1. 草文, 중권문, 집단연권문
	연기군 전동면 금사리	1	15세기 후반~ 16세기 전반	1. 菊花文, 集團連圈文 알게 압인 2. 「禮賓」銘片 3. 높은 굽형태 4. 백자와 혼재
남	연기군 전동면 달전리	1	15세기 중엽~ 15세기 후반	1. 重圈文 2. 雨点文과 면상감 동시 사용 3. 높은 굽형태
	연기군 서면 청라리	1	1420~1430년경	1. 기형다양 2. 상감기법의 蓮唐草文, 草水禽文 3. 갑발
도	연기군 서면 쌍류리	1	약 1430~1440년경	1. 중심문양에 상감기법 없음 2. 印花文, 重圈文
	연기군 서면 기룡리	1	약 1420~1430년경	1. 상감기법의 蓮唐草文 2. 印花文, 重圈文 3. 六角瓣文
충청 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기막리	4	15세기 중엽~ 15세기 후반	1. 집단연권문 퇴조현상 2. 국화문, 육각판문, 와선문 3. 백자화의 양상 뚜렷
계	10개 지역	20기		

충청남도에서는 공주군 의당면 가산리, 중흥리(2기), 반포면 학봉리(7기), 온천리, 연기군 전동면 금사리, 달전리, 서면 청라리, 쌍류리, 기룡리 등 모두 9개지역 10기의 분청사기 가마를 다루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괴산군 청천면 사기마리 1지역 4기의 가마로부터 출토된 도편을 분석하고 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表 7>과 같다.

2) 「燕岐 松亭里 분청사기 대접」

이 논문에는 “문양분석과 제작시기 시도”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송정리 가마터의 발굴은 미완성의 상태였고 또 수습도편도 영세하였지만 파편조각에 새겨진 문양을 통해서 제작시기 규명을 시도한 글이다. 또 「司膳」銘 도편의 존재라든지 『世宗實錄』地理志에 縣南 松峴里 磁器所 中品이라는 기록 등을 통해서 제작활동 시기는 1411~1421년 경이며 松峴里는 지금의 松亭里일 것이라는 시론을 개진하고 있다.

3) 「初期 粉靑沙器 가마터 분포에 대한 一考察(Ⅰ)」

이 논문에서는 初期 粉靑沙器가 대략 1360~1420년 사이에 제작된 것을 말한다는 분청사기에 있어서의 초기 개념을 밝히면서 이 시기에 전남 강진에서부터 거의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1420년대에는 324개라는 많은 가마가 운영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확산경로와 확산 원인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초기 분청사기를 대표하는 대접문양의 하나인 蓮唐草文이 출토되는 가마터를 추적하였다. 蓮唐草文이 출토되는 가마터는 충청도에서는 대전, 공주, 청양, 연기, 옥천, 영동 등의 지역이며 이들 중에는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에 기재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陶器所 연구와 관련되는 글이다.

4) 기타

기타로는 석사논문이 있다.¹⁶⁾ 이 논문은 燕岐郡 松亭里와 達田里, 公州郡 中興里와 佳山里 등 모두 4지역의 粉靑沙器窯址에서 수집되는 도편을 분석하여 印花技法의 변천과정을 파악한 논문이다. 도편의 문양분석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는 글이다.

IV.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磁器所·陶器所 分析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磁器所와 陶器所를 분석하기 위해 추정지역에 대하여 먼저 자기소와

16) 李愛玲, 『印花技法 粉靑沙器의 變遷研究』, 梨花女子大學校 대학원 석사논문, 1993.

도기소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확인·추정지역내에서 조사되는 도자기의 성격을 언급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은 15세기에 제작활동한 지역의 것만을 취급하려고 한다. 따라서 수집되는 도편의 성격에 따라 세종 당시의 磁器, 沙器, 陶器의 분류기준이 어떠했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기초로 하여, 『世宗實錄』地理志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된 요지기록 비교를 통해 15세기 전반과 후반의 요업실태를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世宗實錄』地理志의 磁器所와 陶器所의 성격의 일부를 규명해 볼 수 있지않을까 한다.

1.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磁器所·陶器所 확인·추정지역

1) 磁器所의 확인·추정지역

① 忠州 州西 寶蓮洞(下品)

寶蓮洞은 지금의 中原郡 老隱面 蓮河洞으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老隱面 蓮河洞은 中原郡 老隱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河南里, 立場里, 寶蓮里, 楮田洞, 于城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寶蓮의 蓮자와 河南의 河자를 따서 蓮河洞이라고 했다.¹⁷⁾ 따라서 세종 당시의 寶蓮洞은 지금의 蓮河洞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② 天安 郡南 豐歲縣 介峴洞(下品)

介峴洞은 지금의 忠南 天安郡 光德面 芝長里이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光德面 芝長里는 본래 천안군 원일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石芝洞, 寺基洞, 東山里, 대곡리, 장구리, 王升里를 병합하여 石芝와 長久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芝長리라 하여 광덕면에 편입되었다. 지장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 갯골인데 갯골에는 王升里, 蓋谷, 介峴洞이 있는데 갯골은 蓋峙고개 入口이다.¹⁸⁾ 따라서 世宗 당시의 개현동은 지금의 天安 芝長里임이 확실하다. 더욱이 지장리에서는 세종 당시의 陶片이 소량 수습된다.

③ 木川 縣北 烏山(中品)

烏山은 지금의 天安郡 北面 沙潭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沙潭里는 본래 木川郡 北面의 지역으로서 앞에 외딴 섬이 있으므로 “오미” 또는 “오산”이라고 하였으며 또는 조선 때 사기점이 있었으므로 “사기소” “사고시” “사구시”라고도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사, 중사, 하사를 병합하여 사기소와 이어담의 이름을 따서 沙潭리라 하여 천안군 북면에 편입되었다.¹⁹⁾ 이 곳에서는 조선 초기의 인화문 분청사기 가마터를 2기 확인하였다.

1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3(충북편), 1970, p. 423.

1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下), 1974b, p. 323.

19) 위책, pp. 341~342.

④ 全義 縣南 松峴里(中品)

松峴里는 지금의 燕岐郡 全東面 松亭里로 추정된다. 추정의 근거는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전동면 송정리는 본래 全義郡 東面の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곡리, 사정리, 신대리, 생송동, 대중송동을 병합하여 송동과 사정의 이름을 따서 송정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²⁰⁾ 따라서 松峴里가 지금의 松亭里로 추정되며 앞 장에서 「燕岐 松亭里 분청사기 대접」이라는 논문으로 밝힌 바와 같이 前期 第2期(약 1390~1420년경)에 속하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되고 있어 세종 당시 磁器所의 기록과 일치되는 요지이다.

⑤ 鎭川 縣西 大三洞(下品)

大三洞은 지금의 鎭川郡 栢谷面 大門里 중수문 마을이라고 생각되며 중기 제1기(약 1420년경~1450년경)에 속하는 상태가 양호한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大門里는 원래 진천군 백곡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大三洞과 水門里를 병합하여 大門里가 되었다.²¹⁾ 따라서 대삼동은 지금의 대문리이며 가마터가 있는 곳은 중수문 마을이다.

⑥ 公州 州北 軍知村(中品)

軍知村은 지금의 儀堂面 佳山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佳山里는 본래 공주군 儀堂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中山里, 佳樂里, 具山里, 新陽里, 泉水洞, 台山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가락과 중산의 이름을 따서 佳山里라 하여 의당면에 편입되었다.²²⁾

그런데 현재 공주시에서 북쪽에 위치한 요지는 佳山里, 中興里, 月谷里로 각각 1기씩 분청사기 가마터가 조사되어 있다. 특히 佳山里에는 群卒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가산리의 군졸부락에서 150여m 앞인 中山부락에 1기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다.²³⁾ 따라서 軍知村과 群卒이 어떤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보아 軍知村은 佳山里의 일부로 추정하였다.

⑦ 公州 州東 東鶴洞(中品)

東鶴洞은 지금의 東鶴寺가 있는 反浦面 鶴峰里 일대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鶴峰里는 공주군 반포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石峰里, 沙器所, 東屹里, 密木峙를 병합하여 학바위와 석바위의 이름을 따서 학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²⁴⁾ 그런데 이 일대에는 약 100년 이상의 요업기간을 보여주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동학사를 향해 왼쪽 산자락에 밀집해 있다. 1927년에 일부 가마가 발굴되었고 1992년도에 재발굴이 이루어진 곳으로 특히 분청사기 철화기법에서 독자적인 특색이 발휘된 지역이다.

20) 한글학회, 앞책, 1974b, p. 222.

21) 한글학회, 앞책, 1970, p. 485.

2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상), 1974a, p. 77.

23) 佳山里 분청사기 출토 도편을 다룬 논문은 1985년(姜敬淑, 『粉靑沙器研究』)에 있었으며 그후 정밀조사하여 군지촌을 군졸부락으로 추정된 논문에는 李愛玲, 『印花技法 粉靑沙器 變遷研究』(1993)가 있다.

24) 한글학회, 앞책, 1974a, p. 50.

⑧ 連山 縣東 伐谷里(下品)

伐谷里는 지금의 論山郡 伐谷面 德谷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德谷里는 連山郡 伐谷面 지역으로 덕실, 덕밀, 덕곡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中伐谷, 相思岩里, 上伐谷 일부를 병합하여 德谷里라 하여 논산군에 편입되었다.²⁵⁾ 그러므로 世宗 당시의 伐谷里는 지금의 德谷里이다.

⑨ 靑陽 縣東 長谷洞(下品)

長谷洞은 지금의 靑陽郡 大峙面 長谷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靑陽郡은 본래 동상면으로서 골짜기가 길므로 長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동, 광전리 일부를 병합하여 장곡이라 하여 대치면에 편입되었다.²⁶⁾

이 곳에서는 前期 제2기에 속하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남아 있어 세종 당시 활동했던 가마임을 알 수 있고 또 靑陽郡 定山面 天庄里에서도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곡리 일대에서는 분청사기 제작이 활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⑩ 保寧 縣西 靑淵里(下品)

靑淵里는 지금의 保寧郡 靑所面 聖淵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靑所面 聖淵里는 본래 보령군 청소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聖堂里, 淸淵里, 陽地里, 陰地里, 城洞을 병합하여 성당과 청연의 이름을 따서 聖淵里라고 하였다.²⁷⁾ 따라서 세종 당시의 靑淵里는 지금의 聖淵里임이 틀림없다.

⑪ 大興 縣東 夫隱伊里(中品)

夫隱伊里는 지금의 禮山郡 新陽面 時旺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時旺里는 원래 대흥군 원동면의 지역으로서 시왕이, 시왕, 또는 삼왕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시왕 동쪽에 있는 상불운리, 하불운리를 병합하여 시왕리라 해서 예산군 신양면에 편입되었다.²⁸⁾ 따라서 세종 당시의 부은이리는 시왕 동쪽에 상불운리와 하불운리로 남아 있음이 확실하다.

⑫ 慶尙道 金山郡 黃金所 寶賢里(中品)

永同 沙夫里 黃寶는 『世宗實錄』 地理志에 보면 그 당시의 행정구역으로는 慶尙道 金山 寶賢里에 속해 있으며 中品の 磁器를 생산했고 黃金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에 속해 있으며 지금도 이곳은 沙夫里 黃寶마을로 불리우고 있다.

沙夫里 黃寶에서는 모두 4기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되며 상태는 파괴되었으나 시기적으로는 中期(1420~1470)에 활동했던 가마들이다. 따라서 沙夫里는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의 당시의

25) 한글학회, 앞책, 1974a, p. 186.

26) 한글학회, 앞책, 1974b, p. 377.

27) 한글학회, 앞책, 1973a, p. 429.

28) 위책, p. 277.

상황을 보여주는 곳 중의 한 지역이어서 주목된다. 그런데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黃澗에는 中品 磁器所가 縣東 臥鼎洞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沙夫里 黃寶마을에 분청사기 가마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世宗實錄』地理志 기록과의 관계는 황보마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확인 추정된 12개 지역의 조사현황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表 8>.

<表 8> 『世宗實錄』地理志 忠清道 磁器所 조사현황(1994년)

번 호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					조 사 현 황	
	지방	수량	방향	소 재 지	품질	확인·추정 소재지	분청요지
1	忠州	1	州西	寶蓮洞	下	忠北 中原郡 老隱面 蓮河洞	
2	槐山	1	郡南	茵峴里	下		
3	天安	1	郡南	介峴洞	下	忠南 天安郡 廣德面 芝長里	1기
4	木川	1	縣北	烏山	中	忠南 天安郡 北面 沙潭里	2기
5	全義	2	縣西	芒峴里	中		
6			縣南	松峴里	中	忠南 燕岐郡 全東面 松亭里	1기
7	燕岐	1	縣北	要惠方	中		
8	溫水	1	縣南	上谷洞	中		
9	永同	1	縣西	加夕帖里	下		
10	黃澗	1	縣東	臥鼎洞	中	忠北 永同郡 秋風嶺面 沙夫里	4기
	金山	1	郡西	黃金所 寶賢里	中		
11	鎭川	1	縣西	大三洞	下	忠北 鎭川郡 栢谷面 大門里	1기
12	公州	2	州北	軍知村	中	忠南 公州郡 儀堂面 佳山里	1기
13			州東	東鶴洞	中	忠南 公州郡 反浦面 鶴峰里	8기
14	藍浦	1	縣東	吹鍊毛老里	中		
15	定山	1	縣西	獐項里	中		
16	鴻山	1	縣北	所音漢洞	中		
17	連山	1	縣東	伐谷里	下	忠南 論山郡 連山面 伐谷里	
18	扶餘	1	縣西	扭峴洞	下		
19	瑞山	1	郡北	沙器洞	下		
20	禮山	1	縣東	草伊方	下		
21	青陽	1	縣東	長谷洞	下	忠南 青陽郡 大峙面 長谷里	1기
22	保寧	1	縣西	青淵里	下	忠南 保寧郡 靑所面 聖淵里	1기
23	大興	1	縣東	夫隱伊里	中	忠南 禮山郡 新陽面 時旺里	
계	21	23기				12지역	20기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24~1432년 사이에 조사된 『世宗實錄』地理志에는 磁器所가 모두 21개지역에서 모두 23기(全義와 公州에서 각각 2基)의 자기 제작지가 조사되어 있다. 57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당시의 지명이 확인된 지역이 12개지역이고 15세기에 해당되는 가마는 9개지역에서 20기의 가마가 확인되는데 모두가 분청사기 가마이며 특히 제작 활동시기가 대부분 1450년 이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자기소의 증품과 하품은 그 당시 백자를 지칭한 것이라기보다는 분청사기였음을 알 수 있다.

2) 陶器所의 확인 · 추정지역

① 淸風 郡北 位谷里(下品)

位谷里는 지금의 忠北 堤川郡 錦城面 渭林里로 확인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位谷里는 우실마을로 위림리의 중심 마을이며 月窟里 圓林部谷의 아래가 된다. 渭林里는 원래 淸風郡 北面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渭谷里와 月林里 일부를 병합하여 渭林里라 해서 제천군 錦城面에 편입되었다.²⁹⁾ 따라서 세종 당시의 “位”자 표기가 그 후 “渭”자로 바뀌었다고 보아 位谷里 → 渭谷里 → 渭林里로 되어 位谷里는 현재 渭林里로 확인된다.

② 堤川 縣西 馬谷洞(下品)

馬谷洞은 지금의 忠北 堤川郡 鳳陽面 馬谷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馬谷里는 제천군 近左面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渴馬飲水形이라 하여 마실 또는 마곡리라 하다가 음지마곡과 양지마곡의 두마을로 바뀌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두 마을을 병합하여 마곡리라 하고 1920년 鳳陽面에 편입되었다.³⁰⁾ 그러므로 세종 당시의 馬谷洞은 馬谷里로 확인된다.

③ 沃川 郡西 金伊山(下品)

金伊山은 지금의 忠北 沃川郡 郡西面 金山里이든지 아니면 郡西面 沙亭里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郡西面 沙亭里는 본래 郡西二所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沙器里와 杳亭里 일부를 병합하여 沙亭里라 해서 郡西面에 편입되었다.³¹⁾ 또 郡西面 金山里는 본래 郡西二所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曾山里, 金川里, 谷村 일부를 병합하여 金川과 曾山の 이름을 따서 金山里라 해서 郡西面에 편입되었다.³²⁾ 따라서 金伊山の “金”자와 “山”자가 있는 曾山里와 金山里가 병합된 金山里가 세종 당시의 金伊山으로 추정되나 沙亭里에서 前期 제1기(1360년경~1390년경)에 속하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 조사되고 있다. 그런데 상술한 磁器所 확인 과정에서 자기는 粉靑沙器일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沙亭里에서 수습되는 분청

29) 한글학회, 앞책, 1970, p. 359.

30) 위책, pp. 368~370.

31) 위책, p. 254.

32) 위책, p. 253.

사기는 陶器로 분류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金伊山은 沙亭里라기보다는 金山리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④ 木川 縣北 板陰(下品)

板陰은 지금의 忠南 天安郡 北面 梅松리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北面 梅松리는 본래 木川郡 北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매송리, 송정리, 雲溪里와 狗項里 일부를 병합하여 梅堂과 松亭의 이름을 따서 梅松리라 하여 天安郡 북면에 편입되었다. 매송리에서 가장 큰 마을은 너러바위 안쪽의 느러니로 느러니에는 조선초기에 질그릇점이 있었다고 하며 隴安, 雲溪, 板陰마을을 포함한다.³³⁾ 따라서 세종 당시의 木川 板陰은 지금의 梅松리에 해당한다.

⑤ 木川 縣東 犬項(下品)

犬項은 지금의 忠南 天安郡 北面 梅松리로 추정되는데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梅松리에는 狗項里 일부가 병합되어 있으며 개모기(狗項 또는 犬項)는 개모기고개 서쪽 밑에 있는 마을로 『世宗實錄』 地理志에 보면 이곳에 陶器所를 두었다고 조사하고 있다.³⁴⁾

따라서 한자표기로는 犬項으로 전해지지 않고 狗項이나 大項으로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犬項은 狗項里를 포함하고 있는 梅松리임을 알 수 있다.

⑥ 稷山 縣東 天興里(下品)

天興리는 지금의 忠南 天安郡 聖居面 天興리로 확인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聖居面 天興리는 본래 稷山郡 이남면의 지역으로서 天興寺가 있었으므로 天興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天興리라 하여 天安郡 聖居面에 편입되었다.³⁵⁾ 세종 당시의 지명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우이다.

⑦ 鎭川 縣西 狗死里(下品)

狗死리는 지금의 忠北 鎭川郡 栢谷面 九水里로 확인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栢谷面 九水里는 원래 진천군 백곡면 지역으로 구슬, 구수굴, 구수라고도 하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新介竹里, 介竹里를 병합하여 九水里라 하였다. 介竹마을 구메바위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에 개죽이 많다고 한다.³⁶⁾ 世宗 당시는 狗死里 즉 개죽마을의 뜻으로 개를 죽이는 마을로 풀이되었는데 언제부터 개죽리라는 이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또 九水里는 아홉개의 강줄기를 의미한다고 보겠는데 현재 栢谷面에는 栢谷저수지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으므로 狗死→九水로 바뀌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으며 지명으로는 狗死의 의미가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하여튼 世宗 때의 狗死리는 지금의 九水里로 확인된다.

33) 한글학회, 앞책, 1974b, p. 341

34) 위책, p. 341.

35) 위책, p. 345.

36) 한글학회, 앞책, 1970, p. 484.

⑧ 公州 州南 粉浦黃瓮匠(下品)

粉浦黃瓮匠은 지금의 忠南 公州郡 灘川面 汾江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灘川面 汾江里는 본래 公州郡 半灘面 지역으로서 금강이 갈라져 흘렀으므로 分江(汾江) 또는 分浦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倉岩里, 聖里 일부를 병합하여 汾江里라 하여 탄천면에 편입되었다.³⁷⁾ 그러므로 세종 당시의 粉浦는 지금의 汾江里로 추정되는데 특별히 粉浦黃瓮匠이라 하여 黃瓮 제작으로 이름났던 것으로 추정되며 陶器所는 黃瓮과 같은 항아리를 제작했던 곳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⑨ 鴻山 縣北 沙邑峴洞(中品)

沙邑峴洞(삼재골)은 지금의 忠南 扶餘郡 鴻山面 上川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鴻山面 上川里는 본래 鴻山郡 大也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上老里, 下老里, 瓦川里, 勒洞 일부를 병합하여 上老와 瓦川의 이름을 따서 上川里라 하여 부여군 鴻山面에 편입되었다. 沙邑峴洞은 삼재골로 해석되어 삼재 즉 삽티(插峙)가 되겠는데 삽티마을은 上川里에서 으뚝되는 마을이며 삽고개는 上川里에서 북쪽 내산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³⁸⁾ 따라서 沙邑峴洞은 지금의 上川里라고 생각된다.

⑩ 鎭岑 縣西 城北里(下品)

城北里는 지금의 대전직할시 儒城區 城北洞으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儒城區 城北洞은 본래 鎭岑郡 西面 지역으로서 성재 뒤에 있으므로 잣뒤, 잣디 또는 城北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上성북리, 하성북리, 新川里 일부를 병합하여 城北里라 하여 鎭岑面에 편입되었다.³⁹⁾ 현재는 大田직할시 유성구 성북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성북동에서는 상감청자의 전통이 짙은 분청사기 前期 제1기(1360년경~1390년경)에 속하는 도편이 수집되는 파괴된 가마터 1기가 확인되었다.

⑪ 瑞山 郡東 寶賢洞(下品)

寶賢洞은 지금의 忠南 瑞山郡 雲山面 龍賢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雲山面 龍賢里는 본래 海美郡 夫山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寶賢洞, 講堂, 葛洞, 龍飛洞, 이도면의 거상리 일부를 병합하여 龍飛洞과 寶賢洞의 이름을 따서 龍賢里라 하여 서산군 운산면에 편입되었다.⁴⁰⁾ 따라서 세종 당시의 寶賢洞은 지금의 雲山面 龍賢里로 간주된다.

⑫ 海美 縣東 獐項里(下品)

獐項里는 지금의 忠南 瑞山郡 雲山面 龍獐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雲山面 龍獐

37) 한글학회, 앞책, 1974a, p. 105.

38) 위책, p. 500.

39) 위책, p. 345.

40) 한글학회, 앞책, 1974b, p. 54.

리는 본래 해미군 이도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墨峴里, 龍淵里, 獐項里, 水山洞, 場坪里, 中里, 숙룡평리 일부를 병합하여 龍淵과 獐項의 이름을 따서 龍獐리라 하여 서산군 운산면에 편입되었다.⁴¹⁾ 따라서 世宗 당시의 海美 獐項里는 현재 瑞山 龍獐里로 추정된다.

⑬ 定山 縣東 鷄鳳洞(下品)

定山 鷄鳳洞은 지금의 忠南 靑陽郡 定山面 白谷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定山面 白谷里는 본래 정산군 읍내면의 지역으로서 鷄鳳山 밑이 되므로 박실 또는 백실, 백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葛谷里, 道井里를 병합하여 백곡리라 해서 淸양군 정산면에 편입되었다.⁴²⁾ 이러한 조사기록에서 보듯이 白谷里는 鷄鳳山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한것에 의해 世宗 당시의 定山 鷄鳳洞은 지금의 白谷里로 추정된다.

⑭ 靑陽 縣東 板洞(下品)

靑陽 板洞은 지금의 忠南 靑陽郡 大峙面 光大里로 본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大峙面 光大里는 본래 淸양군 동상면의 지역으로서 예전에 광대가 살았으므로 광대울 또는 광대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聖住洞, 板洞을 병합하여 광대리라 해서 대치면에 편입되었다.⁴³⁾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聖住洞과 板洞을 병합하여 광대리라고 하였다고 하므로 世宗 당시의 靑陽 板洞은 지금의 靑陽 光大里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⑮ 保寧 縣西 長尺洞(下品)

保寧 長尺洞은 지금의 忠南 洪城郡 銀河面 長尺里로 추정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銀河面 長尺里는 본래 結城郡 加山面의 지역으로서 장자가 살았다 하여 장자울 또는 장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리, 포항리 일부와 오천군 천북면의 창리, 구창동, 두실동, 병리를 병합하여 장척이라 해서 홍성군 은하면에 편입되었다.⁴⁴⁾ 그러므로 世宗 때의 保寧 長尺洞은 현재 洪城郡 長尺里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⑯ 大興 縣東 居邊里(下品)

大興 居邊里는 지금의 禮山郡 新陽面 加支里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신양면 가지리는 본래 大興郡 居邊面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가지처럼 되었으므로 가지, 또는 고려 때 것소(巨叱勿所)가 변하여 居邊所가 되었으므로 거변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自隱洞, 德洞과 淸양군 북하면의 하두리 일부를 병합하여 가지리라 해서 예산군 신양면에 편입되었다.⁴⁵⁾ 따라서 世宗 당시의 大興 居邊리는 예산군 가지리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世宗實錄』 地理志에 조사된 충청도 陶器所 33개 지역 가운데 16개 지역만이 확인 또는

41) 한글학회, 앞책, 1974b, p. 54.

42) 위책, p. 395.

43) 위책, p. 375.

44) 한글학회, 앞책, 1974a, p. 443.

45) 한글학회, 앞책, 1974b, p. 273.

추정되었다(表 9). 이 가운데 충남 연기군 서면 부동리와 충남 부여군 홍산면 상천리의 두 곳 만이

〈表 9〉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陶器所 확인 · 추정지역 조사현황(1994년)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陶器所						조 사 현 황
	지방	수량	방향	소 재 지	품질	확인 · 추정 소재지
1	忠州	1	州北	月乎峴	下	
2	淸風	1	郡北	位谷里	下	忠北 堤川郡 錦城面 渭林里
3	槐山	1	郡南	吾只峴	下	
4	堤川	1	縣西	馬谷洞	下	忠北 堤川郡 鳳陽面 馬谷里
5	淸州	2	州南	加左谷	下	
6			州北	牛項	下	
7	天安	1	郡南	其火谷洞	下	
8	沃川	1	郡西	金伊山	下	忠北 沃川郡 郡西面 金山里
9	木川	2	縣北	板陰	下	忠南 天安郡 北面 梅松里
10			縣東	犬項	下	忠南 天安郡 北面 梅松里
11	靑安	1	縣東	蘆谷	下	
12	全義	1	縣西	釜洞里	中	
13	燕岐	1	縣北	要惠方	下	
14	稷山	1	縣東	天興里	下	忠南 天安郡 聖居面 天興里
15			縣東	金谷洞	中	
16	永同	1	縣南	木村里	下	
17	懷仁	1	縣西	屯安里	下	
18	報恩	1	縣東	外任里	下	
19	鎭川	1	縣西	狗死里	下	忠北 鎭川郡 栢谷面 九水里
20	公州		州南	粉浦黃瓮匠	下	忠南 公州郡 灘川面 汾江里
21			州東	仇耳洞	下	
22	林川	1	郡北	場巖里	中	
23	藍浦	1	縣東	炭釜浦	下	
24	庇仁	1	縣南	獐項里	下	
25	定山	1	縣東	鷄鳳洞	下	忠南 靑陽郡 定山面 白谷里
26	鴻山	2	縣北	沙邑峴洞	中	忠南 扶餘郡 鴻山面 上川里
27			縣北	板梯	中	
28	鎭峇	1	縣西	城北里	下	大田 직할시 儒城區 城北洞
29	洪州	1	州北	弘天里	下	
30	泰安	1	郡北	末訖川	中	
31	瑞山	1	郡東	寶賢洞	下	忠南 瑞山郡 雲山面 龍賢里
32	海美	2	縣東	獐項里	下	忠南 瑞山郡 雲山面 龍璋里
33			縣東	只品金		
34	德山	1	縣西	楓枝洞	下	
35	禮山	1	縣北	冬火伊	下	
36	靑陽	1	縣東	板洞	下	忠南 靑陽郡 大峙面 光大里
37	保寧	1	縣西	長尺洞	下	忠南 洪城郡 銀河面 長尺里
38	大興	1	縣東	居邊里	下	忠南 禮山郡 新陽面 加支里
계	33	38기				16지역

中品을 생산했고 나머지는 모두 下品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陶器에 있어서도 中品과 下品の 기준은 알 수 없는데 확인된 16개 지역에서는 中品이건 下品이건 간에 어떤 종류의 가마터도 찾을 수 없었다. 가마터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下品の 용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 존속기간도 짧았고 또 가마 자체의 견고성도 약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 앞으로 확실한 陶器窯址가 발견되기를 기대해 본다.

2. 磁器所 · 陶器所 문제

磁器所 · 陶器所라는 뜻은 磁器 혹은 陶器를 굽던 지역이라는 뜻이겠지만, 所라는 의미는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新羅時代부터 내려오는 말단 행정구역으로서의 所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산집단으로서의 기본적인 행정구역이었던 전통이 그대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磁器所 · 陶器所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조선 世宗시대 139개소의 자기소와 185개소의 도기소에 있어서 磁器나 陶器의 개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전국 324개의 磁器所 · 陶

〈表 10〉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의 粉靑沙器 窯址 확인지역(1986년 기준)

번호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	粉靑沙器 窯址	특 징
1	京畿道 廣州 州東伐乙川(上品)	京畿 廣州郡 中部面 樊川2里	象嵌, 印花
2	京畿道 廣州 州東峯峴	京畿 廣州郡 退村面 陶水3里	象嵌, 印花
3	忠清道 公州 州東東鶴洞(中品)	忠南 公州郡 反浦面 鶴峰里	印花, 귀얄, 鐵畫
4	忠清道 保寧 縣西靑淵里(下品)	忠南 保寧郡 靑所面 聖淵里	象嵌, 印花
5	忠清道 靑陽 縣東長谷洞(下品)	忠南 靑陽郡 大峙面 長谷里	印花, 귀얄
6	全羅道 金溝 縣南金山	全北 金堤郡 金山面 金山里	印花
7	全羅道 扶安 縣南甘佛里(中品)	全北 扶安郡 保安面 牛東里	象嵌, 印花, 귀얄
8	全羅道 高敞 縣西德巖里(中品)	全北 高敞郡 雅山面 龍溪里	印花
9	慶尙道 高靈 縣東曳峴里(上品)	慶北 高靈郡 星山面 箕山洞	象嵌
10	慶尙道 晉州 州東中全里(下品)	慶南 晉陽郡 水谷面 孝子里	象嵌, 印花
11	慶尙道 昆南 郡南浦谷里(中品)	慶南 泗川郡 昆陽面 松田里	象嵌, 印花
합 계	11지역	11지역	

器所중에 확인 조사된 곳은 아주 적어서 1986년도 기준으로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된 磁器所는 경기도 2곳, 충청도 3곳, 전라도 3곳, 경상도 3곳 등 전국에서 모두 11개지역 뿐이었다(表 10).⁴⁶⁾

그런데 이번에 충청도 지역에 국한된 조사연구에서는 磁器所 21지역 중 지명이 확인되는 9지역에서 20基의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었다(表 8). 그런데 비해 충청도 도기소 33지역 가운데 당시의 지명이 확인된 곳은 16개지역이지만 토기나 옹기의 요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5세기로 추정되는 粉靑沙器나 白磁 窯址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世宗 당시의 磁器의 개념은 현재의 개념과 같이 백자와 분청사기를 다 포함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陶器는 토기나 옹기 종류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아 백자는 하얗고 분청사기는 회청색의 청자계열이다. 특히 『世宗實錄』地理志 자료를 수집할 당시에는 분청사기의 특징이 뚜렷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분청사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白土粉粧 기법인데 1420년대에는 본격적인 백토분장 기법은 유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1420년대의 磁器의 개념은 소수의 백자와 상감청자계열의 분청사기이다. 청자계열 자기에는 고려상감청자의 문양이 응용·계승되기도 하였으며 또는 다른 문양 형태로 변모해 새겨지기도 하여 소위 조선식의 상감청자를 제작한다. 예컨대 眞昭公主墓 출토 분청상감 초화문 네귀항아리같은 것들이다. 이 항아리에는 상감청자의 대표 문양 중의 하나인 雲鶴문양 가운데 鶴모양도 일부 응용되어 새겨져 있지만 草花文 경우는 고려시대 문양과는 전혀 다른 조선식의 초화문이 상감되고 있다. 그러므로 世宗 당시 전국적으로 가마를 조사하여 분류할 때도 상감청자계열의 분청사기는 그냥 磁器로 분류했지 陶器로 분류했을까가 없다고 본다. 사실상 粉靑沙器라는 명칭은 世宗 당시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20세기에 高裕燮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⁴⁷⁾ 그렇기 때문에 지리지의 자기소를 조사하면 1410~1430년대의 특징을 보이는 15세기 전반기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世宗實錄』地理志의 磁器所는 粉靑沙器를 지칭했음에 틀림없고 적어도 1420년대까지는 변모해간 상감청자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그런데 光州 忠孝洞이나 公州 鶴峰里的 경우와 같이 백자 생산으로 이행해간 가마가 몇몇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磁器所의 확인지역으로부터는 白磁의 흔적은 거의 없고 고려 상감청자계열의 분청사기이다. 따라서 그당시 백자의 생산은 지방의 경우 소규모 체제로는 운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충청도에서는 지방이름과 관청이름을 같이 그릇에 새겨서 중앙에 상납했던 분청사기는 거의 알려진 예가 없다. 그런데 高靈仁壽府, 彥陽仁壽府, 慶州長興庫, 軍威仁壽府 등과 같이 상납관청 이름을 새겨서 만든 그릇들은 대개가 경상도 지역의 이름이며 모두가 粉靑沙器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

46) 姜敬淑, 앞책, 1986, p. 24 <표 1>.

47) 高裕燮, 「高麗陶磁와 李朝陶磁」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通文館, 1963, p. 193.

48) 姜敬淑, 「蓮唐草文變遷과 印花文發生試考」 『梨大史苑』 20, 1983, pp. 1~28.

가 있다. 이처럼 그릇에 관청이름을 새겨 상납케 한 것은 태종 17년(1417) 이후의 현상이다.⁴⁹⁾ 139개소의 磁器所가 백자라면 관청이름이 새겨진 백자들이 있어야 할텐데 백자에 관청이름이 새겨진 예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粉靑沙器는 그 당시 磁器로 분류된 것이 틀림없으며 또 1424~1432년 사이에는 백자의 생산은 磁器所 가운데 上品으로 품질 표시가 된 4곳(廣州 伐乙川, 高靈 曳峴里, 尙州 秋縣里와 己未隈里)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粉靑沙器가 磁器로 분류되었던 것이 확실하므로 더이상 陶器이나? 磁器이나? 하는 논쟁은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世宗 당시 陶器의 개념기준은 어떠했을까?

磁器所에서는 볼 수 없는 “黃甕” “甕” “瓦”자가 도기소 기록에 국한되어 마을이름으로 혹은 마을 특색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예컨대 ① 忠淸道 公州牧 在州南 粉浦黃甕匠 下品, ② 慶尙道 草溪郡 在郡東 吾士要里 專陶黃甕 中品, ③ 慶尙道 晉州牧 在州南 盤龍津 專陶黃甕 下品, ④ 江原道 淮陽都護府 在州東 甕里 下品, ⑤ 平安道 泰川郡 在郡東 瓦窯洞 下品, ⑥ 咸吉道 豫原郡 在郡西 廣城嶺 下甕洞里 下品 등의 6곳의 陶器所에 보이는 “黃甕”·“甕”과 “瓦”자는 바로 陶器와 직결되는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

이러한 추정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뒷받침된다. 成覲의 『慵齋叢話』에 의하면⁵⁰⁾,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질그릇(陶器)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의 마포와 노랑진 등은 모두 진흙 굽는 것을 업으로 삼으니 이는 모두 瓦器, 항아리(缸), 독(甕) 종류이고 磁器와 같은 것은 白土를 써서 정밀하게 구워 만들어야 사용하기가 좋다. 외방 각도에는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高靈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정교하다. 그러나 廣州의 것이 더욱 정교하다...”⁵¹⁾

라는 기록이다.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陶器 즉 질그릇은 오늘날 간장, 된장을 담그는 장독과 같은 종류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甕器 혹은 瓦器와 같은 것을 생산했던 곳을 지칭했다고 본다. 또한 지금은 다 없어졌으나 서울 마포 孔德洞에는 옹기 굽는 곳이 196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成覲이 말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磁器는 白土로 만들어야 좋으며 고령에서 우수한 것을 만드나 廣州에서는 더욱 우수한 것을 만든다고 한 내용은 물론 백자를 두고 한 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成覲은 1439년에 출생하

49) 『太宗實錄』, 卷33, 太宗 17年 4月 丙子條.

50) 成覲은 世宗 21년(1439)~연산군 10년(1504)까지 생존했으며 수필집인 『慵齋叢話』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성종까지의 王世家, 장상, 시인, 문호, 서화, 음악인 등에 관한 일화와 諧談 그리고 과부, 僧房, 卜筮, 妓女, 蕩女들의 戀話와 실태를 다루고 있으며 中宗 20년(1525) 慶州에서 출간되었다.

51) 成覲, 『慵齋叢話』 卷10, 1525. (『大東野乘』 1, 국역총서49, 민족문화추진회, 1971)

“...人之所用, 陶器最緊, 今麻浦露梁等處, 皆以陶埴爲業, 此皆瓦器缸甕之類, 至如磁器, 須用白土, 精緻燻造, 然後可中於用, 外方各道, 多有造之者, 惟高靈所造最精, 然不若廣州之尤爲精也...”

여 15세기 후반에 활동한 사람이므로 고령과 광주의 백자를 말한 것은 15세기 후반의 상황이며 또 陶器를 甕器나 瓦器로 본 기준도 成倪의 활동기간인 15세기 후반의 경우이지만, 15세기 전반의 상황과 크게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地理志에 기재된 陶器所는 甕器나 瓦器 따위를 생산했던 곳이라고 보이며 磁器所에서는 소수의 白磁를 포함한 粉靑沙器를 주로 생산했고 이와 같은 粉靑沙器는 官衙用, 民需用의 일상용기였음에 틀림없다.

3. 上·中·下品 문제

磁器所나 陶器所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품질표시가 上·中·下로 되어 있다. 世宗 당시 품질 등급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上品 제작지는 磁器所 139개소 중에 4곳 뿐이고 陶器所에는 한 곳도 없다. 上品제작지는

1. 京畿道 廣州牧 州東 伐乙川
2. 慶尙道 高靈縣 縣東 曳峴里
3. 慶尙道 尙州牧 中牟縣 縣北 楸縣里
4. 慶尙道 尙州牧 中牟縣 縣東 己未隈里

의 4곳이다. 이 4곳 중에 상주의 상황은 지명과 요지가 잘 파악되어 있지 않으며 고령의 曳峴里는 지금의 箕山洞이요, 廣州 伐乙川은 지금의 廣州郡 中部面 樊川里 內谷으로 추정할 바 있다.⁵²⁾ 필자가 광주일대 백자와 분청사기 요지를 조사한 소견으로는 1424~1432년 사이에는 硬質의 조선백자가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고 일부분청사기요에서 백자에만 匣鉢을 사용하여 上品 백자를 생산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번천리의 분청사기요지(樊川粉靑 2호)의 퇴적층에는 분청사기 도편과 함께 많은 匣鉢片이 쌓여 있는데 이들 갑발편 중에는 白磁를 제작했던 흔적 즉 얇고 정교하며 잔 빙얼이 있는 上品의 백자편이 붙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⁵³⁾ 또한 8개소의 廣州 粉靑沙器 窯址 중에 갑발이 출토되는 곳은 樊川里 한 곳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420년대에는 분청사기의 생산이 주류였고 극히 소량의 御器 및 御器에 버금가는 특수한 경우에만 상품의 백자가 생산되었다고 생각되며 대부분의 官과 民에서는 粉靑沙器가 보편적인 기명이었던 것 같다. 하여간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의 “上品”은 분청사기를 지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는 우수한 치밀질의 백자를 지칭했다고 본다.

中品과 下品の 개념도 잘 알 수 없으나 충청도 자기소의 中品은 23기 중에 12기, 하품은 11기이며 도기소는 38기 중에 6기가 중품, 31기가 下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기와 도기의 中品 판별 기준은

52) 姜敬淑, 앞책, 1986, p. 24~25.

53) 위책, pp. 95~102 ; p. 33(도자 1) 樊川2 匣鉢 3.

달랐으리라고 생각된다. 磁器所의 中品 생산 지역 가운데 木川 烏山(現 天安 沙潭里), 全義 松峴里(現 燕岐 松亭里), 公州 軍知村(現 公州 佳山里), 公州 東鶴洞(現 公州 鶴峰里) 등 4개 지역에서는 분청사기가 생산되었다. 그런데 鎭川 大三洞과 靑陽 長谷洞은 下品으로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데 下品 지역에서는 귀얄분청사기가 비교적 많이 제작되고 있어 역시 그릇제품의 숨씨가 떨어지고 있음이 감지된다. 그러므로 문양의 정교성, 양질의 태토, 깨끗한 굽각기, 깔끔한 백토분장, 성의있는 만늬새 등으로 중품과 하품을 구별했으리라 본다. 중품의 분청사기는 관청이름이 새겨진 도편이 수습되는 곳 혹은 장인이름이 새겨진 도편이 수습되는 요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관청이름이 새겨진 그릇들은 무늬가 정성껏 새겨 있고 굽도 정교하게 깎아 마무리하고 그릇의 때갈도 깨끗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국의 분청사기 요지를 정밀조사하면 中品과 下品의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지리라 본다.

4.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忠淸道 磁器所·陶器所 비교

15세기에는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 두 권의 지리지의 편찬되었다. 앞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世宗實錄』地理志는 1424~1432년 사이의 지리의 상황이고 『新增東國輿地勝覽』은 1481년 전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적어도 1432년 이후 또 1481년 이후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世宗實錄』地理志의 磁器所·陶器所가 1432~1481년 사이 변해간 모습을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비추어서 알 수 있다.

〈表 11〉은 두 지리지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磁器所와 陶器所로 나누어 표를 작성하였고 『經國大典』工典 司饗院에 소속된 380명의 京工匠과 충청도에 기록되어 있는 外工匠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表에 참고로 곁들였다.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자기 생산지가 21곳 23기였던 것이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淸州, 天安, 木川, 全義, 燕岐, 黃澗, 藍浦, 定山, 禮山 등 9곳에서만 磁器와 沙器가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9곳은 대체로 요업이 성했던 中品 磁器를 생산하던 곳이다. 그런데 公州 鶴峰里(世宗 당시 東鶴洞)에는 1536년까지도⁵⁴⁾ 요업이 확실히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 지방 土産品에 대한 내용조사는 허술한 면이 있었다고 간주된다. 陶器所의 경우도 33개지역 38기에서 50년 후에는 단지 4개 지역으로 줄고 있어 자기소의 감소현상보다 더욱 심각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世宗 당시는 磁器와 陶器가 국가의 주요한 土産貢物의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成宗 때에는 토산공물의 대상이기 보다는 단지 그 지방 토산물의 성격만을 띄고 있었기 때문이

54) 학봉리 분청사기 가마로부터 粉靑鐵畫귀얄成化二十三年(1487)銘 墓誌片, 粉靑鐵畫귀얄弘治三年(1490)銘 墓誌片, 粉靑鐵畫귀얄嘉靖十五年(1536)銘 墓誌片이 출토되었다.

<表 11>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忠淸道 磁器所·陶器所 비교

磁 器 所					陶 器 所					經國大典 沙器匠人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 輿地勝覽』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 輿地勝覽』						
지방	수량	방향	소재지	품질		지방	수량	방향	소재지			품질					
忠州	1	州西	寶蓮洞	下	清州	忠州	1	州北	月乎峴	下	清州	1人					
槐山	1	郡南	茵峴里	下		清風	1	郡北	位谷里	下			天安	2人			
天安	1	郡南	介峴洞	下		槐山	1	郡南	吾只峴	下			沃川		1	郡西	金伊山
木川	1	縣北	烏山	中	木川	2	州南	馬谷洞	下	木川	2	縣北	板陰		下		
全義	2	縣西	芒峴里	中	全義	青安	1	縣東	犬項	下	全義	1人					
燕岐	1	縣南	松峴里	中		全義	1	縣西	亂谷	下			燕岐	1	縣北	要惠方	中
溫水	1	縣南	上谷洞	中	黃澗	穰山	1	縣東	天興里	下	黃澗	1人					
永同	1	縣西	加ヶ帖里	中		溫水	1	縣東	金谷洞	中			穰山	1	縣東	天興里	中
黃澗	1	縣東	臥鼎洞	中		永同	1	縣南	木村里	下			懷仁	1	縣西	屯安里	下
鎮川	1	縣西	大三洞	下	藍浦 (沙器)	報恩	1	縣東	外任里	下	藍浦 (沙器)	2人, 黃瓮 匠1人					
公州	2	州北	軍知村	中		鎮川	1	縣西	狗死里	下			鎮川	1	縣西	仇耳洞	下
藍浦	1	縣東	吹鍊毛老里	中		公州	2	州南	粉浦黃瓮匠	下			公州	2	州南	場巖里	中
定山	1	縣西	獐項里	中	定山	藍浦	1	縣東	炭釜浦	下	定山	1人					
鴻山	1	縣北	所音漢洞	中		庇仁	1	縣南	獐項里	下			鴻山	2	縣北	沙邑峴洞	中
連山	1	縣東	伐谷里	下		鴻山	2	縣北	板梯	中			鎮峇	1	縣西	城北里	下
扶餘	1	縣西	柵峴洞	下	禮山	洪州	1	州北	弘天里	下	禮山	2人					
瑞山	1	郡北	沙器洞	下		泰安	1	郡北	末訖川	中			瑞山	1	郡東	寶賢洞	下
禮山	1	縣東	草伊方	下		海美	2	縣東	寶賢洞	下			海美	2	縣東	獐項里	下
青陽	1	縣東	長谷洞	下	大興	德山	1	縣西	楓枝洞	下	大興	2人					
保寧	1	縣西	青澗里	下		禮山	1	縣北	冬火伊	下			禮山	1	縣東	板洞	下
大興	1	縣東	夫隱伊里	中		青陽	1	縣東	長尺洞	下			保寧	1	縣西	居邊里	下
21곳	23기				9곳	33곳	38기				4곳	19人					

* 沙器匠人은 그의 지역으로 陰城縣(1人), 文義縣(2人), 新昌縣(1人), 唐津縣(1人)이 있음.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1469년 이후 官窯의 운영이 본격화되었던 것에 돌 수 있다.⁵⁵⁾ 경기도 광주 6개면에 官窯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중앙의 사옹원 관리가 매년 광주에 화원을 데리고 내려가 御用之器의 제조를 감독하였다.⁵⁶⁾ 그리하여 국가가 소용으로 하는 그릇은 더이상 지방으로부터 土產貢物로서 조달받은 것이 아니라 官窯인 廣州分院으로부터 직접 확보하였으므로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324개 소의 磁器·陶器所의 수가 49개 지역으로 줄 수 밖에 없는 현상을 파악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가 관요를 운영하기 위해 『經國大典』 工典 司饗院에는 전국으로부터 380명의 沙器匠人을 법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충청도에서는 <表 11>에서 보듯이 15개 지역으로부터 23인의 沙器匠人과 黃瓮匠이 外工匠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아왔듯이 15세기의 요업은 전반과 후반의 성격이 크게 변하고 있다. 예컨대 전반에는 분청사기가 磁器 생산의 주류였으며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던 반면, 후반에는 官窯의 성립 영향으로 백자가 주류를 이루면서 경기도 廣州의 分院이 자기 생산의 중심이 되어 관주도의 백자 위주의 생산 체제를 보인다. 따라서 요업의 생산성격이 민간주도에서 관주도로 바뀌는데 민간주도일 때는 분청사기가 생산품의 중심이었고 관주도일 때는 백자 생산이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분청사기는 1469년을 고비로 폐요되었던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는 백자로 이행해 간 현상을 볼 수 있다.

V. 『世宗實錄』 地理志 忠清道 磁器所·陶器所의 陶磁史的 意義

충청도 자기소·도기소의 도자사적 의의는 자기소의 위치가 확인 혹은 추정되는 지역의 요지로부터 수습된 도편의 특징과 제작시기 추정을 시도함으로써 그 의의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자기소나 도기소에는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대에 해당되는 분청사기 요지가 17개 지역 25기가 발견되었으므로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또 도기소의 경우에는 충청도에서 16개 지역의 지명이 확인·추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어떠한 요지도 발견하지 못하여 부득이 자기소만 취급할 수 밖에 없다.

1. 『世宗實錄』 地理志 磁器所 지명과 일치되는 지역의 粉靑沙器 窯址

자기소와 일치되는 지역의 분청사기 요지는 모두 9개 지역이며 공주 학봉리 8기, 천안 사담리 2기, 영동 사부리 황보 4기가 확인되어 모두 20기의 분청사기 요지가 조사되었다<表 12>.

55) 姜敬淑, 앞글, 1988, pp. 655~663.

56) 『新增東國輿地勝覽』 京畿道 廣州牧 土產條.

<表 12> 『世宗實錄』地理志 忠清道 磁器所 지명과 일치되는 粉靑沙器 窯址(1994년)

번호	분청사기 요지 지역	제작시기 추정	도편 특징
1	鎭川 縣西 大三洞(下品) (충북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중수문)	1420~ 1430 (중기 제1기)	성긴 인화국화문, 상감연화문병, 대마디굽
2	慶尙道 金山郡 黃金所寶賢里(中品)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황보 -4기-)	(1) 1450년대 (3) 1410~1420 (4) 1430~1440 (중기 제1기)	(1) 「德寧」(1455~57), 「執」「賓」「用」명편, 정교한 집단연권문과 단독국화문, 상감 초화문, 대접구도 안정 (3) 흑백상감 花文, 중권문, 성긴 인화문, 육원문 (4) 「壽」「執」「用」명편, 상감과도문, 중권문, 단독국화문, 집단연권문
3	木川 縣北 烏山(中品) (충남 천안군 북면 사담리 -2기-)	(1) 1420년대 (2) 1420~1430 (중기 제1기)	(1) 성긴 1줄 인화문, 횡선문 대접 음각초화문, 노끈문 (2) 집단연권문, 촘촘한 인화문
4	天安 郡南豐歲縣介峴洞(下品) (충남 천안군 광덕면 지장리)	1420~1430	1줄 문양대 내 성긴 인화문, 근자문, 단독花文 전면 시문, 노끈문, 와선문, 갑발
5	全義 縣南 松峴里(中品)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송정리)	1417~1430 (전기 제2기~ 중기 제1기)	「司膳」「膳」명 접시, 상감·인화기법 다양, 연당초, 인동국화, 중권문, 성긴문양대
6	公州 州北 軍知村(中品) (충남 공주군 의당면 가산리)	1430~1440 (중기 제1기)	印花文, 집단연권문, 굽측면 근자문, 連珠文, 角形접시, 雨点文을 배경으로 한 鶴文
7	公州 州東 東鶴洞(中品) (충남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8기-)	1420~1540 (중기~후기)	상감, 인화, 음각, 귀얄, 철화(지방특색 뚜렷), 묘지(景泰元年, 成化23년, 弘治3년, 嘉靖15년)
8	靑陽 縣東 長谷洞(下品)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440~1450 (중기 제1기)	대국문, 인화노끈문, 귀얄, 음각(조화)기법
9	保寧 縣西 靑澗里(下品) (충남 보령군 청소면 성연리)	1420년대	녹색 유조, 상감 초화문
계	9개 지역 20基		

粉靑沙器 편년 기준(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p. 277~278)

전기	약 1360년경~약 1420년경 제 1기 약 1360년경~약 1390년경 제 2기 약 1390년경~약 1420년경	후기	약 1420년경~약 1470년경
중기	약 1420년경~약 1470년경 제 1기 약 1420년경~약 1450년경 제 2기 약 1450년경~약 1470년경 (1480 → 1470년으로 정정)	말기	약 1540년경~약 1600년경

〈表 12〉에서 보듯이 9개 지역 가운데 천안 개현동(현 지장리), 진천 대삼동(현 대문리), 청양 장곡동(현 장곡리), 보령 청연리(현 성연리)의 3곳은 하품 생산지이고 나머지 5곳은 모두 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도편 분석을 통해 각 요지의 도자사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1) 忠北 鎮川郡 栢谷面 大門里 중수문 窯址(鎮川 縣西 大三洞 下品)

① 위치와 현황(위치도 1, 사진 1)

백곡면 소재지에서 34번 국도를 따라 2.3km쯤 천안방면으로 가면 송탄마을에 이른다. 왼쪽으로 대문교를 지나 1.7km정도를 가면 중수문마을에 이른다. 가마터는 하수문과 중수문마을 중간쯤의 도로에서 왼쪽으로 약 30m쯤의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에 민묘 4기가 있다. 가마터는 N-50°-W의 구릉 말단부로 남쪽 부분은 길을 내면서 잘려져 길이 15m, 두께 1.5m의 단면이 드러났고 도편, 도지미, 가마벽편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다.

② 도편의 특징

ㄱ. 대접

대접 1(그림 3-1, 사진 2-1)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약간 둥근 곡선으로 이어져 구연부에 이르고 있다. 굽은 대마디굽이며 굽 안을 다진 흔적이 있는 초벌구이편이다. 내저면은 무문의 공간으로 남겨 놓고 기벽에 3단의 문양대를 구획한 후 연판문과 단독국화문, 초문을 올라가며 시문하고 있다. 외면에는 만자문과 평행사선문의 2단 구성으로 시문되었다.

대접 2(그림 3-2, 사진 2-2)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기벽은 둥근 곡선으로 이어지고 구연부는 외반시키고 있다. 대마디굽에 짙은 회청의 유조를 보이며 문양은 내저면 중앙에 국화문을 시문하고 기벽에 2단의 단독국화문대와 구연부에 초문을 시문하고 있다. 외면에는 단독국화문·평행사선문·근자문을 올라가며 시문하였다.

대접 3(그림 3-3, 사진 3-1) 외반된 구연부편으로 5단의 문양구성을 보이고 있다. 내저면에는 단독국화문대와 연판문이, 기벽에는 단독국화문대와 2단의 초문을 시문하고 있고 외면에는 단독국화문을 시문하였다.

대접 4(사진 3-2) 내저곡면의 대접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둥글게 올라가 구연부는 외반되고 대마디굽에 모래를 받쳐 소성하였다. 내저 중앙에는 대국화문과 연판문을 같이 시문하고 있으며 기벽에 2단의 단독국화문대와 연주문·초문을 올라가며 차례로 시문하고 외면에는 평행사선문과 초문을 시문하였다.

대접 5(사진 3-3) 내저곡면의 대접굽편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고 대마디굽에 고운 모래를 받쳐 단독 소성하였다. 내면에는 2단의 집단연권문대를 두고 그 위로 초문을 시문하였고 외면에는 국화문과 상하대칭의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ㄴ. 접시

접시 1(그림 3-4, 사진 3-4)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둥글게 이어지며 구연부는 내

만시키고 있다. 굽은 대마디굽이고 접지면과 굽 안을 시유하지 않았다. 내저면에는 대국화문과 단독국화문, 2단에 단독국화문, 3단에는 초문을 각각 시문하고 외면에는 평행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접시 2(그림 3-5, 사진 3-5) 내저곡면의 접시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둥근 곡선으로 이어진다. 대마디굽에 굽 안을 다진 흔적이 있고 두껍게 시유되어 제대로 유약이 녹지 않았으며 내면 일부에 선문이 관찰된다.

접시 3(그림 3-6, 사진 3-6) 내저곡면의 접시로 내저 중앙이 불룩 나왔고, 기벽은 직각에 가깝게 서고 있으며 구연부는 내만시키고 있다. 대마디굽에 접지면과 굽 안을 시유하지 않고 소성하였다.

㉔. 병

병편은 어깨부분이 심한 S자곡선을 이루며 목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아래에 각각 두줄과 세줄의 선문을 돌렸고 다시 선문을 연결하는 수직선문, 그리고 배부분에는 연화문을 시문하고 있다(그림 3-7, 사진 3-7).

③ 제작시기

제작시기는 대접 내면에 성긴 인화기법의 국화문이라든지 외면에 평행사선문, 그리고 병편에 연꽃의 상감기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략 세종 당시인 1420~1430년대에 활동했던 가마로 간주된다.

2) 忠北 永同郡 秋風嶺面 沙夫里 黃寶(慶尙道 金山郡 黃金所 寶賢里 中品)

① 위치 및 현황(위치도 2)

영동에서 김천으로 가는 4번 국도를 따라가다 추풍령면 소재지 약 1.5km 못미쳐 황금교를 건너서 바로 왼편의 길로 접어든다. 황금교에서 500m를 더 가 2201경비대 앞의 갈림길에서 왼편으로 가면 사부리 황보부락으로 오른편으로 가면 금보부락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갈림길에서 1km정도 들어가면 황보부락에 이르게 된다. 1호 가마터는 이 부락의 가운데로 흐르는 개울의 다리 옆의 민가 옆에 자리하고 있다(사진 4). 경작되고 있는 밭과 민가, 그리고 민묘 주위로 도편과 가마벽편, 원통형의 도지미 등이 널려 있다. 밭의 경작과 민묘의 조성으로 가마는 크게 파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호 가마터는 1호 가마터 앞의 다리를 건너 오른편의 길로 접어들어 마을 끝의 민가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는 가마벽편 등이 산재하고 있으나 도편의 수습이 미흡하여 현상파악이 어렵다(사진 8).

3호 가마터는 여기에서 300m 정도 들어가면 2201부대의 사격장이 조성되어 있는 아래쪽의 과수원에 자리하고 있다(사진 8). 가마는 과수원 경작 및 사격장 시설로 인하여 현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주위에는 도편과 도지미, 가마벽편 등이 널려 있다.

4호 가마터는 3호 가마터에서 농로를 따라 500m정도 가면 개울을 건너 양계곡으로 갈라지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사진 11). 가마터는 농로로 인하여 일부는 파괴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숲속에 위

치하여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②도편의 특징

〈1호〉

ㄱ. 대접

대접 1(사진 5-1) 「德寧」銘 도편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대마디굽에 밝은 회청의 유조를 띄고 외면의 집단연권문 사이에 덕녕을 백상감하고 있다.

대접 2(사진 5-2)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내면에는 중앙의 대국화문을 중심으로 집단연권문을 그리고 그 주위로 나비문양을 시문하고 있다. 대마디굽에 밝은 회청의 유조를 보인다.

대접 3(그림 4-1, 사진 5-3) 내저곡면의 대접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둥글게 서고 있다. 구연부는 얇게 마무리하여 살짝 외반시키고 대마디굽으로 깎았으며 흑갈의 유조를 보이고 있다. 내면에는 중앙의 대국화문을 중심으로 집단연권문과 단독국화문과, 과상문, 초문의 4단 구성을 보이고 있다. 외면에는 단독국화문의 2단 구성과 구연부에는 긴자문을 시문하고 있다.

대접 4(그림 4-2, 사진 6-1) 내저곡면의 대접굽편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둥글게 이어지고 있다. 대마디굽에 밝은 회청의 유조를 보인다. 내면에는 중앙의 대국화문을 중심으로 단독국화문을 그리고 연판문과 집단연권문을 차례로 시문하고 있다. 외면에는 집단연권문을 시문하였다.

대접 5(사진 6-2) 내저곡면의 대접굽편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둥글게 이어지고 있다. 대마디굽에 접지면은 내경하게 깎았으며 밝은 회청의 유조를 보이고 있다. 내면에는 나비문과 연판문, 집단연권문을 차례로 시문하고 외면에는 원주문과 집단연권문을 시문하였다.

대접 6(그림 4-3, 사진 6-3) 내저곡면의 굽편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대마디굽에 접지면은 내경하게 깎았다. 내면에는 집단연권문과 연주점문을 시문하였고 외면에는 연주문을 시문하였다.

대접 7(사진 6-4) 각종 명문도편으로 집단연권문안에 명문대를 구획하고 그 안에 「執」「賓」「用」자를 백상감하였다.

ㄴ. 접시

접시 1(사진 7-1) 내저곡면의 접시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둥글게 이어지고 있다. 대마디굽에 접지면은 내경하게 깎고 있다. 선문으로 문양대를 구획한 후 내저면에 대국화문과 2단의 단독국화문대를 두고 있다. 외면에는 불규칙적으로 선문을 시문하고 있다.

접시 2(그림 4-4, 사진 7-2) 내저곡면의 접시들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짧게 올라가 구연부를 외반시키고 있다. 대마디굽으로 접지면이 내경하고 있으며 밝은 회청의 유조를 보이고 있다. 내저면은 3단의 문양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외면은 집단연권문과 만자문의 2단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접시 3(그림 4-5, 사진 7-3) 내저곡면의 접시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짧게 내만

시키고 있다. 대마디굽에 접지면이 내경하고 있으며 회청의 유조를 보인다. 내면과 외면 모두 집단 연권문이 중심문양을 이루고 있다.

ㄷ. 병

병편으로 회청의 유조를 보이며 모란문과 용문을 상감 시문하고 있다(사진 7-4).

ㄹ. 갑발, 갑발안 받침

갑발 및 안받침편으로 기벽 및 내저에 구멍을 뚫어 소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사진 7-5).

〈3호〉

ㄱ. 대접

대접 1(그림 5-1, 사진 9-1) 내저사선의 대접굽편으로 굽의 직경과 비슷한 원심을 파고 기벽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다. 대마디굽에 굽안을 편평하게 깎고 있다. 회청의 유조를 보이며 내면에 선문을 시문하고 있다.

대접 2(그림 5-2, 사진 9-2) 내저곡면의 대접굽편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둥글게 올라가고 있다. 대마디굽에 회청의 유조를 보이며 내면에는 선문을 시문하고 있다.

대접 3(그림 5-3, 사진 9-3) 내저곡면의 대접굽편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기벽이 둥글게 이어지고 있다. 대마디굽에 굽안을 편평하게 깎고 내면에는 모란문을 시문하고 있다.

대접 4(사진 9-4) 구연부편으로 내면에 2단의 포도송이와 같은 6원문을 시문하고 있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회청의 유조를 보이고 있다.

ㄴ. 접시

접시 1(그림 5-5, 사진 10-1) 내저 사선의 접시로 내저면은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기벽은 원심을 경계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시키고 있다. 회청의 유조를 보이며 내면에는 중앙의 대국화문을 중심으로 파상문과 단독국화문을 시문하였고, 외면에는 구연부 아래 선문만을 시문하고 있다.

접시 2(그림 5-6, 사진 10-2) 내저사선의 접시로 내저면은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원심을 경계로 기벽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다. 내저 중앙에 「大」자를 흑상감하였고 내저면에는 파상문과 기벽에 단독국화문을 시문하고 있다.

접시 3(그림 5-7, 사진 10-3) 내저사선의 접시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기벽은 사선으로 올라가며 구연부를 곧게 마무리하고 있다. 대마디굽에 열린 회청의 유조를 보이고 내저면에는 선문을 시문하고 있다.

ㄷ. 합

합편으로 내저 중앙으로부터 둥글게 기벽이 올라가고 있다. 대마디굽에 외면에는 연관문과 단독국화문, 집단연권문을 차례로 시문하고 있다(그림 5-8, 사진 10-4).

〈4호〉

ㄱ. 대접

대접 1(그림 5-9, 사진 12-1) 내저곡면의 대접으로 내저 중앙으로부터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구연까지 올라가고 있다. 대마디굽에 접지면은 내경하고 있으며 회청의 유조를 보이고 있다. 내면에는 선문을 시문하였다.

대접 2(사진 12-2) 내저곡면의 굽편으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대마디굽에 접지면은 내경하고 있다. 내저면에는 중앙의 대국화문을 중심으로 단독국화문과 나비문양을 시문하고 2단에 연판문을 시문하였다. 외면에는 연판문과 단독국화문을 시문하였다.

대접 3(그림 5-11, 사진 13-1) 내저사선의 대접굽편으로 내저면은 편평하고 원심을 경계로 기벽이 둥글게 올라가고 있다. 내저면에는 대국화문을 몇 개 시문하고 주변에 반원문이 선문과 혼재되어 시문되고 있다.

대접 4(사진 13-2) 각종 명문도편으로 구연부에는 간략한 초문과 만자문을 시문하고 집단연권문 안에 명문시문대를 구획한 후 「壽」「執」「用」자를 백상감하고 있다.

ㄴ. 접시

접시 2(그림 5-10, 사진 13-3) 내저곡면의 접시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기벽은 짧게 세우고 있다. 대마디굽에 접지면이 내경하고 내외면에 집단연권문을 시문하고 있다.

접시 3(그림 5-12, 사진 13-4) 내저사선의 접시로 내저면은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기벽은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시키고 있다. 대마디굽에 접지면은 내경하고 유조는 회청이다.

접시 4(그림 5-13, 사진 13-5) 내저곡면의 접시로 내저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기벽은 둥근 선을 이루며 올라가고 구연부는 내만시키고 있다. 대마디굽에 접지면은 내경하고 옅은 회청의 유조를 보인다.

ㄷ. 갑발

갑발편으로 내면은 둥근 곡선을 이루며 굽은 접지면이 넓게 깎아 안정감을 주고 있다(그림 5-14, 사진 13-6).

③ 제작시기

사부리 황보의 4기의 분청사기 요지로부터 수집된 도편을 통해 보면 대략 1420~1460년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호 요지에서는 「德寧」銘 대접편이 수집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德寧」은 德寧府의 약자이며 단종이 3년간 상왕이었을 때의 상왕부가 곧 덕녕부이다. 따라서 「德寧」명편이 수집된 사부리 황보 1호는 1455~57년 사이에 덕녕이름을 새긴 그릇을 만들어 상납했으므로 1455~57년에 틀림없이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던 가마가 1호 요지이다. 또한 공반되고 있는 도편에는 초기의 특징보다는 중기 제1기(약 1420~1450)에 해당되는 특징의 도편이 주로 수집된다.

예컨대 대접안 구도가 정연하고 깔끔히 인화시문된 집단연권문의 상태, 태토비짐반침, 조선식의 상감기법 초화문의 존재 등은 1450년대의 가마였음을 말해준다.

3호 요지에서는 1호출토 집단연권문의 인화기법과 같은 종류보다는 중권문(여러 줄의 횡선문)이라든지 육원문 혹은 국화문의 성긴 인화기법, 흑상감의 잔재, 접시나 내면 중앙에 흑백상감문 등의 여러 현상들은 1410~1420년대의 분위기를 보인다.

4호 요지는 3호 요지 다음 시기 가마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중권문대접이 함께 수집되기도 하지만 만 흐트러져 가는 상감문과 함께 집단연권문의 존재, 날개의 국화문 인화기법, 「壽」「執」「仁」 등의 명문도편 등은 1420년 보다는 1430~40년대의 특징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부리 황보마을에서는 1420~1460년 사이 가마를 옮기면서 오랜기간 제작활동을 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외에도 조선 전기의 백자 가마터가 2기 조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체로 1470년 이후에는 백자 생산으로 이행해 갔음을 말해주고 있다.

3) 忠南 天安郡 北面 沙潭里(木川 縣北 烏山 中品)

① 위치와 현황(위치도 3)

천안에서 병천으로 가는 21번 국도를 따라가다 독립기념관을 지난 다음 연춘교를 건너기 전에 왼편의 길로 접어들어 8km정도를 가면 사담리에 이르게 된다. 사고시부락에서 하가교를 지나 500m 정도를 가면 골사구시부락에 이르게 된다. 1호 가마터는 이 부락 못미처 오른편의 구릉 끝자락 발 가운데에 작은 둔덕과 민묘가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도편, 가마벽편, 요도구들이 산재하고 있다(사진 14). 2호 가마터는 마을을 지나서 바로 오른편의 민묘가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사진 14).

② 도편의 특징

〈사담리 1호〉

사담리 1호에서는 대접, 접시, 항아리, 병, 장군, 합 등 비교적 다양하게 도편이 수집된다.

ㄱ. 대접

대접의 내면문양으로는 정교한 집단연권문, 날개의 국화문, 노끈문, 듬성듬성한 1줄의 인화문, 그리고 횡선문 등 1420년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굽은 태토비집받침 혹은 굽은 모래받침이다.

대접 1(사진 15-1)은 외반된 구연부편으로 소편이지만 입자가 고운 집단연권문이고 대접 2(그림 6-1, 사진 15-2)도 집단연권문으로서 굽다리 측면에는 소국문이 시문되는 등 비교적 고급의 양상을 보인다. 대접 3(사진 15-3)은 노끈문이 대접 내면에 가득 시문되어 추상적인 분위기를 심분 발휘하고 있다. 대접 4(사진 15-4)는 소편들이지만 외면에는 1410~1420년대에 유행하는 평행사선문이 시문되며, 대접 5(사진 16-1)는 노끈문의 구연부편들이며 대접 6(사진 16-2)은 내저면에 대국문을 듬성듬성 인화하고 있어 특이하다. 대접 7(사진 16-3)과 대접 8(사진 16-4)은 내측면에만 육각판문과 소국문이 1줄 인화되어 15세기 전반기의 분위기를 보인다. 대접 9(그림 6-2·3, 사진 17-1)는 여러 줄의 횡선문 대접으로 대접 8과 더불어 15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보인다.

ㄴ. 접시

접시는 문양상으로는 세 종류가 있는데 접시 1(그림 6-4·5, 사진 17-2)은 등성등성한 1줄의 인화문, 접시 2(그림 6-6·7, 사진 17-3)는 노끈문, 접시 3(사진 17-4)은 와선문 등의 종류를 보인다.

ㄷ. 항아리

구연부와 저부편이 수집되는데 특히 구연부의 시원하게 외반된 모습이 15세기 전반 항아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사진 18-1).

ㄹ. 병

모두 2개 체분의 매병종류가 수집되었는데 특징이 뚜렷하다. 병 1(사진 18-2)은 연꽃문양이 선상감되었으며 병2(사진 18-3 좌)는 상감된 연꽃문 배경에는 노끈문이 촘촘히 인화되어 있다. 이밖에 소병편이 있다(사진 18-3 우).

ㄴ. 장군 : 소편이나 장군편이 수집된다(사진 18-4).

ㄷ. 합뚜껑 : 소편의 합뚜껑편이다(사진 18-5). 대체로 합은 정교하게 제작되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제기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담리 2호〉

사담리 2호에서는 대접, 접시, 매병, 잔, 도침 등이 수집되며 특히 회백자편이 수집되어 백자생산의 의지를 보였던 가마가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ㄱ. 대접

대접의 문양종류에는 집단연권문, 노끈문, 소국인화문, 1줄 인화문, 무문 등이 있다.

대접 1(사진 19-1)의 내면에는 집단연권문과 노끈문이 시문되고 외면은 평행사선문의 양상을 보이며 대접 2(사진 19-2)는 단독 소국문 대접으로 특히 굽다리 측면에 시문된 연주문은 사담리 2호 가마가 상당히 좋은 질의 그릇을 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접 3(사진 19-3)은 노끈문대접의 구연부 소편들이다. 대접 4(그림 7-1, 사진 19-4)는 성긴 1줄의 인화문이 내면에 시문된 것과 황선문 대접이다. 대접 5(사진 20-1)는 회청색의 무문대접이며 대접 6(사진 20-2)은 회백자 대접편으로 주목된다.

ㄴ. 접시

접시 1(그림 7-2, 사진 20-3)은 단독 소국문이 시문되었고 접시 2(그림 7-3, 사진 20-4)는 화형전 접시편으로 내저면에는 노끈문이, 구연부에는 초문이 시문되었다. 모두 태토비집받침법을 사용하여 포개어 소성하였다.

ㄷ. 병

매병은 저부 2편인데 병 1(사진 20-5)은 긴 연관문 안에 사슬문이 시문되고 병 2(그림 7-4, 사진 20-6)는 음각기법으로 초화문이 새겨 있는 초벌구이편이다.

ㄹ. 잔

잔편은 모양이 길쭉한 잔으로 생각되는 소편으로 작은 꽃이 촘촘히 하나씩 인화되고 있어 역시 사담리 2호요는 고급품 제작을 시사한다(사진 20-7).

ㅁ. 도지미

높고 허리가 약간 들어간 원통형의 도지미인데 역시 15세기 가마에서 유행하는 종류이다(사진 20-8).

③ 제작시기

〈사담리 1호요〉는 항아리 구연부편, 병에 시문된 문양내용, 대접의 성긴 1줄의 인화문대접, 황선문대접 등 각종 도편의 특징으로 볼 때 대체로 1420년대에 활동한 가마로 간주되며 〈사담리 2호요〉는 수습도편의 여러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1호 바로 다음 즉 1420~1430년경에 운영된 가마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사담리 1호, 2호는 세종 당시 목천 오산의 중품 자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요지임을 알 수 있다.

4) 忠南 天安郡 廣德面 芝長里(天安 郡南 豐歲縣 介峴洞 下品)

① 위치와 현황(위치도 4)

천안에서 공주로 가는 23번 국도를 따라 가다 광덕면 소재지에서 623번 지방도로로 접어들어 약 5km정도 가면 광덕면 보산원리에 이른다. 풍세천의 보산원교를 건너지 않고 원편의 비포장길로 약 3.5km를 가면 지장리 중방동에 다다르게 된다. 중방동부락에서 원편으로 500m를 가면 폐우사가 있는 곳의 원편 커다란 밭에 자리하고 있다. 가마터는 경작으로 인해 파괴가 심하여 원상을 파악하기 힘들나 주위에서 도편과 가마벽편, 도지미 등이 수습된다.

② 도편의 특징

지장리는 天安 豐歲縣에 있었던 介峴洞으로서 世宗 때 기록에는 下品을 제작하였다고 하나 갑발편이 수집되어 중요한 상품의 그릇도 생산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수집 도편은 대접, 접시, 대발, 병, 갑발 등이다.

ㄱ. 대접

대접 1(그림 8-1, 사진 21-1)은 날개의 국화문양을 한 문양대 안에 하나씩 성기게 찍은 대접이고 대접 2(사진 21-2)는 구연부에 만자문을 상감하고 내면에는 단독국화문을 전면에 시문하였으며 외면은 국화문 혹은 노끈문을 인화하고 있다.

ㄴ. 접시

접시 1(그림 8-2, 사진 21-3)은 인화문접시이고 태토비집받침을 사용하고 있다.

ㄷ. 대발 : 작은 편으로 작은 국화문이 하나씩 인화되었다(그림 8-3, 사진 21-4).

ㄹ. 병 : 연꽃문이 시문된 소편이다(사진 21-5).

ㅁ. 갑발 : 갑발은 전형적인 조선초기의 형태이다(그림 8-4, 사진 20-6).

③ 제작시기

지장리 요지는 세종 당시 하품의 평가를 받은 개현동 자기소이고 또 성긴 인화기법, 만자문 등의 도편의 성격을 종합해 볼 때 제작시기는 대체로 1420~1430년경으로 추정된다.

5) 忠南 燕岐郡 全東面 松亭里(全義 縣西 松亭里 中品)⁵⁷⁾

① 위치와 현황(위치도 5)

송정리와 송성리를 경계로 높은 고개가 있고 고개에서 송정리 쪽으로 500m쯤 내려오면 가마터가 있는데, 서북은 가파른 산으로 둘러 있고 남쪽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표고 약 150m 에 위치한다(사진 22). 1990년 12월에 고려대학교에서 발굴한 바 있으며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② 도편의 특징

송정리 요지는 퇴적층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계통적인 도편의 수습이 어려웠으며 대접, 접시류가 주로 수습되었다.

ㄱ. 대접

대접의 기형은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즉 내저 원심이 뚜렷하게 파인 대접, 내만형 대접, 외반형 대접이다(그림표 1). 또 대접의 굽형태는 낮은 죽절굽 혹은 ㄷ자의 변형된 형태를 보이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 대체로 5종류로 구분된다. 포개구이할 때는 태도비집받침을 사용하였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대접문양으로써 상감기법으로는 연당초문, 초화문, 중권문(여러 줄의 횡선문), 연국화문, 인동국화문이 있고, 인화기법으로는 육각판문, 국화문, 육원문이 있다. 이들 문양의 유형분류표를 만들어 종합해 본다(그림표 2).

ㄴ. 접시

접시는 9종류가 있으며(그림표 1) 접시에는 특히 “司膳” “膳”이 흑상감된 관사명 편이 있어 중앙상납요지임을 말해준다(사진 23-1·2). 관사명 외에 일종의 묘지라고 보여지는 “官員海貝珠司永永”과 같은 글씨가 새겨진 접시도 있어 주목된다.

③ 제작시기

송정리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司膳」「膳」이 있는 접시가 수습되므로 그릇에 상납관청이름을 새기게 한 1417년 이후로 상한을 일단 생각할 수 있으며 하한년은 문양 양상과 『世宗實錄』地理志의 “全義 縣南松峴里 中品”의 기록 등을 통해 볼 때 1430년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6) 忠南 公州郡 儀堂面 佳山里(公州 州北 軍知村 中品)⁵⁸⁾

① 위치와 현황(위치도 6)

가산리는 공주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가다 송학리의 의랑교에서 왼편으로 2.5km정도

57) 姜敬淑, 「앞글」, 1993 ; 李愛玲, 「앞글」, 1993, pp. 20~35.

58) 姜敬淑, 앞책, 1986, pp. 164~174 ; 李愛玲, 「앞글」, 1993, pp. 47~62.

를 들어가면 의당면 가산리에 이르게 된다. 가산리는 중산, 군졸, 가락의 세 개 부락으로 이루어졌다. 『世宗實錄』地理志의 군지촌이 군졸부락으로 추정되며 현재 가산리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요지는 군졸부락 바로 인접해 있는 중산부락에 1기가 있는데 현재의 상태는 길과 밭을 개간하느라 도편은 요지로부터 떨어진 개울가에 버려져 모두 산일되어 파괴되었다.

② 도편의 특징

ㄱ. 대접 : 대접에서는 양감있는 외반형과 내만형이 있으며 문양으로는 상감과 인화의 두 기법이 보인다(사진 24-1). 특히 굽 외측면에 만자문과 연주문이 시문되어 상품 그릇의 제작을 시사하고 있다.

ㄴ. 접시 : 내저가 거의 평면을 이룬 대형 접시에 주목해야 하며 특히 집단연권문접시의 굽다리 외면에 만자문이 시문되고 있어 대접과 더불어 상품 그릇임을 알 수 있으며, 각접시가 각이 지지 않고 선만을 시문하여 격인 효과를 주는 기형이 있다(사진 24-2).

ㄷ. 합 : 합은 합발과 합개 모두 촘촘히 인화시문된 것이 주류로 다른 종류에 비해 정성껏 제작한 모습이 뚜렷하며 제기 혹은 기타 특수용기였음을 보여준다(사진 24-3).

ㄹ. 향아리

향아리의 문양이 다양하며 가산리 분청사기의 특징을 대변해준다. 즉 雨点文을 배경으로 한 鶴文(사진 24-4), 흑백선상감의 蓮花文, 面象嵌의 牡丹文, 集團連圈文 등이다.

ㅁ. 병

병종류에는 상감과 인화의 두 기법이 있고 면상감의 모란문 병편이 주목된다(사진 24-5).

ㅂ. 장군, 대발, 향로, 제기

장군과 대발편이 수집되며 향로(사진 24-6)는 기형과 문양에서 조형성의 우수함이 엿보이며 특히 菊花와 蝶文의 흑백상감문이 주목된다. 제기는 귀얄과 음각기법이 한 그릇에 사용되고 있다.

③ 제작시기

이상의 여러 도편 가운데 제작시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도편은 없으나 문양, 기형, 유태 등을 다른 요지 출토품과 비교함으로써 추정이 가능하다. 대접 경우는 1365년에 죽은 노국공주의 능호가 새겨있는 「청자상감연당초문정릉명대접」에 연원을 둔 연당초문의 내면문양과 외면의 상감당초의 변형문 내지 인화문과 같은 문양 내용으로 보아 대개 15세기 전기에 해당하는 요임을 추측케 한다. 또 향아리편에는 우점문을 배경으로 한 학문과 흑백 이중선 안에 국화문을 시문한 구도와 문양형태는 고려청자의 여운을 보이는 문양 내용이다. 따라서 막연하나마 분청사기의 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15세기 전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수리의 1420~1430년으로 편년한 분청사기와⁵⁹⁾ 비교할 때, 가산리의 분청사기는 문양의 주종이 상감기법에서 보다 인화문과 집단연권문에 있다. 따라서 1430~1440년경으로 가산리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59) 姜敬淑, 앞책, 1986, pp. 73~90.

7) 忠南 公州郡 反浦面 鶴峰里(公州 州東 東鶴洞 中品)⁶⁰⁾

학봉리 분청사기 요지는 여러기가 존재하고 있으나 필자가 조사한 8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① 위치와 현황(위치도 7)

1호요-1927년 발굴 당시 학봉리 제1도요지라 한 곳으로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모두 3기의 요지가 완전한 형태로 나란히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이 일대가 여관마을로 바뀌어 금수산장이라는 여관의 뒤뜰이 되어 그 잔흔만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

2호요-동학사를 향해 올라가다 우금고개가 있고 그 우측밭에서 소편이 수집되나 모두 파괴되었다.

3호요-보고서 제3도요지에 해당되며 동학사를 향해서 개울 좌측 구릉이고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4호요-3호요 바로 옆에 나란히 있는 가마로 생각되나 불에 탄 요벽편, 도편이 섞인 돌무더기가 쌓여 있다.

5호요-4호 옆에 위치하며 1927년 발굴 당시 제5도요지에 해당되며 발굴 당시에는 완전히 남아 있어 구조 파악이 가능했던 곳이다. 1992~9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발굴한 가마이며 재발굴 결과 1927년 일인들의 발굴이 잘못되었던 점이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5호요 옆에서 새로운 가마 1기를 더 확인 발굴한 성과까지 있었다.

6호요-5호 옆에 위치하며 현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에서는 소편만이 수집된다.

7호요-우금고개 우측으로 약 500m정도 마을을 향해 들어가면 큰 한옥이 있고 그 뒤에서 도지미, 벽편, 소편의 분청사기 등이 수집되고 있다.

8호요-현재 온천개발지역 뒤편으로 온천리 건너편 산비탈에 위치하며 도편의 퇴적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② 도편의 특징(사진 25-1, 2, 3)

1호-1호에서는 분청귀얄철화당초문 항아리와 병이 수습되며 대접급 주위에는 귀얄로 백토를 한 줄 돌린 기법이 특징을 이룬다. 또한 흑유편이 주목된다.

2호-귀얄문과 집단연권문이 특징으로서 백토가 충분히 분장된다.

3호-3호는 당초문, 삼엽문이 시문된 철화문과 말기현상을 보이는 집단연권문 그릇이 특징을 이룬다.

4호-분청귀얄철화당초문편, 귀얄문편, 녹색의 무문편, 회백자편 등이 수습된다.

5호-15세기 초에 해당하는 상감분청, 성긴 인화분청이 조금 수집되며 주생산품은 철화분청, 무문분청, 그리고 백자들이다. 주로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하였으며 드물게 태토비집받침을 사용하였

60) 姜敬淑, 앞책, 1986, pp. 182~187.

다. 기형은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고 향아리, 병, 장군, 제기, 마상배, 벼루, 묘지석 등의 도편이 수집된다. 명문의 예로는 「內瞻寺」「禮賓」「內」「大」「十」 등이 수집되며 철사안료로 쓰여져 있다. 그 외에 갑발편과 내화탄 강돌을 이용한 도지미가 수집된다.

6호-귀얄문편, 철화문편, 인화기법의 도편, 흑유편 등이 수집된다.

7호-귀얄문편, 철화문편 등이 수집된다.

8호-성긴 인화기법, 간략한 초화문, 대접내저의 어문, 무문의 녹청자 등 1~7호에 비해 이른 시기로 추정된다.

③ 제작시기

8기의 학봉리 요지는 퇴적층의 완전 교란으로 인해 퇴적층위별 제작시기 규명은 어려우나 대체로 1420~1540년경까지 약 120여 년간 지속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작시기의 상한연대는 1420년대로 추정되는데 이를테면 성긴 인화분청, 태도비집받침수법, 갑발의 사용 예 등으로 보아 1420년대에는 제작활동을 분명히 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양상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世宗實錄』地理志公州 州東 東鶴洞 中品이라는 기록으로써 이 기록은 1424~1432년 사이에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적어도 1420년대에는 동학동(지금의 학봉리)에서 그릇을 제작했다고 생각한다. 8기 요지 가운데 1420년대에 해당하는 가마가 어떤 가마인지는 퇴적층 파괴로 규명하기 어려우나 8호 가마 경우에는 1410~1420년에 비정되는 가마이다. 1~7호까지는 귀얄과 철화분청의 출토 도편으로 미루어 보아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경까지 분명히 활동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성화23년명철화묘지편(1487), 홍치3년명철화묘지편(1490), 가정15년명철화묘지편(1536)이 있다. 그러므로 학봉리 계곡일대의 요업시기는 15세기 전반경~16세기 전반경까지 대략 120여 년간이나 계속되었으리라 고 판단된다.

8) 忠南 靑陽郡 大峙面 長谷里(靑陽 縣東 長谷洞 下品)

① 위치와 현황(위치도 8)

청양에서 공주로 가는 36번 국도를 따라가다 대치면 사무소를 지난 후 주정교를 건너 오른편길로 가면 장곡사로 접어들게 된다. 고개를 넘어서면 왼편에 장곡리 부락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에서 장곡국민학교를 따라 돌아 장곡사 쪽으로 약 200m 뒤쪽의 밭둑에 감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는 곳에 작은 계곡이 있다. 가마터는 구릉 끝 작은 밭에 자리하고 있는데(사진 26) 주위에 도편, 가마벽편, 도지미 등이 산재하며 경작과정에서 버린 도편이 밭둑에서 수습된다.

② 도편의 특징

ㄱ. 대접

장곡리에서는 대접류가 주로 수집된다. 대접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접 1(그림 9-1, 사진 27-1)은 대접 내면 중앙에 소국문을 6~7개 찍고 나머지 주변은 가는 와선문을 둘렀다. 외면은 무문이거나 혹은 귀얄분장을 했으나 귀얄자국이 넓게 남아 있다. 모래받침 흑

은 모래 흠비짐받침을 6곳에 놓고 포개구이하였다.

대접 2(사진 27-2)는 작은 과편이지만 장곡리 수습 대접편 중에서는 비교적 정교한 집단연권문이 시문되고 외면에는 깔끔한 우점문이 인화되었다.

대접 3(사진 28-1)은 내저면에는 가는 꼬불꼬불한 노끈과 같은 무늬를 시문했으며 외면은 무문이거나 혹은 우점문위를 귀얄로 백토분장하였다. 문양이 얇아 백토감입이 지지분하다.

대접 4(사진 28-2)는 내저면을 무문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와선문을 시문한 다음 그위로 우점문을 시문하고 있다.

대접 5(그림 9-2·3, 사진 28-3)는 귀얄로 백토분장 한 후 치졸한 앞모양 또는 낙서하듯한 선문을 얇게 음각하고 있다. 외면은 귀얄로 슬쩍 백토분장하였으며 모래흠비짐받침으로 포개구이하였다.

대접 6(그림 9-4, 사진 28-4)은 대접 내·외면을 귀얄로 분장하고 있는데 내면에는 몇 줄의 가는 횡선문이 있을 뿐이다.

대접 7(그림 9-5, 사진 29-1)은 내면에 횡선마저 없어지고 귀얄로만 백토분장하고 있다. 굵은 모래흠비짐을 6~8개 받쳐 포개구이하였다.

대접 8(그림 9-6, 사진 29-2)은 귀얄로 쓱쓱 백토분장하고 내저면에 굵은 횡선 1줄을 음각하고 있다. 모래흠비짐을 받치고 포개구이하였다.

대접 9(사진 29-3) 구연부편들로 내저면에는 음각선문과 「十」자문 등을 시문하고 있다. 외면에는 귀얄로 백토분장한 후 기호를 음각하고 있다.

ㄴ. 접시(그림 9-7, 사진 29-4)

내면에 얇은 와선과 우점이 있으나 귀얄로 백토분장하여 무늬는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모래흠비짐을 5곳에 받치고 포개구이 하고 있다.

③ 제작시기

장곡리 분청사기는 전형적인 전라도 지방의 귀얄과 음각기법의 분청사기로써 간략한 초엽문, 치졸한 선문이 음각된 소위 조화기법의 분청사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특히 노끈 모양의 인화기법은 대체로 장곡리 가마가 지닌 특징이다.

이와 같은 도자양식으로 보아 제작시기는 1440~1450년 전후시기로 간주되므로 『世宗實錄』地理志에 長谷洞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 수집된 도편으로 보아서는 세종 당시의 가마는 아닌듯 생각된다. 그러나 (대접 2)와 같은 예로 보아 상당히 고급품을 제작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1420년 대에도 제작 활동했을 가능성은 엿보인다.

9) 忠南 保寧郡 靑所面 聖淵里(保寧縣西 靑淵里 下品)

① 위치와 현황(위치도 9)

대천에서 광천읍으로 가는 21번 국도를 따라가다 청소면 소재지에서 오른편의 지방도로로 접어들어 3.5km를 가면 성연리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서 성연저수지를 지나 용못교를 건너 청라면으로

넘어가면 고개길을 따라 1km정도 가면 왼편의 성동부락에 이르게 된다. 성동부락의 중간길로 들어가 오른편의 대나무숲 뒤에 밤나무 과수원 왼편의 능선에 가마터가 자리하고 있다(사진 30). 가마터의 왼편 능선위로 경작되고 있는 논 주변에는 도편과 가마벽편 및 요도구들이 산재해 있다.

② 도편의 특징

성연리 분청사기 가마터로부터는 대접, 접시, 합뚜껑 그리고 도지미가 수집된다. 전체 도편의 색조는 녹색이 짙은 말류 청자계통의 특징을 보인다.

ㄱ. 대접

대접 1(그림 10-1, 사진 31-1)은 1줄 문양대 안에 간략한 초화문이 대접 측면에 상감되었고 기형은 내만형인데 초화문은 고려상감청자의 포류수금문에서부터 연유한다. 따라서 고려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대접 2(그림 10-2, 사진 31-2)는 무문의 외반형대접으로 굽은 대마디굽으로 깎았고, 어두운 회청의 유조를 보인다.

ㄴ. 접시

접시 1(그림 10-3, 사진 32-1)은 전접시이며, 접시 2(그림 10-4, 사진 32-2)는 음각의 와선문이 있고 접시 3(그림 10-5·6·7, 사진 32-3)은 무문접시이다. 접시편들은 내저면이 넓게 마련되고 기형은 사선과 곡면의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접지면은 내경하게 깎고 있으며 암갈색의 유조를 보인다.

ㄷ. 합뚜껑편 : 파상형의 우점문과 소국문이 인화되었다(그림 10-8, 사진 32-4).

ㄹ. 도지미 : 높이 약 7~8cm인 둥근 도지미로 15세기 도지미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사진 32-5).

③ 제작시기

이상의 도편의 양상을 통해 볼 때 세종 때 하품 자기소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으며 제작시기는 대략 1420년대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 지명과 일치되는 9개 지역 20기의 분청사기 요지의 출토도편의 상황을 살펴왔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활동시기는 1420~1430년대가 상한인 가마가 대부분이고 가산리와 장곡리만이 각각 1430년대와 1440년대로 그 상한이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산리와 장곡리 경우에는 지표수습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년대 추정에는 한계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하한연대는 백자로 이행해간 학봉리 경우만 16세기 전반까지 활동했고 나머지는 대체로 1450년을 넘지 못하고 거의 폐요된 듯하다. 따라서 분청사기는 15세기 전반에 크게 발전하였으며 1469년에는 분원이 설치되면서 토산공물로서의 분청사기 임무는 대체로 끝났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1481년경의 상황을 보여주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磁器·沙器·陶器所의 수가 50년만에 324기에서 49기로 대폭 줄어든 사실을 말해주는 기록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백자로 이행해 간 학봉리 경우에는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에 걸쳐 철화분청사기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발휘하고 있다.

2.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 기록에 없는 粉靑沙器 窯址

충청남북도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粉靑沙器 窯址가 분포되어 있다. 앞 절에서는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소의 지명이 확실히 고증되는 곳 또는 추정되는 곳에 있는 窯址를 다루었다.

본 절에서는 자기소에는 기록이 없으나 실제 답사 결과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 조사되는 지역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남북도에는 9개군의 17개 지역에서 총 25기의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1基 뿐만 아니라 2~6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25기는 각각 지역특색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로 15세기에 제작활동을 했기 때문에 획적으로 공통되는 특징도 있다. 이 요지들은 이미 발표 보고되었고 더러는 논문으로 다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도편의 특징과 제작시기 추정을 종합해서 다루기로 한다. 또한 이것을 종합하여 표를 작성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表 13>.

1) 忠北 鎭川郡 栢谷面 成大里 성터⁶¹⁾

대접은 안으로 내만한 고려적인 형태의 여운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몇 줄의 선문이 돌려지고 있다. 또 구연부편에는 상감기법의 연당초문과 간략한 초화문이 시문되어 성대리 성터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대략 1420년대 전후한 특징을 보인다.

2) 忠北 淸原郡 江外面 深重里⁶²⁾

민태절 요지-대접 내면에 문양이 모두 생략되고 단지 상·하에 2~3줄의 문양구획선만 남고 문양대 안에는 구름문 혹은 화문 등이 간단히 4곳에 상감된 것 외는 모두 빈공간으로 남기고 있다. 이런 현상은 14세기 상감청자가 무문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따라서 대접 기형도 모두 내만형으로 상감청자의 최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상감기법의 흑백 蓮唐草文, 접시의 물오리문 등의 특징은 대체로 1390~1420년대의 특징이다.

자기소 요지-대접 내면문양은 상감기법의 흑백 蓮唐草文, 인화기법의 육각판문 등이라든지 또 제기의 음각문 등 문양상으로는 고려상감청자의 여운이 짙게 남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1420년 이전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심중리 자기점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대략 1390~1420년경으로 추정된다.

3) 忠北 槐山郡 靑川面 沙器幕里⁶³⁾

사기막리에서는 분청사기 요지 6기가 발견되었으나 모두 심하게 파괴되었다. 『世宗實錄』地理志

61) 忠北大學校 博物館, 『忠北地方陶窯址地表調査報告書』, 1993, pp. 272~275.

62) 위책, pp. 299~303.

63) 위책, pp. 191~199.

〈表 13〉『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磁器所 기록에 없는 분청사기 요지(1994년)

번호	분청사기 요지	제작시기 추정	도편 특징
1	충북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성터	1420년 전후(중기 제1기)	내만형대접, 상감연화문, 草文
2	충북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 민태절 사기소	1390~1420(전기 제2기)	상감흑백 연당초문, 인화육각판문, 음각문 제기, 구름문, 花文, 물오리문, 내만형
3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기마리(6)	1440~1470 (중기 제1기~중기 제2기)	대접내면 대국문, 촘촘한 집단연권문, 灰白磁 반출
4	충북 괴산군 도안면 송정리	1440~1450(중기 제1기)	집단연권문, 얇은 노끈문 백토분장 불량
5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산맥이	1410~1430 (전기 제2기~중기 제1기)	상감 연당초문, 네곳 초화문, 단독국화문, 내만형대접
6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430~1440(중기 제1기)	단독국화문, 대접문양구도안정, 집단연권문, 대접외면사선문
7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1430~1410(전기 제2기)	연당초문, 「司」명접시편, 상감 草花文, 角形 접시, 녹색유주, 고려상감청자여운
8	충남 연기군 전동면 달전리(2)	(1) 1430~1450(중기 제1기) (2) 1450~1470(중기 제2기)	「禮賓」명편, 중권문, 인화문 높은 굽
9	충남 연기군 전동면 금사리	1460~1540(중기~후기)	「禮賓」명편, 집단연권문 얇게 압인
10	충남 연기군 서면 청라리	1420~1430(중기 제1기)	연당초문, 초수금문의 상감기법, 갑발
11	충남 연기군 서면 쌍류리	1430~1440(중기 제1기)	인화기법의 집단연권문, 중권문
12	충남 연기군 서면 기룡리	1420~1430(중기 제1기)	연당초문, 중권문, 六角瓣文
13	충남 연기군 서면 신대리	1430년경(중기 제1기)	연당초문 퇴조, 인화문의 도식화
14	충남 공주군 반포면 온천리	1430~1440(중기 제2기)	집단연권문, 근자문, 渦文
15	충남 공주군 의당면 증흥리(2)	1417~1427 (전기 제2기~중기 제1기)	흑백상감의 연당초문, 草文, 角形접시
16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1360~1390(전기 제1기)	흑백상감 연당초문, 학문, 유로수금문, 角形접시
17	충남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1450년경(중기 제1기)	「仁」명도편, 집단연권문, 인화국화문
계	9郡 17地域 25基		

에는 괴산에서는 茵峴里(자기소)와 품只峴(도기소)의 두 곳에서 하품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명확인이 어려웠고 또한 사기막리의 요지들은 『世宗實錄』地理志 당시의 자기보다는 약간 늦은 때의 요로 생각되어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청사기 요지가 여러 기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자기의 제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茵峴里와 품只峴의 지명고증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沙器幕里 분청사기 요지는 1~6호까지 성격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즉 도편의 특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大菊文이 대접 내면에 등성등성 인화된 점, 굽은 태토비집받침의 포개구이 수법, 집단연권문의 촘촘한 인화기법 등인데 특히 1호 요지에서는 회백자계통의 도편이 함께 수집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백자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보겠는데 그 시기는 모호하다. 요지가 6기가 확인되므로 1469년(分院 설치시기) 이후까지 사기막리에서 자기생산이 계속되었다고 볼 때, 그 역사는 적어도 반세기 이상은 된다. 그렇다면 지리지 제작시기인 1420년대는 물론이고 1470년대 어느 때까지도 활동했다고 보겠는데 도편의 성격으로는 1440년대 이후의 특징이 주로 보이고 있다. 현재의 沙器幕里와 옛지명인 품只峴, 茵峴里와는 어떤 관련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보나 현재 유적지 상황으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4) 忠北 槐山郡 道安面 松亭里⁶⁴⁾

송정리 분청사기 요지에는 집단연권문이 비교적 정교한 것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노끈문을 얇게印花하고 백토감입이 깨끗하지 않다. 문양 위에 귀얄로 백토를 슬쩍 바르고 있어 상감기법의 초기적인 분위기는 없고 대체로 1440~1450년경의 가마로 추정된다.

5) 忠北 槐山郡 七星面 沙隱里⁶⁵⁾

사은리 분청사기 요지에서는 상감기법의 연당초문편, 네 곳에 시문된 간략한 초화문 대접편, 인화기법의 단독국화문대접, 접시 내저의 여의두문 형태, 내만형 대접 등의 여러 특징의 도편이 수집된다. 이와 같은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사은리 분청사기의 제작시기는 대체로 1410~1430년 경으로 추정된다.

6) 忠北 報恩郡 馬老面 赤岩里⁶⁶⁾

적암리 분청사기는 단독국화문이 대접 내면에 가득히 시문되고 대접문양의 구도가 안정되었으며 집단연권문도 성의껏 시문되었다. 또 대접외면에 사선문의 존재 등으로 보아 제작시기는 대체로

64) 忠北大學校 博物館, 앞책, 1993, pp. 183~184.

65) 위책, pp. 210~213.

66) 위책, pp. 355~357.

1430~1440년경으로 추정된다.

7) 忠北 沃川郡 郡西面 沙亭里⁶⁷⁾

사정리 도편의 전체 유조는 녹색을 많이 띠며 또 접시의 草花文, 드문드문 인화시문된 花文, 흑백 상감의 연주문, 각접시, 대접 외면의 상감기법의 초문, 「司」명 접시편 등은 14세기 고려상감청자의 여운을 짙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沙亭里 陶片의 제작시기는 1390~1410년 전후시기로 추정된다.

8) 忠南 燕岐郡 全東面 達田里⁶⁸⁾

1호 요지-대접은 重圈文, 내측면에 1줄의 인화문대, 압인상태가 촘촘한 인화문이 주로 시문되며 대접 굽이 유난히 높고 굽은 모래받침으로 포개구이를 하였다. 접시는 문양의 흐트러짐이 없이 비교적 꼼꼼히 시문하고 있으며 병은 雨点文과 면상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양내용과 제작방법 등을 통해 볼 때, 대개 1430~1450년 사이 제작활동을 했으리라고 본다.

2호 요지-문양의 소재가 소국문, 국화문, 나비문, 집단소국문, 연주문, 돛자리문, 당초문, 연판문 등 다양하나 문양이 겹치거나 압인이 얇게 되어 귀얄자국과 더불어 흐트러지고 지저분하게 시문되고 있다. 특히 “禮賓”이라는 관칭이름이 접시 중앙에 새겨진 도편이 수습되고 있어 중앙관청과의 관계를 시사한다. 2호 요지는 문양 등 제양상으로 보아 1호 요지의 바로 뒤로 볼 수 있어 제작시기는 1450~1470년대가 아닐까 한다.

9) 忠南 燕岐郡 全東面 金沙里⁶⁹⁾

대접문양의 특징은 菊花文, 集團連圈文 등이 얇게 압인되어 문양이 흐트러져 있고 굽은 모래받침에 태토도 치밀하지 않다. 굽은 모래로 포개구이한 「禮賓」銘片이 수습되며 대접 굽은 대체로 높다. 백자편과 혼재해 있어 제작시기는 1460~1540년경 사이 어느 때가 아닐까 한다.

10) 忠南 燕岐郡 西面 靑羅里⁷⁰⁾

靑羅里 요지에서는 대접, 접시, 제기, 항아리, 병, 합, 갑발 등 기형이 다양하게 수집된다. 대접문양은 상감기법의 草文, 重圈文 그리고 印花기법의 이중원권 안에 菊花文이 새겨지며 외면은 상감기법의 당초문이 있다. 접시에는 연당초문, 초수금문이 새겨져 14세기 고려상감청자의 여운을 많이 띠고 있다. 유조, 태토는 밝고 치밀하며 갑발은 구멍뚫린 편이 수습되어 고급 그릇을 제조했던 것을

67) 忠北大學校 博物館, 앞책, 1993, pp. 384~386.

68) 姜敬淑, 앞책, 1986. pp. 191~193.

69) 위책, pp. 189~191.

70) 위책, pp. 193~197.

알 수 있다.

이상의 도편의 특징에서는 1365년의 「청자상감연당초문정릉명대접」과, 1420년이 하한인 「분청상감연당초문공안명대접」의 모습과도 유사하여 제작시기는 1420~1430년경으로 추정된다.

11) 忠南 燕岐郡 西面 雙流里⁷¹⁾

대접 중심 문양에서는 상감기법의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대접은 印花기법과 重圈文이 중심인데 1줄의 간략한 印花文, 내·외 가득한 집단연권문이 시문되는데 외측면에는 별개의 문양군이 배치되기도 한다. 주변의 佳山里, 中興里 요지의 특징과 비교할 때 제작시기는 대체로 1430~1440년경으로 추정된다.

12) 忠南 燕岐郡 西面 起龍里⁷²⁾

기룡리에서는 대접과 접시편이 수집되며 문양은 상감기법의 연당초문, 印花文, 重圈文 등이 대접 문양이며 접시에서는 六角瓣文이 수집되는데 公州, 연기, 경기도 광주의 분청사기 요지와도 유사하며 제작시기는 1420~1430년경으로 추정된다.

13) 忠南 燕岐郡 西面 新垆里⁷³⁾

신대리의 대접 내면문양은 상감기법의 연당초문의 퇴조현상이 나타나며 印花文에서도 일부 도식화되어 가는 양상이 뚜렷하다. 갑발편이 수집되어 上品의 그릇을 제조했던 것으로 보이며 문양의 제양상으로 보아 제작시기는 1430년경으로 간주된다.

14) 忠南 公州郡 反浦面 溫泉里⁷⁴⁾

온천리 분청사기의 문양으로는 草文, 重圈文, 集團連圈文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대접에서 내만 형일 때는 상감의 草文帶와 간략한 국화문이 시문되며 양감있는 外反形 대접의 경우에는 촘촘한 집단연권문이 시문되는 특징이 보인다.

접시에서는 굽외측에 만자문이 상감되고 안에는 집단연권문, 와선문이 시문되며 병에는 집단연권문이 시문되고 있어 주변의 가산리 지역과 비교된다. 이상의 제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제작시기는 대략 1430~1440년경으로 추정된다.

71) 姜敬淑, 앞책, 1986, pp. 198~249.

72) 위책, pp. 249~250.

73) 姜敬淑, 「陶窯址」 『錦江誌』下, 충청남도·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3, p. 355.

74) 위글, pp. 187~189.

15) 忠南 公州郡 儀堂面 中興里⁷⁵⁾

중흥리 1, 2호는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곳의 특징은 흑백상감기법에서 특징을 보이며 촘촘한 집단연권문이나 단독 소국화문이 없다. 예컨대 대접에는 어문, 연당초문, 연화당초문, 草文, 중권문 등 흑백상감기법에서 특징을 보이며 접시는 국화문이 상감된 각형접시, 초수금문 등 고려 상감청자의 잔영이 짙게 남아 있다. 또 접시에는 “金” “司”자가 상감되어 있어 중흥리 가마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 사자 조각의 향로, 문자명 병 등의 존재와 더불어 정선된 태도에 맑은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이상의 제양상을 통해 볼 때 제작시기는 대략 1417~1427년 경으로 추정된다.

16) 忠南 靑陽郡 定山面 天庄里⁷⁶⁾

천장리 가마는 청자말류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마로 대접 내면에는 흑백상감의 연당초문, 외면에는 흑백상감의 花文 등이 차차 생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접시는 흑백상감의 국화문을 시문한 각형접시가 수집되며 때로는 학문양이 상감되어 있다. 병편에도 유로수금문이 상감되어 있으나 모두가 퇴조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4세기 고려 상감청자의 여운이 짙게 남아 있어 제작시기는 대략 1360~1390년경으로 추정된다.

17) 忠南 扶餘郡 恩山面 長閼里⁷⁷⁾

장벌리 분청사기 요지의 수습도편들은 집단연권문, 파상문, 연주문, 국화문 등의 인화문 도편이 수집된다. 특히 “仁”자가 새겨진 도편은 “仁壽府”의 약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양상으로 보아 제작시기는 대략 1450년경 전후로 추정된다.

VI. 맺음말

『世宗實錄』地理志에 기재되어 있는 충청도 지방의 磁器所와 陶器所의 옛지명을 찾아 현지를 답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① 충청도에서 지리지 당시의 자기소는 21지역 23기, 도기소는 33지역 38기가 조사되었고〈표 2참조〉 본조사가 실시되기 전에는 지명이 확인된 곳은 자기소 5곳 뿐이었다(公州 東鶴洞→鶴峰里, 公州 軍知村→佳山里, 燕岐 松峴里→松亭里, 靑陽 長谷洞→長谷里, 保寧 靑淵里→聖淵里).

② 현지를 직접 답사한 결과 磁器所 21개 지역 가운데 지명이 확인된 9개 지역에서 20기의 분청사기 요지를 확인한 성과를 얻었다. 이 요지들의 제작활동 시기는 대개가 1450년을 크게 넘어가지

75) 姜敬淑, 앞글, 1993, pp. 174~182.

76) 위글, p. 359.

77) 위글, pp. 360~361.

않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③ 또한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에는 지명이 나오고 있지 않으나 충청남북도의 9군 1개 지역에서 모두 25기의 분청사기 요지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25기의 분청사기 요지들은 『世宗實錄』地理志 시대(1424~32) 전후하여 활동했던 사실이 파악되어 15세기를 넘지 않는다는 점도 파악하였다.

④ 분청사기 가마들의 활동시기가 15세기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은 『世宗實錄』地理志가 磁器所·陶器所 32개소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반면에,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서는 49개소로 대폭 감소된 상황(충청도에서는 磁器所 23기→8기로, 陶器所 38기→4기로, 그리고 沙器所 1기로 감소)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해 준다. 실제로 가마터 조사에서도 15세기 후반의 성격을 띤 가마는 아주 드문 사실이 파악되어 지리지의 기록과도 역시 부합되고 있다.

⑤ <표 12> <표 13>에서 보듯이, 『世宗實錄』地理志의 磁器所에는 지명이 없다 하더라도 25기의 분청사기 요지가 조사되고 있어 지리지 지명이 확인된 곳의 20기의 분청사기 요지까지를 합치면 모두 26지역 45기의 분청사기 가마가 15세기에 충청남북도에서 제작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45기의 분청사기 요지가 모두 土產貢物의 대상가마였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방 토산공물로서의 분청사기의 역할은 1469년경分院이 성립되면서는 거의 그 역할이 끝났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역할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양상으로 변했겠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 본 결과 45기의 분청사기 가마가 모두 토산공물의 대상가마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분청사기 가마들은 1469년 이후는 대부분 폐요되었고 극히 일부만이 백자 가마로 이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⑥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陶器所의 지명 확인은 모두 16지역이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로 현지를 답사하여도 15세기에 해당되는 어떤 종류의 가마터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성급히 결론지을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옹기나 토기를 제작했던 도기소의 당시의 요업상황이 허술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⑦ 『世宗實錄』地理志 당시의 충청도 磁器所는 대개 분청사기였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⑧ 따라서 世宗 당시의 磁器와 陶器의 구분이 白磁와 粉靑沙器가 아니라 磁器는 白磁와 粉靑沙器를 지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陶器는 甕器 내지는 토기류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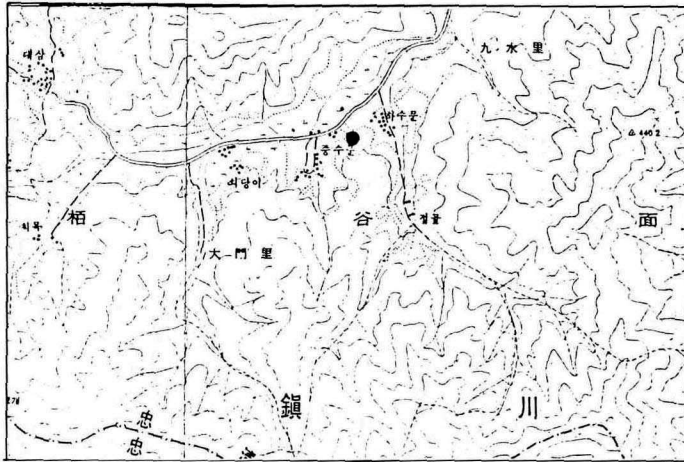
⑨ 世宗 당시의 磁器의 上·中·下품의 등급기준은 上品은 白磁, 中品과 下品은 대체로 粉靑沙器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忠淸道 磁器所 23기 중에는 上品이 없고 中品 12곳, 下品 11곳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런데 中品の 粉靑沙器 窯址에서는 정교한 印花文 陶片, 정선된 태토, 굽처리의 깔끔함 등의 분청사기 도편이 수집되는 반면에 下品の 경우는 匣鉢이 수집된다 할지라도 인화기법일 경우 백토 감입의 정교성이라든지 굽각기의 깔끔한 제작처리 등에서 질이 떨어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⑩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로 기재된 가마가 현재 필자가 조사한 가마와 꼭 일치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가마라면 그 당시 활동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특히 지방가마인 경우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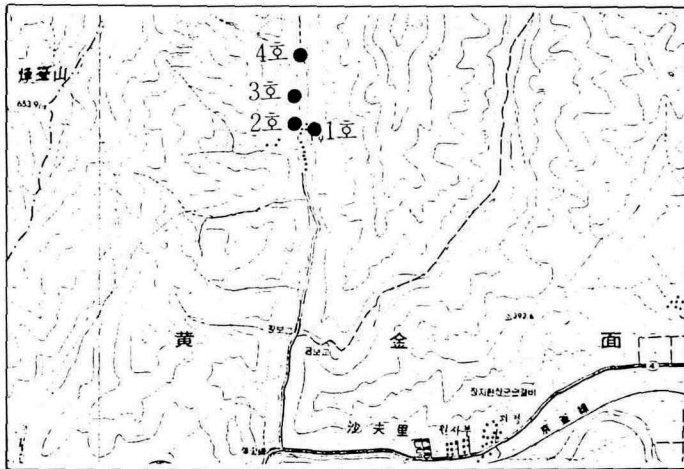
마을에 누대에 걸쳐 살고 있는 노인들은 가마터 자리를 대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 두 쪽이라도 반드시 가마자리 부근에는 파편이 있고 또 불탄 흙, 가마벽편, 도지미 등의 흔적이 대개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5세기 분청사기 요지는 문양기법, 태토, 유조, 만듬새 등을 보아 대체의 시기와 그 질이 가늠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오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⑪ 世宗 당시의 磁器所·陶器所 확인과정에서 지도나 『한국지명총람』 등에는 기록이 없고 또 행정지명으로도 이미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세종 때의 마을이름이 구전되어 내려와 ○○마을, ○○부락 하는 식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답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지답사의 방법은 한국도자사 연구에 기초를 마련해주므로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지역도 앞으로 차차 현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소박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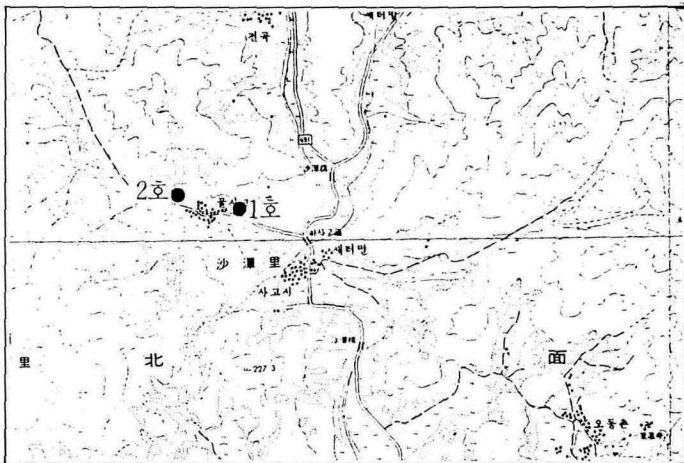
⑫ 조사된 요지로부터 수습된 도편의 사진과 실측그림은 이미 발표지역의 경우 생략하였고 단지 각주에서 게재지만 소개하였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의 자기소와 지명이 일치된 9개 지역 20기로부터 수습된 도편은 이미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사진과 실측그림을 모두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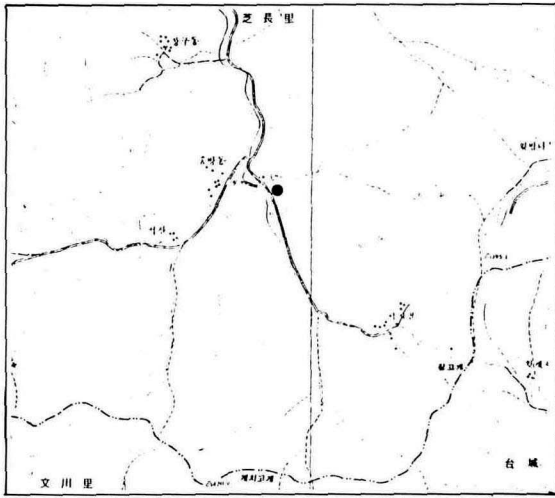
<위치도 1> 진천 대문리 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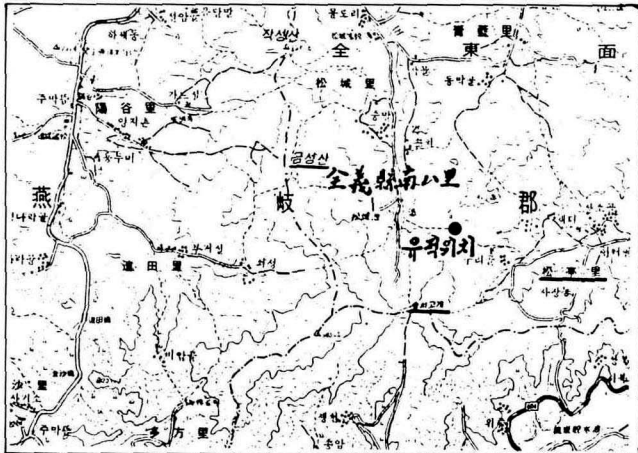
<위치도 2> 영동 사부리 황보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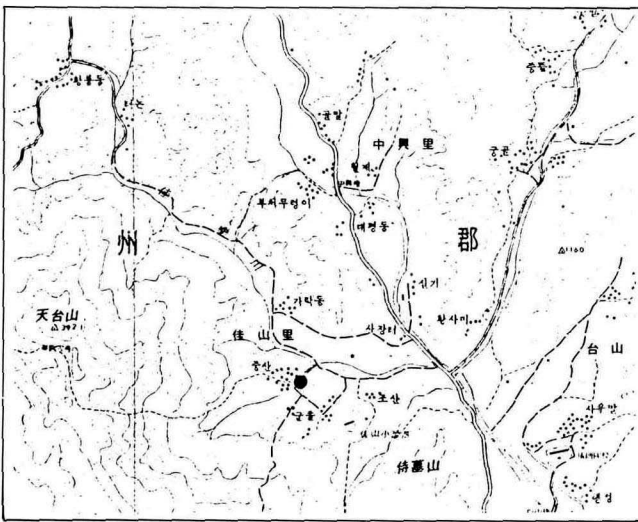
<위치도 3> 천안 사담리 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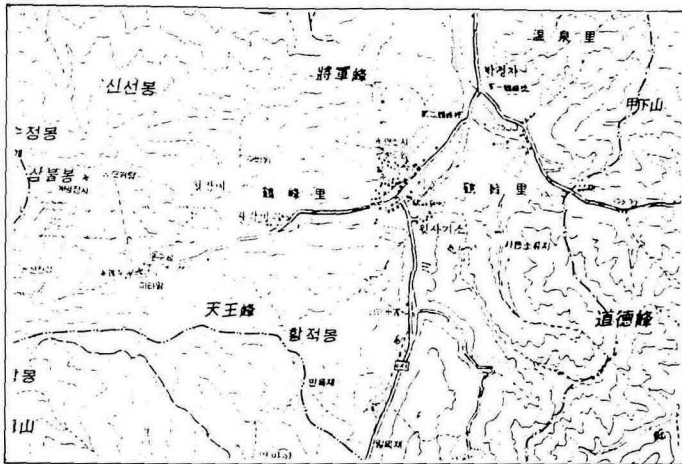
〈위치도 4〉 천안 지장리 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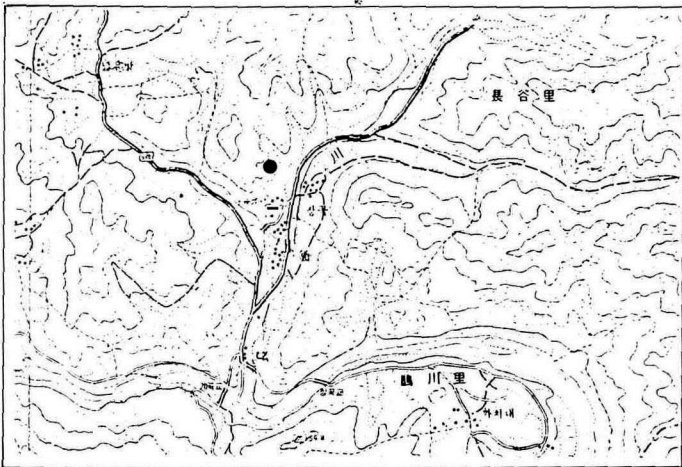
〈위치도 5〉 연기 송정리 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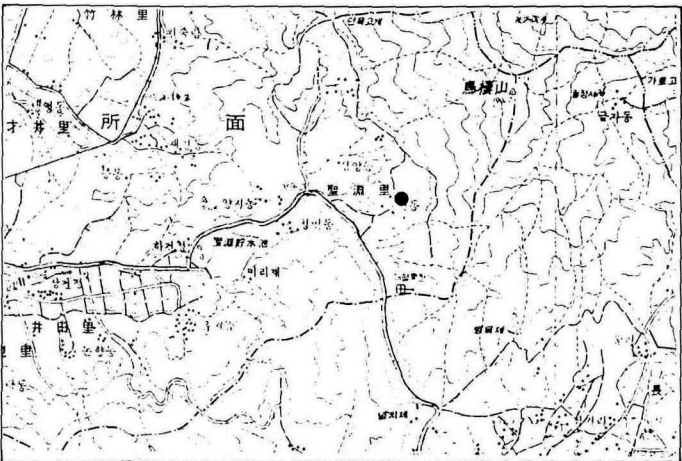
〈위치도 6〉 공주 가산리 가마터



〈위치도 7〉 공주 학봉리 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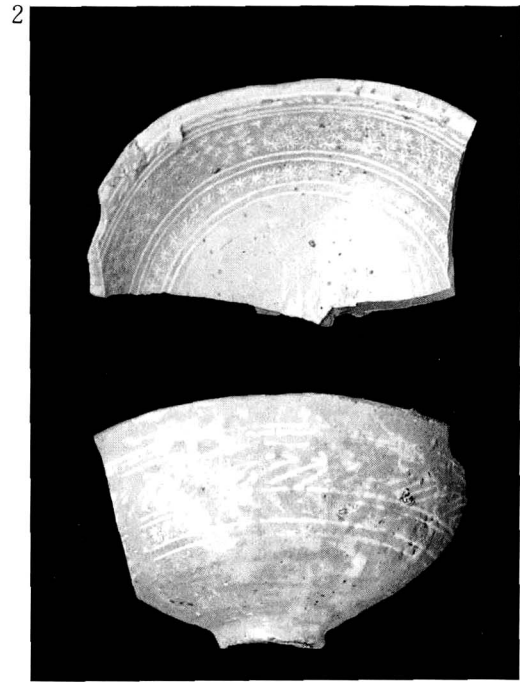
〈위치도 8〉 청양 장곡리 가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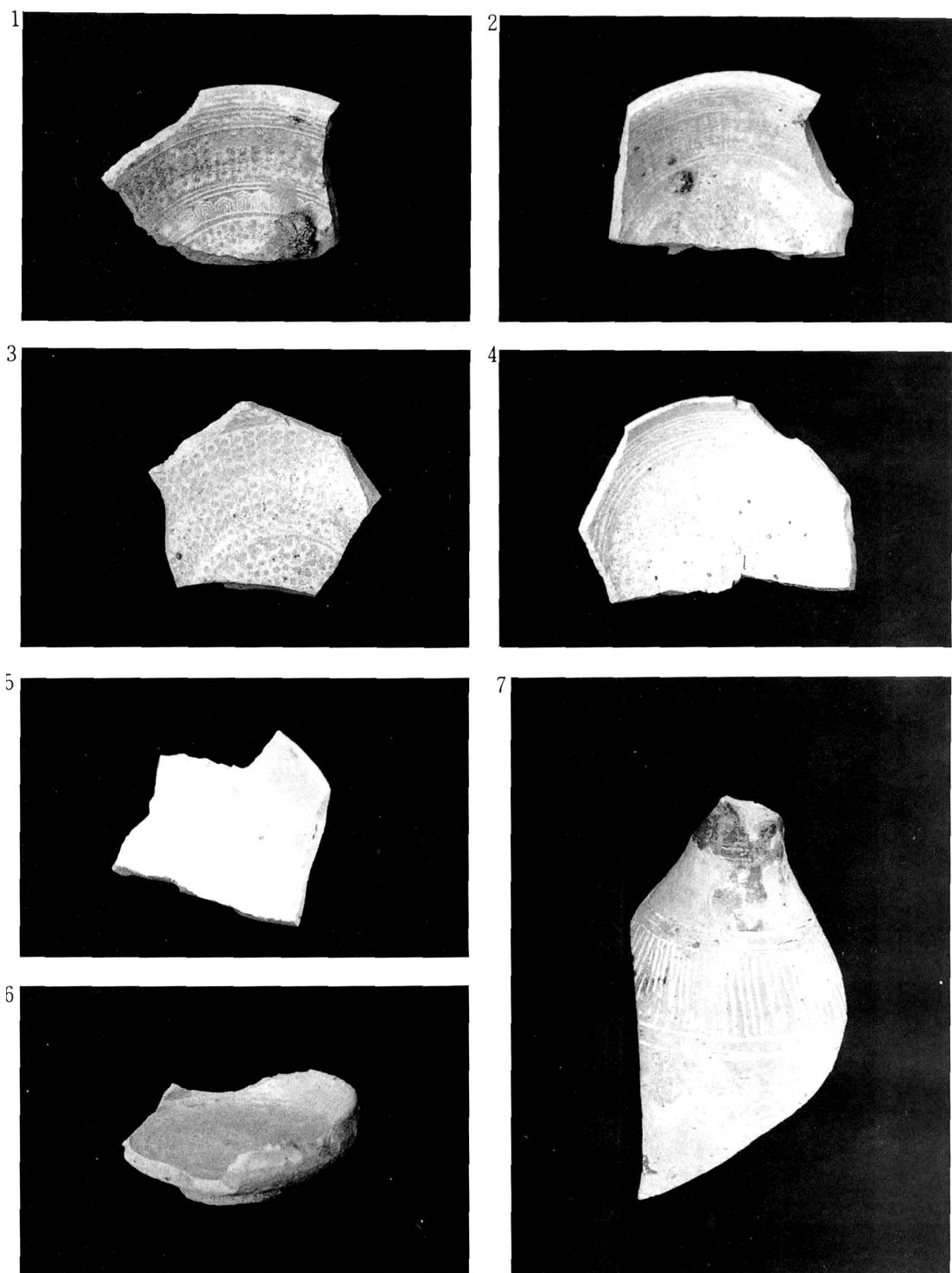
〈위치도 9〉 보령 성연리 가마터



〈사진 1〉 진천 대문리 가마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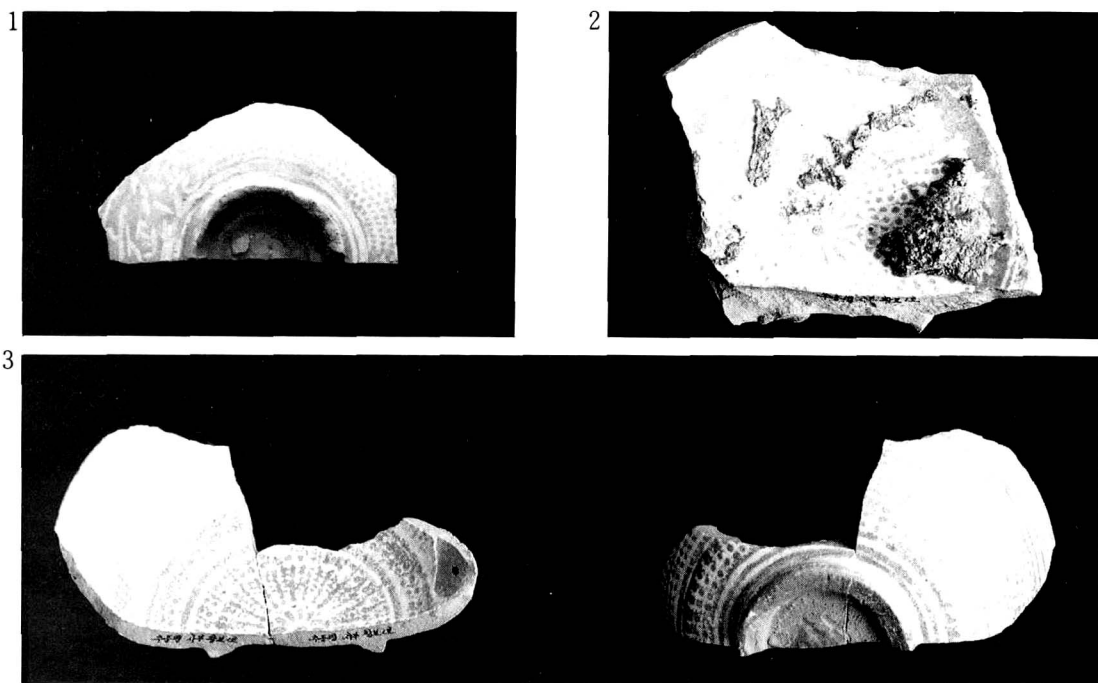
〈사진 2〉 진천 대문리 가마터 수습유물



〈사진 3〉 진천 대문리 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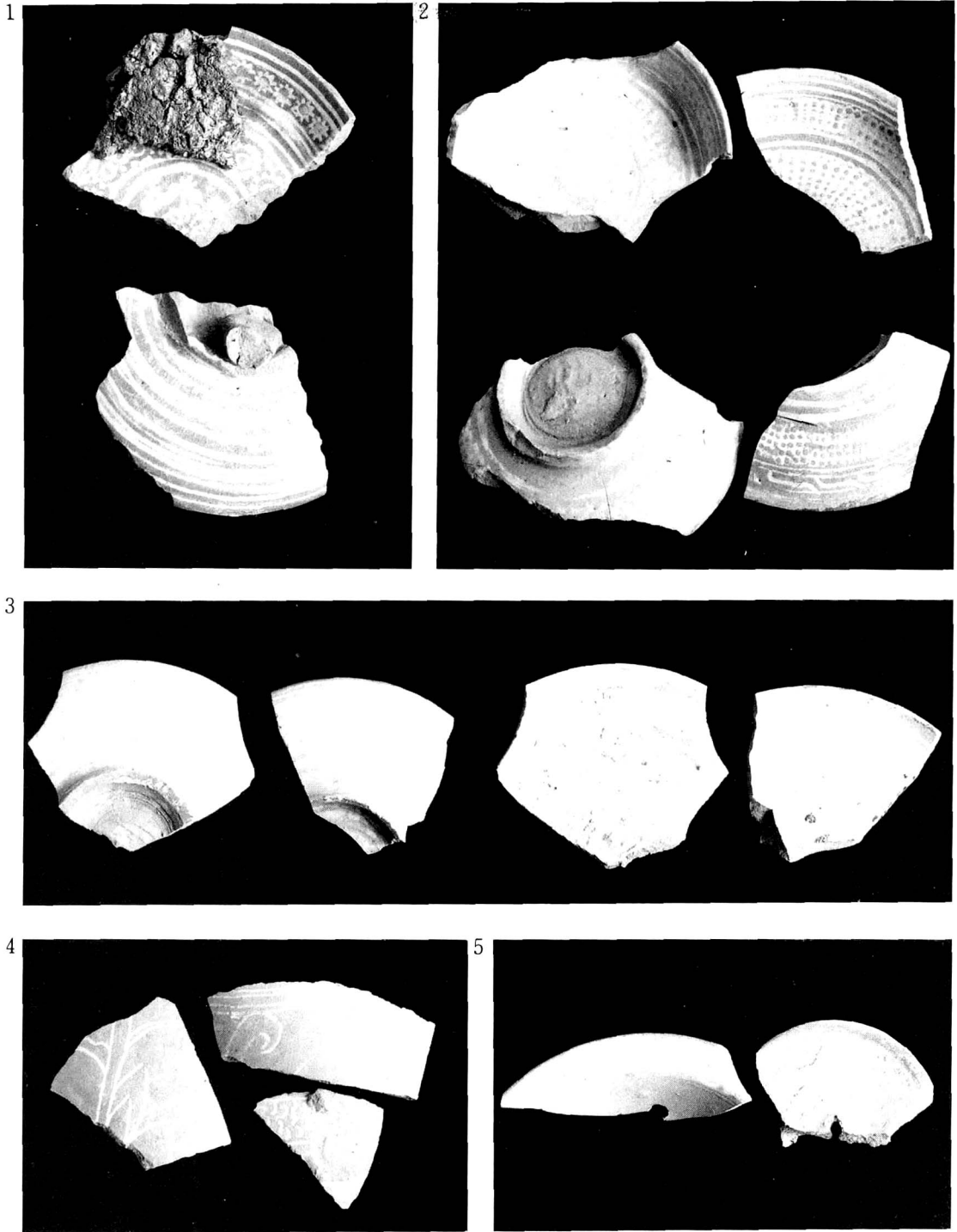
〈사진 4〉 영동 사부리 황보 1호가마터 전경



〈사진 5〉 영동 사부리 황보 1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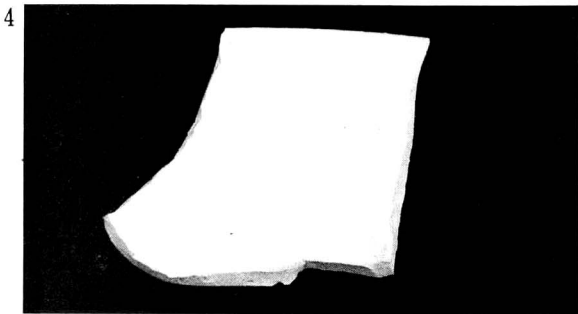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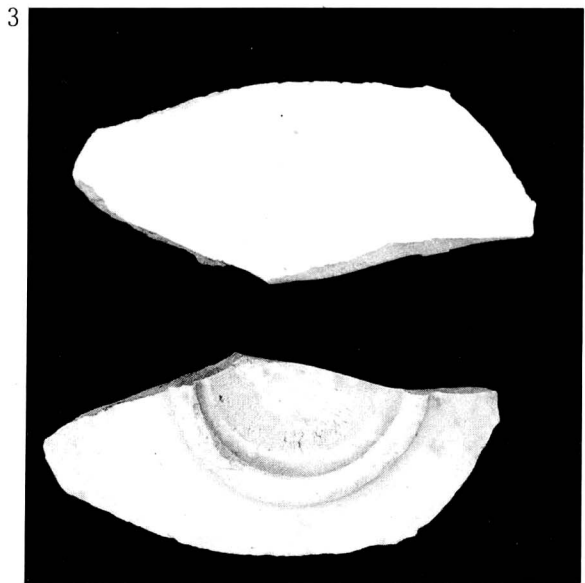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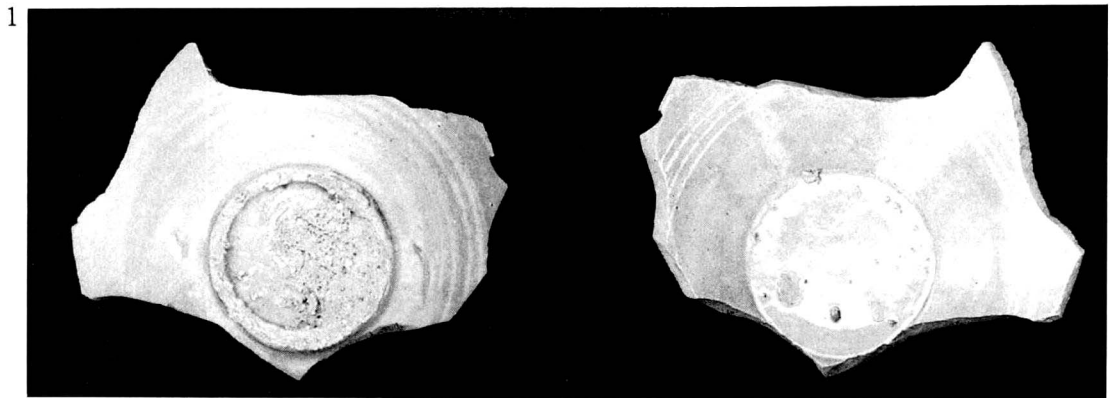
〈사진 6〉 영동 사부리 황보 1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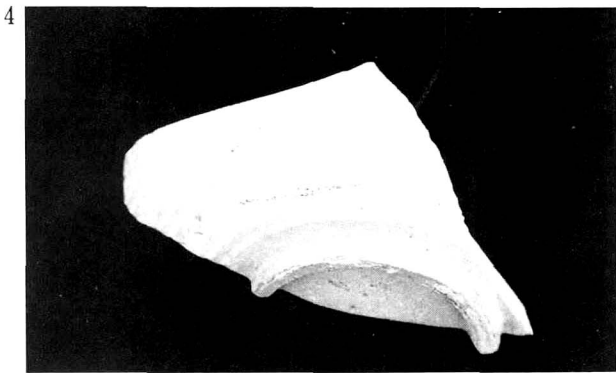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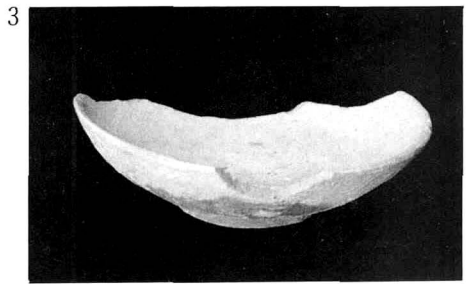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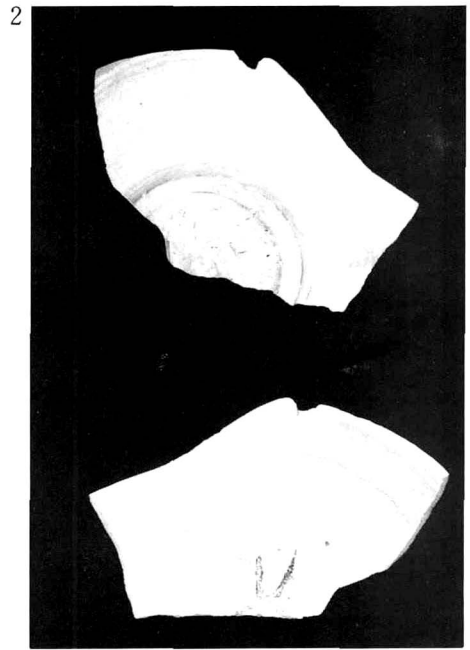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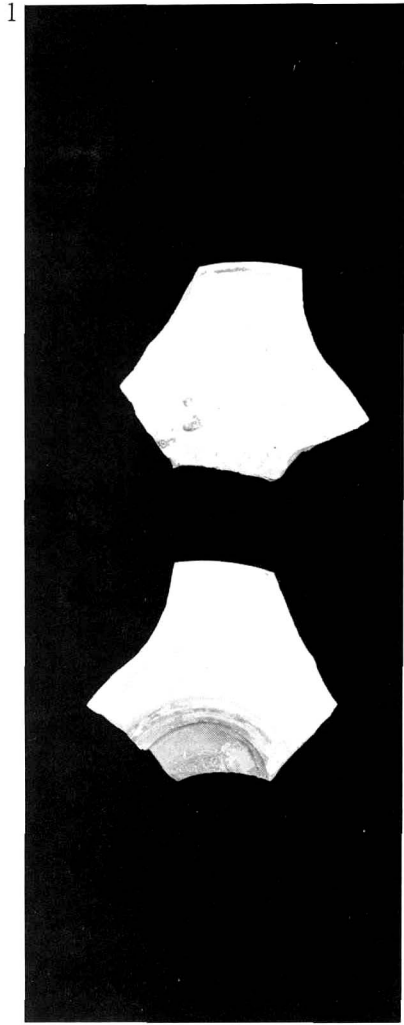
〈사진 7〉 영동 사부리 황보 1호가마터 수습유물



〈사진 8〉 영동 사부리 황보 2호(위) · 3호가마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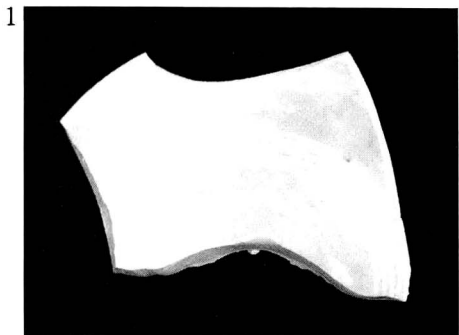
〈사진 9〉 영동 사부리 황보 3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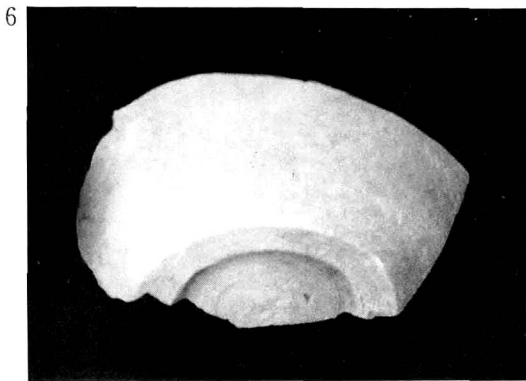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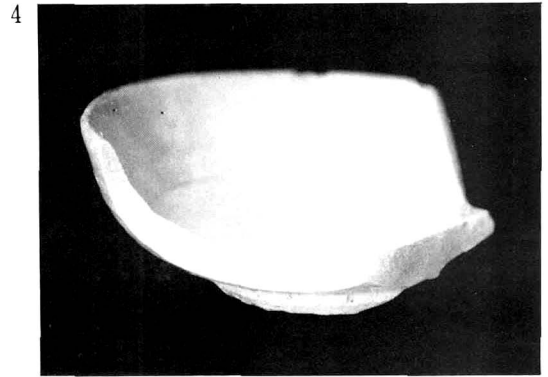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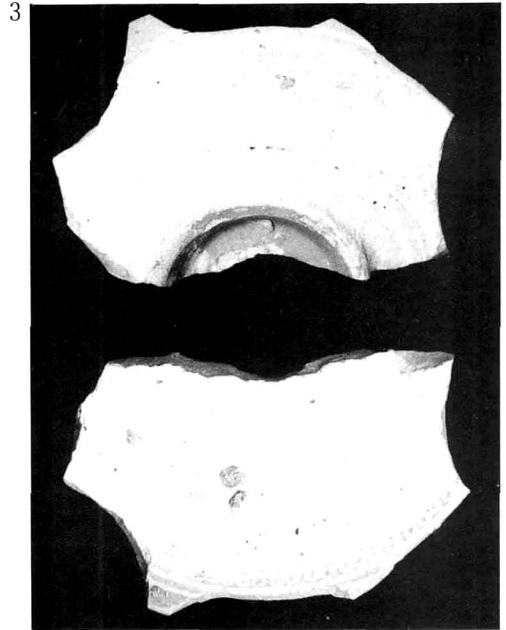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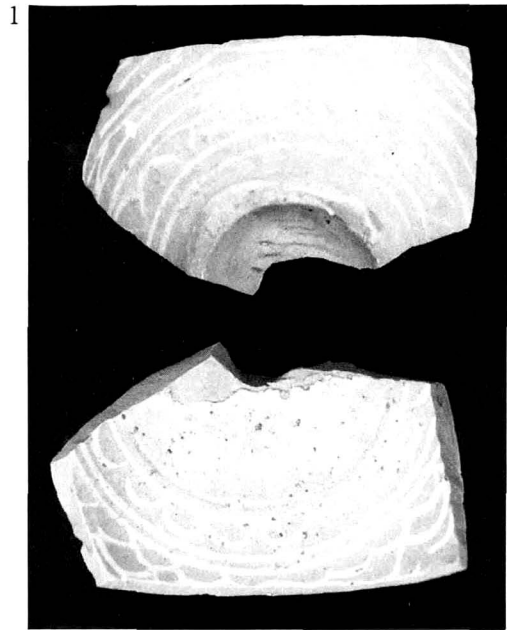
〈사진 10〉 영동 사부리 황보 3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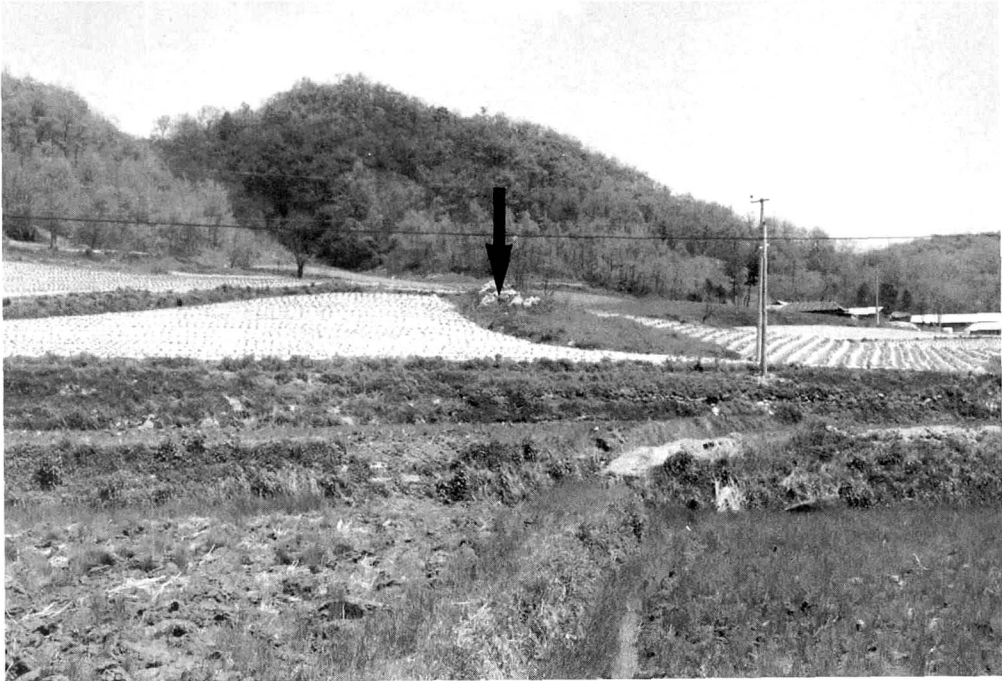
〈사진 11〉 영동 사부리 황보 4호가마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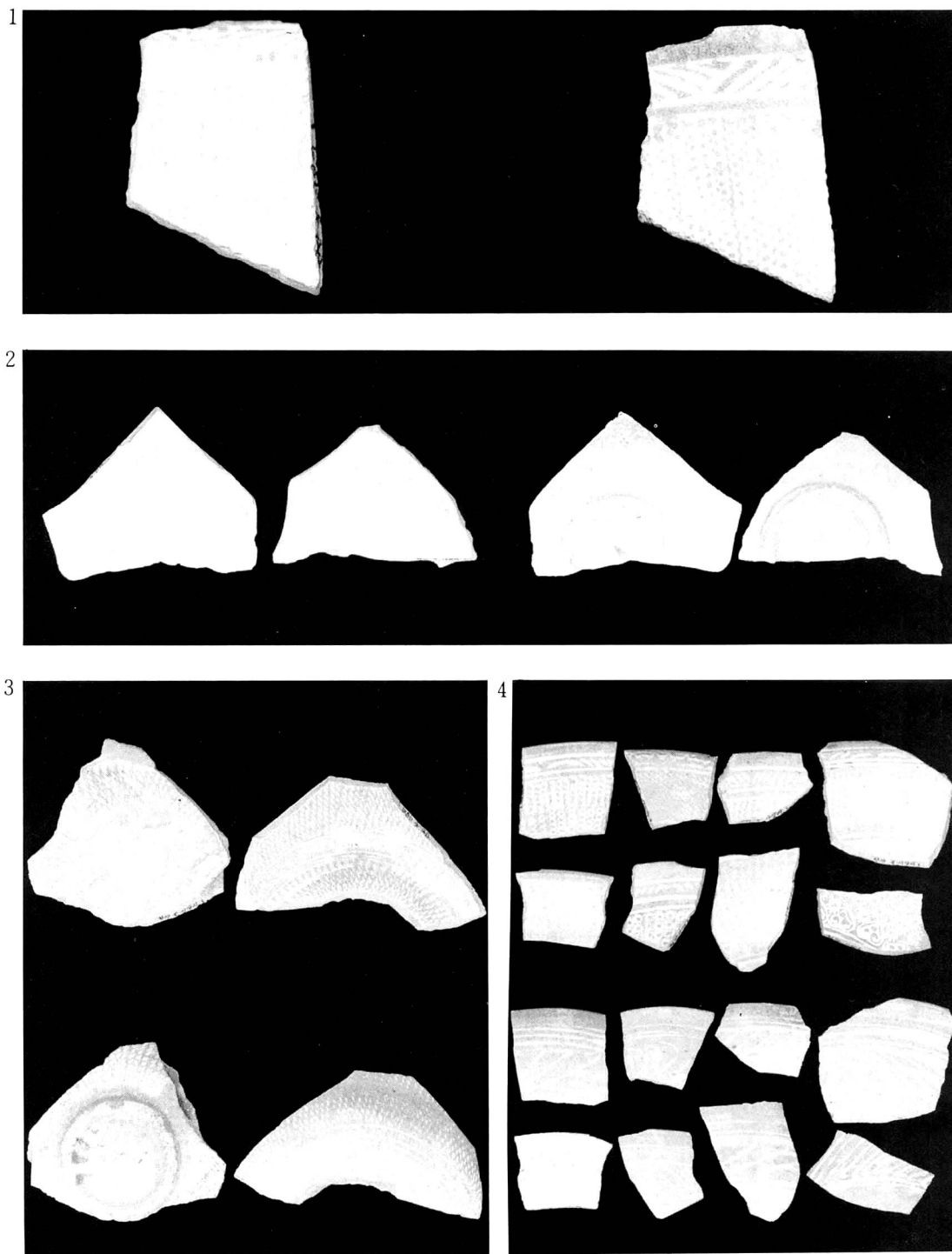
〈사진 12〉 영동 사부리 황보 4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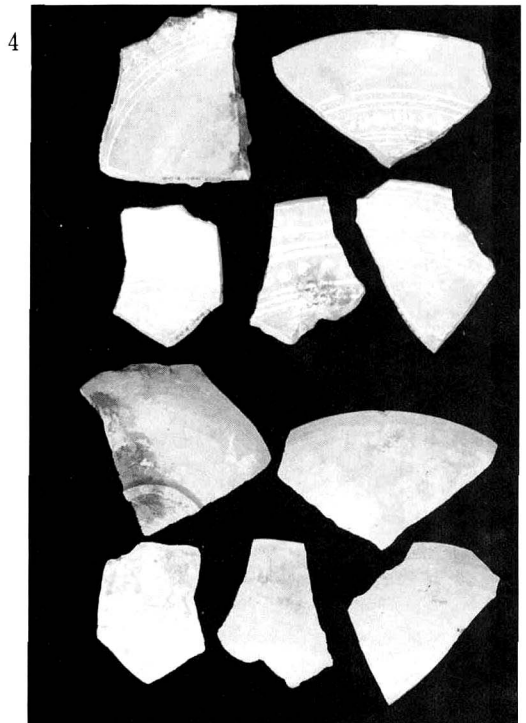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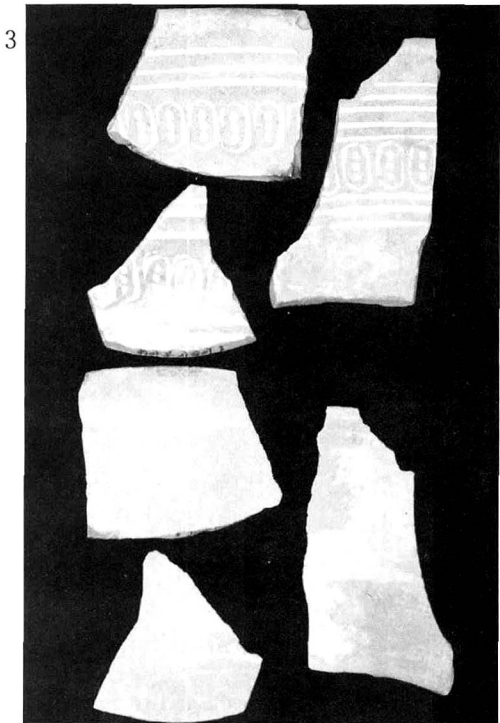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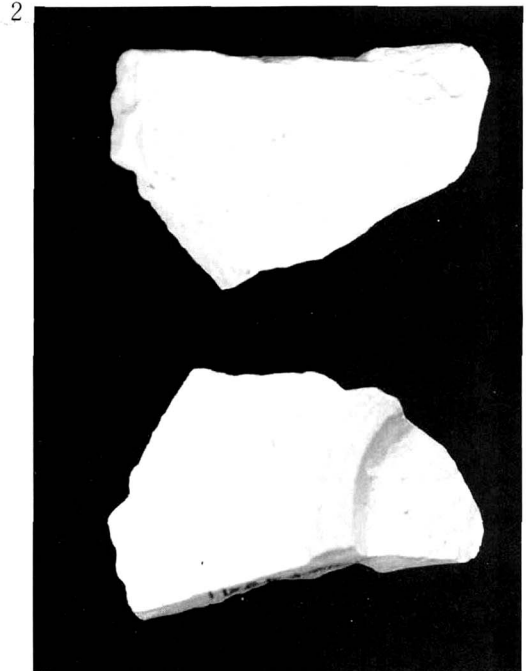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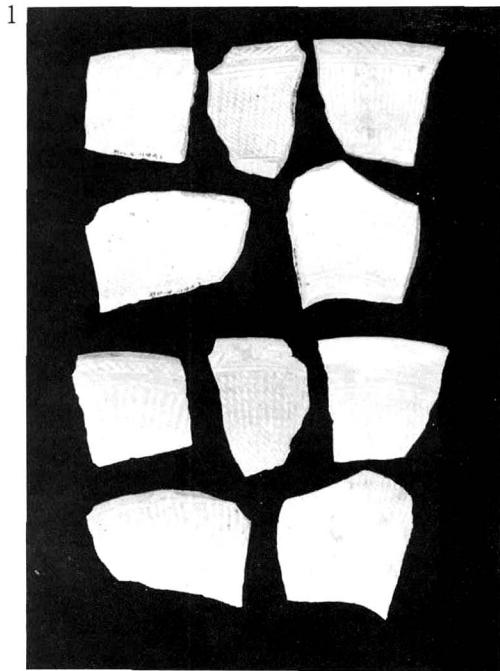
〈사진 13〉 영동 사부리 황보 4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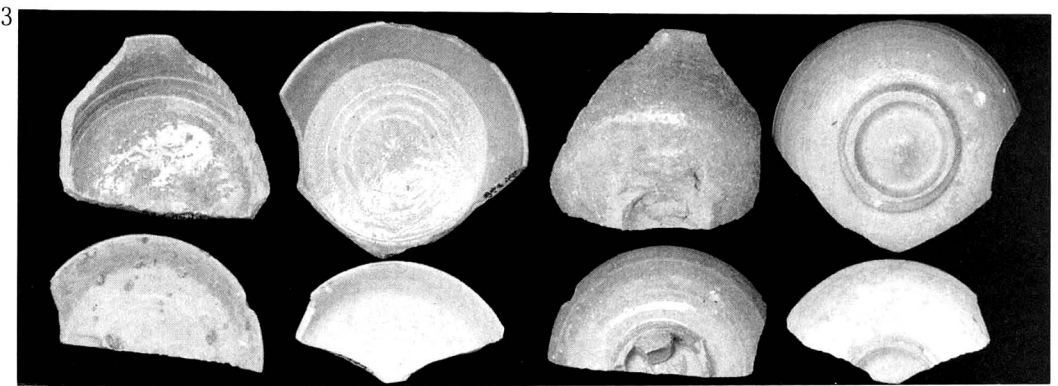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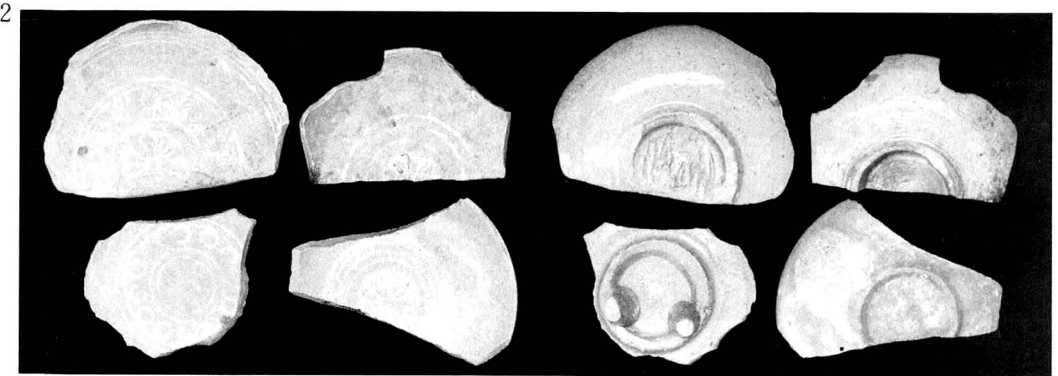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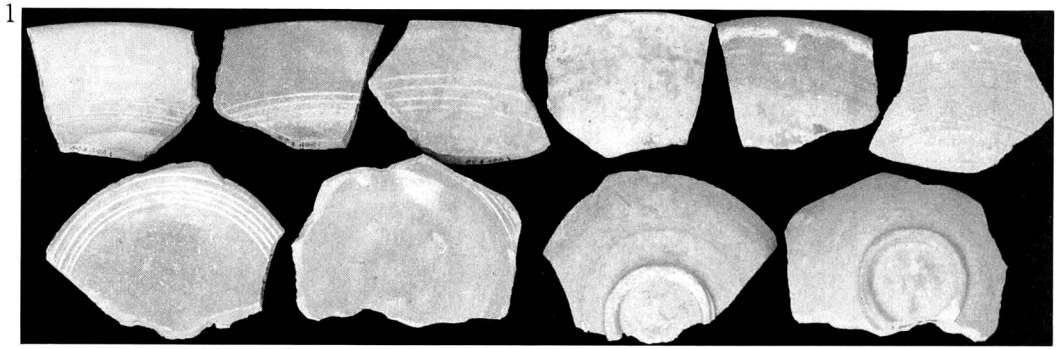
〈사진 14〉 천안 사담리 1호(위) · 2호(아래)가마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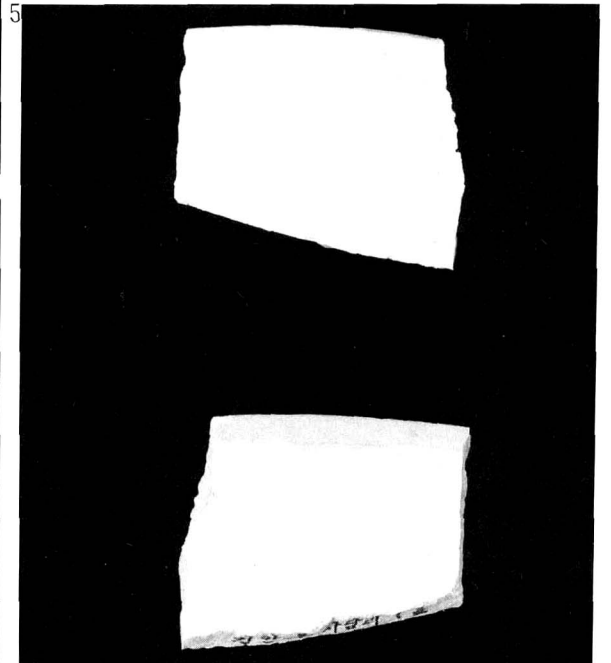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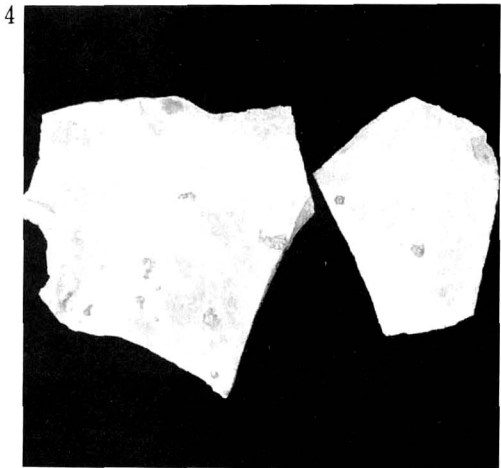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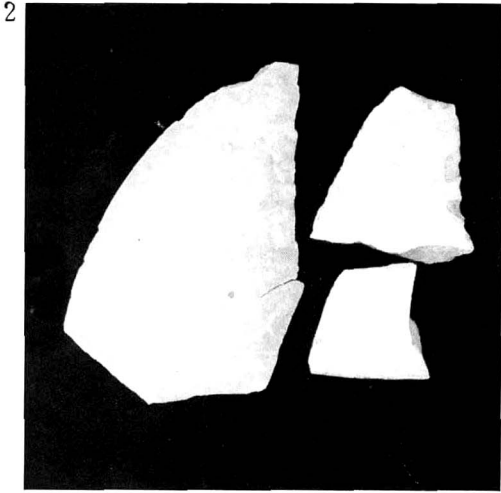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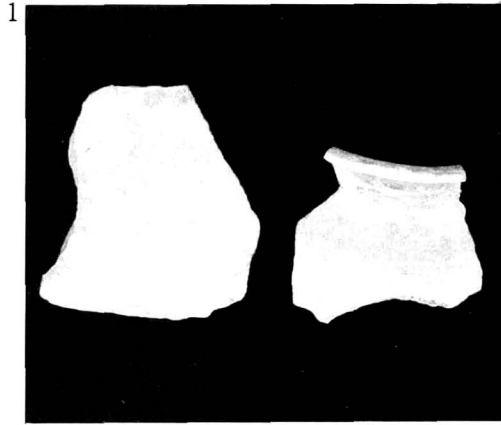
〈사진 15〉 천안 사담리 1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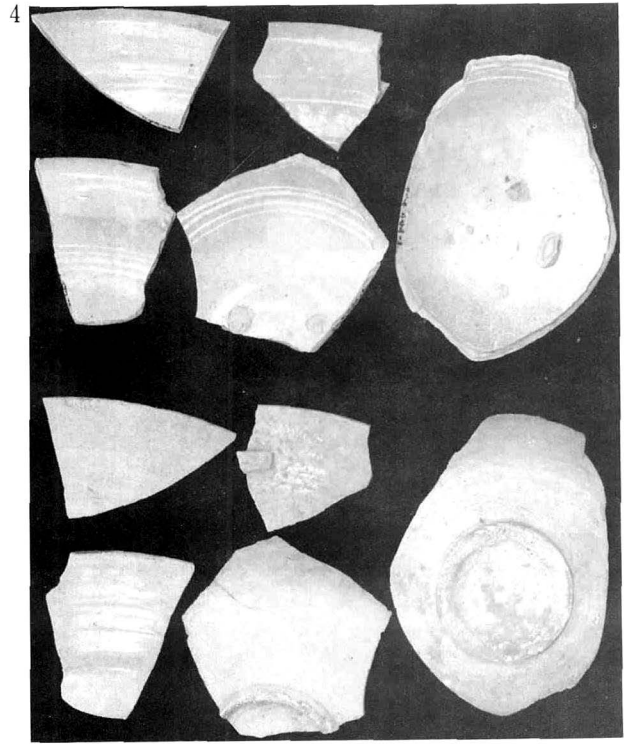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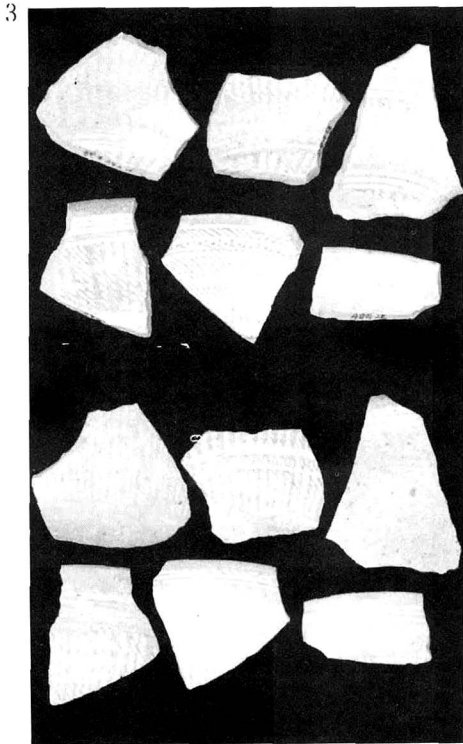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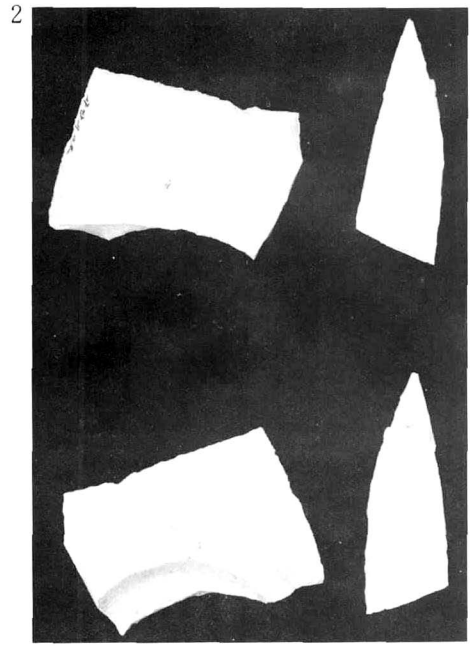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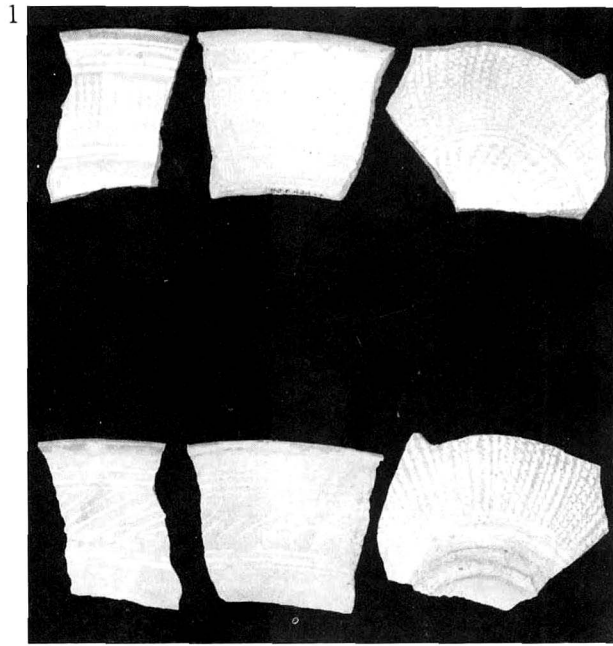
〈사진 16〉 천안 사담리 1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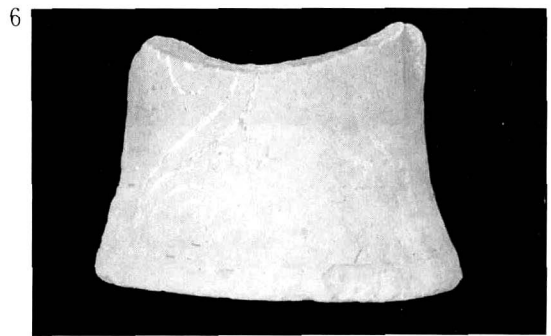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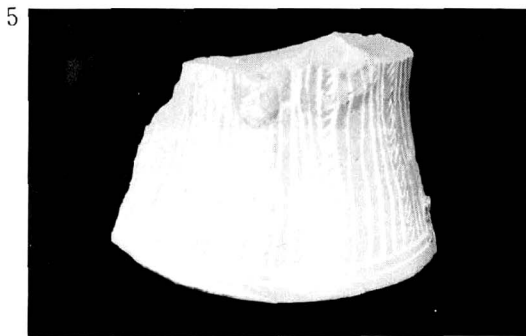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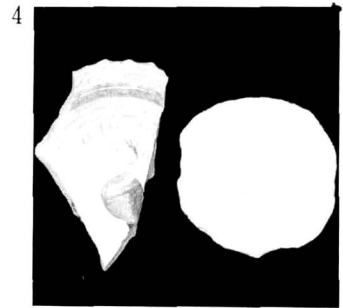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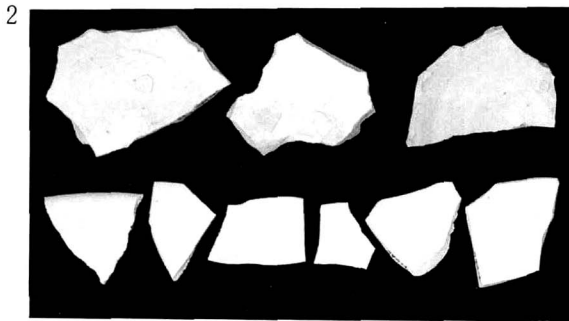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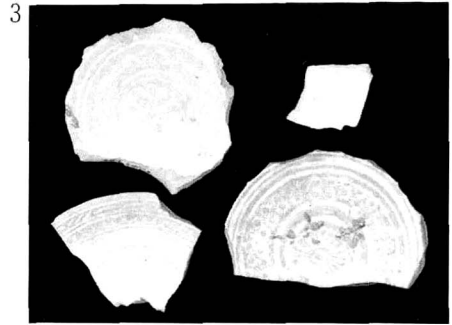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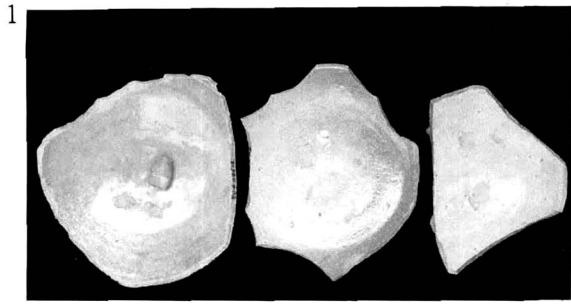
〈사진 17〉 천안 사담리 1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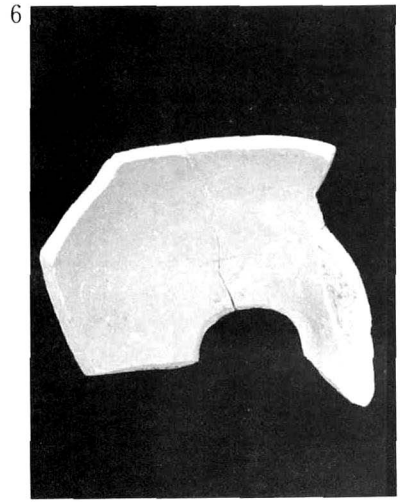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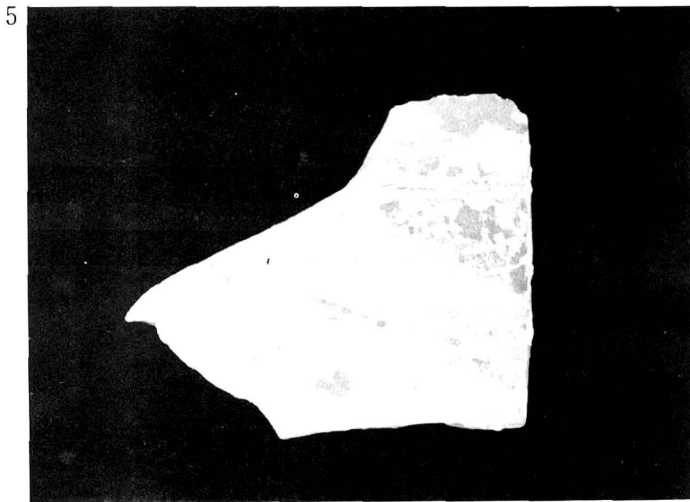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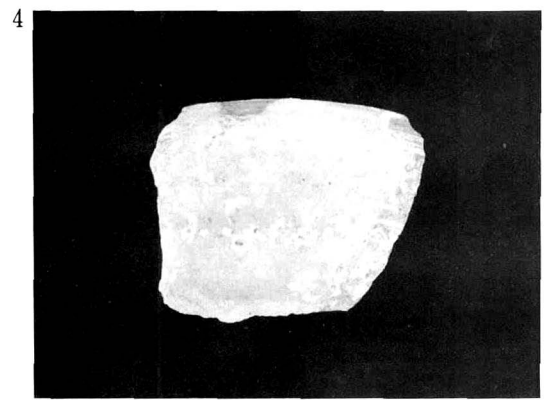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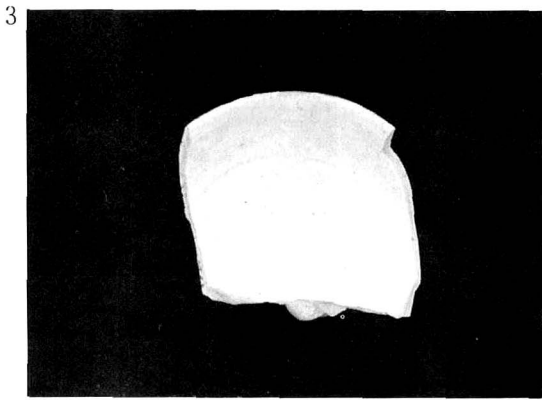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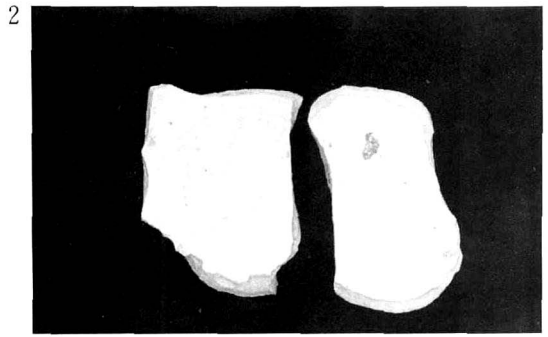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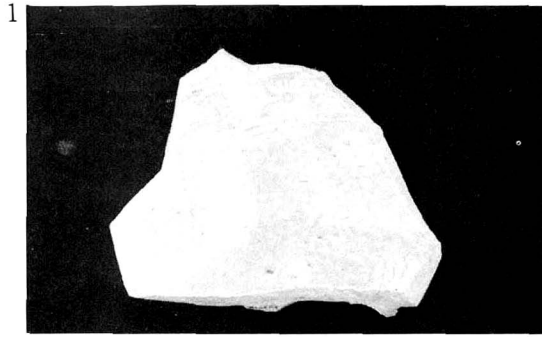
〈사진 18〉 천안 사담리 1호가마터 수습유물



〈사진 19〉 천안 사담리 2호가마터 수습유물



〈사진 20〉 천안 사담리 2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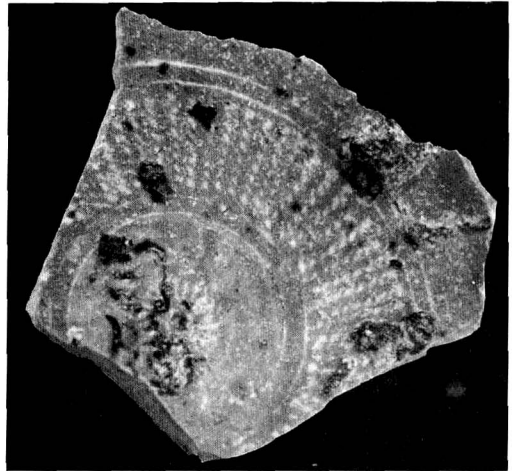


〈사진 21〉 천안 지장리 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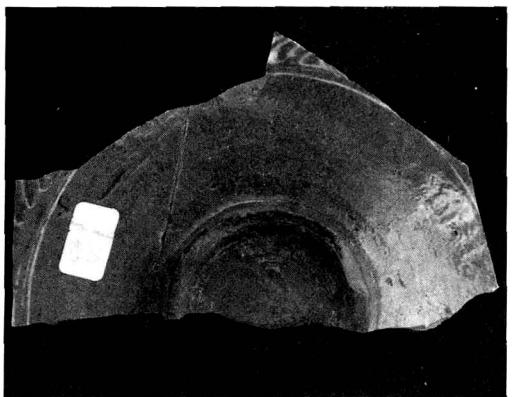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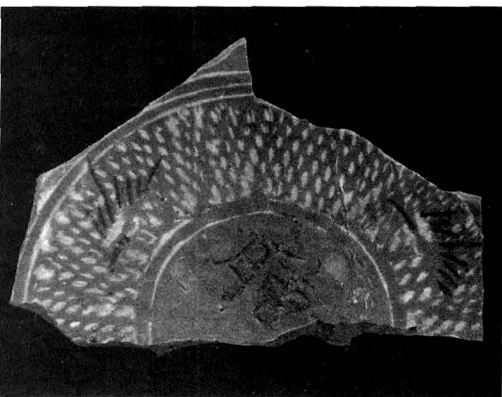


〈사진 22〉 연기 송정리
가마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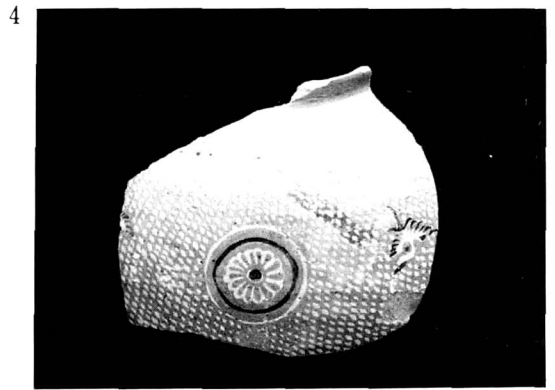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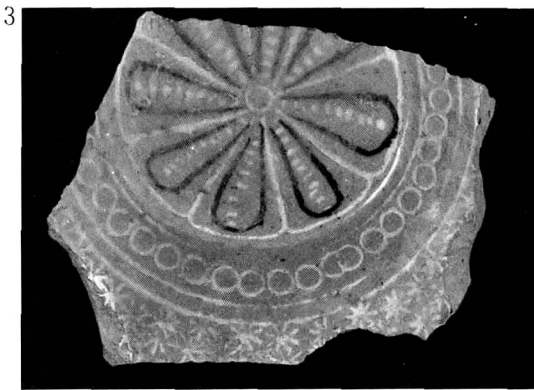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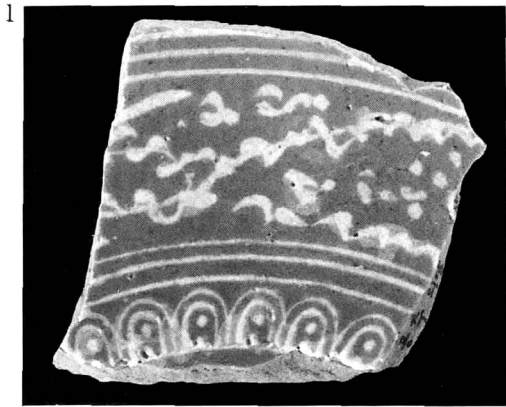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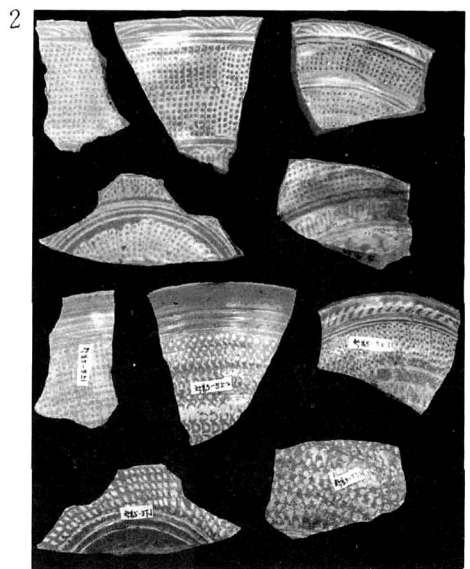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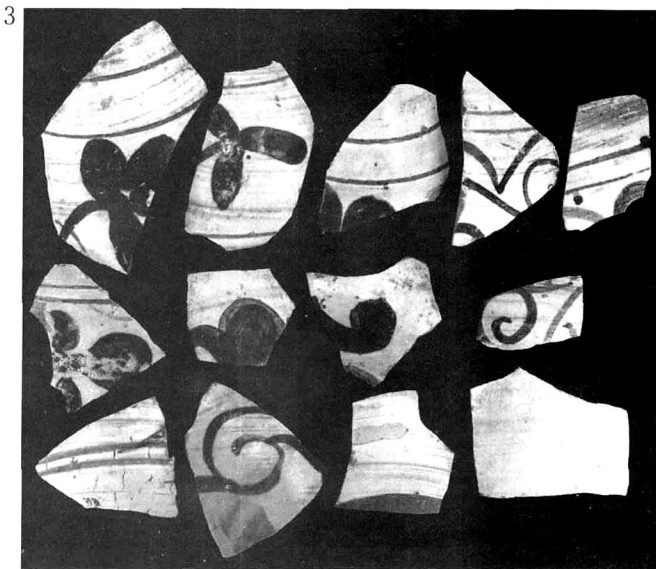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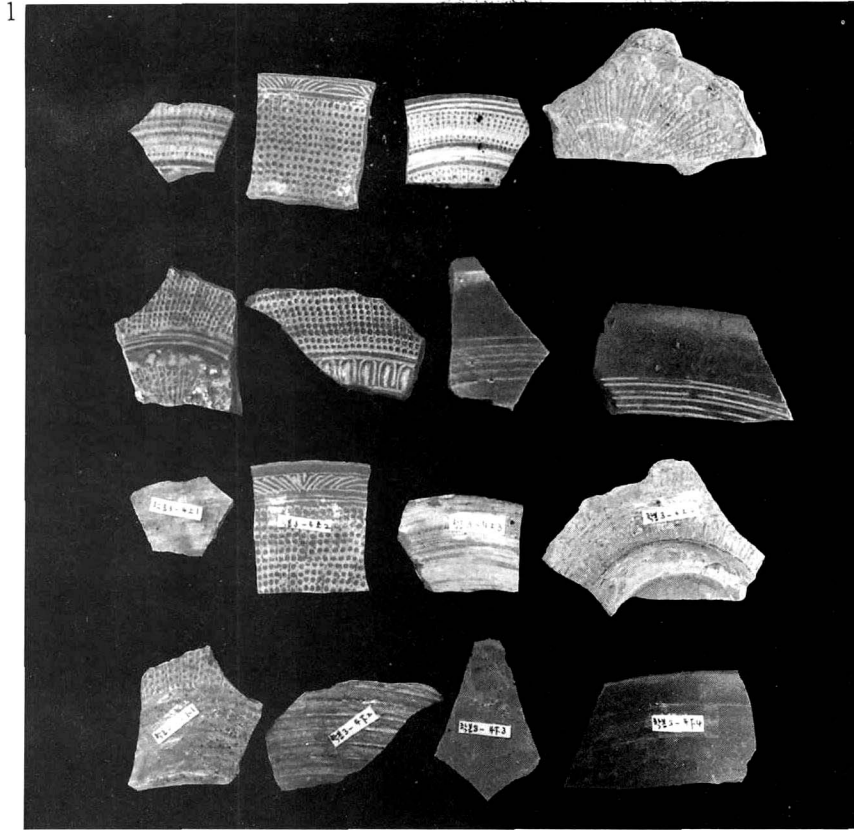
2



〈사진 23〉 연기 송정리 가마터 수습유물



〈사진 24〉 공주 가산리 가마터 수습유물



〈사진 25〉 공주 학봉리 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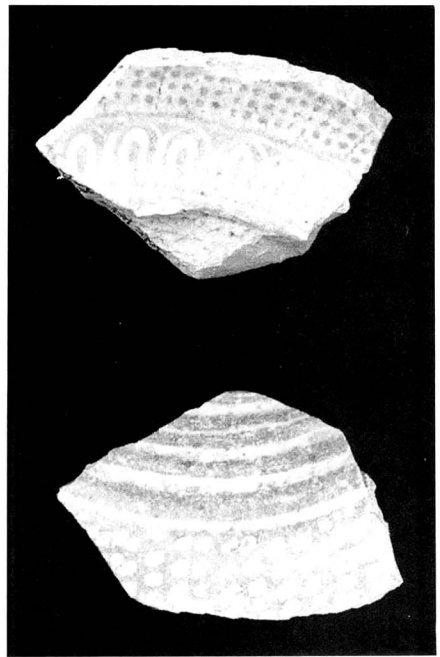


〈사진 26〉 청양 장곡리 가마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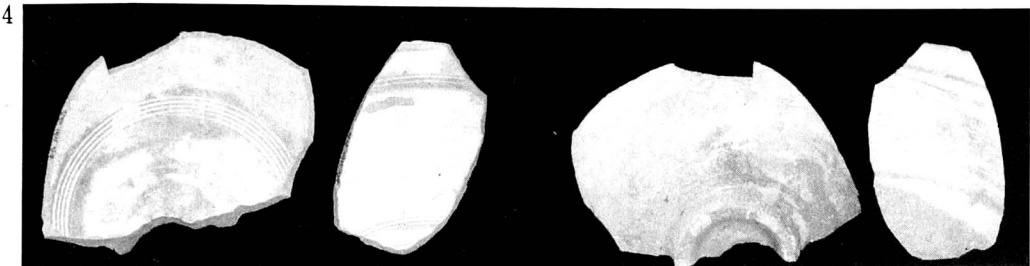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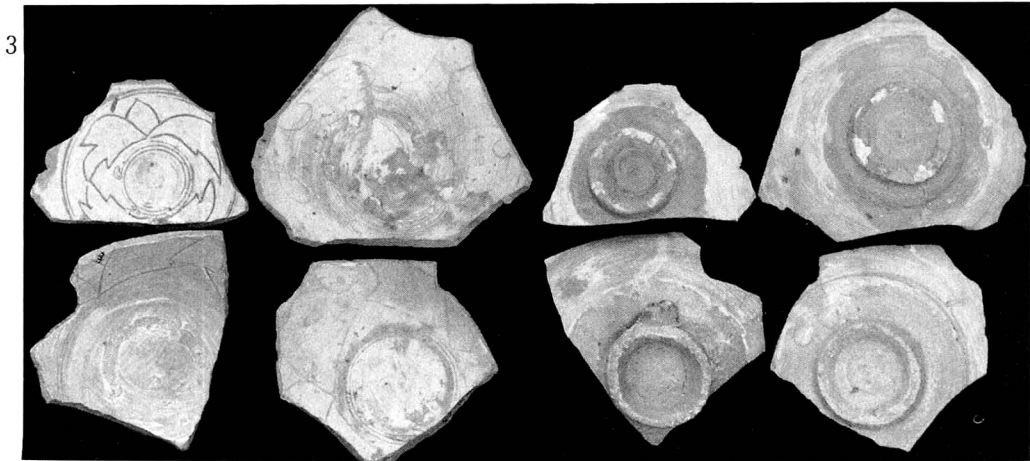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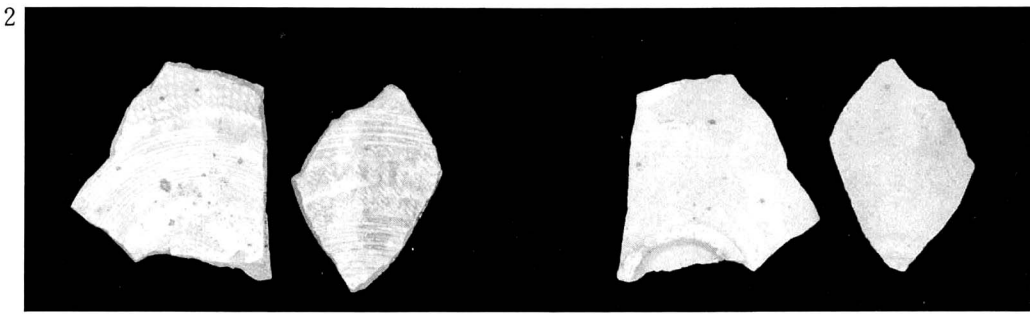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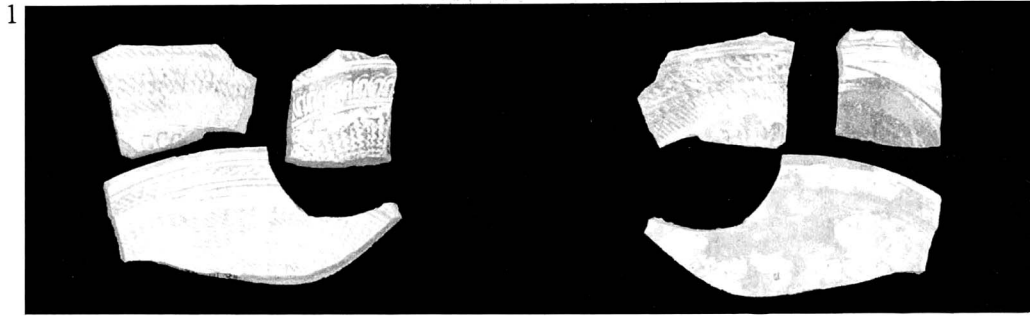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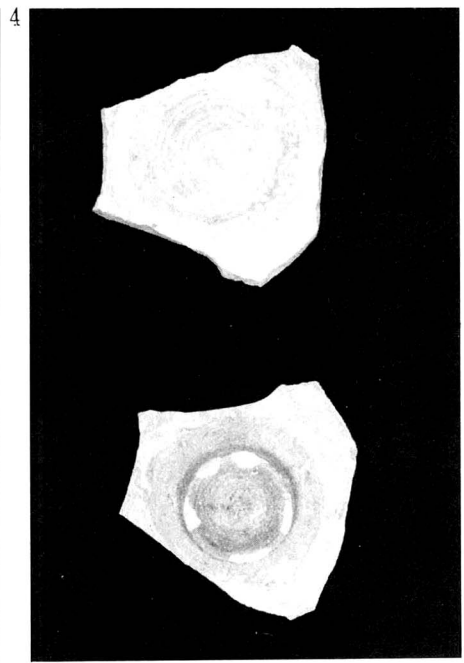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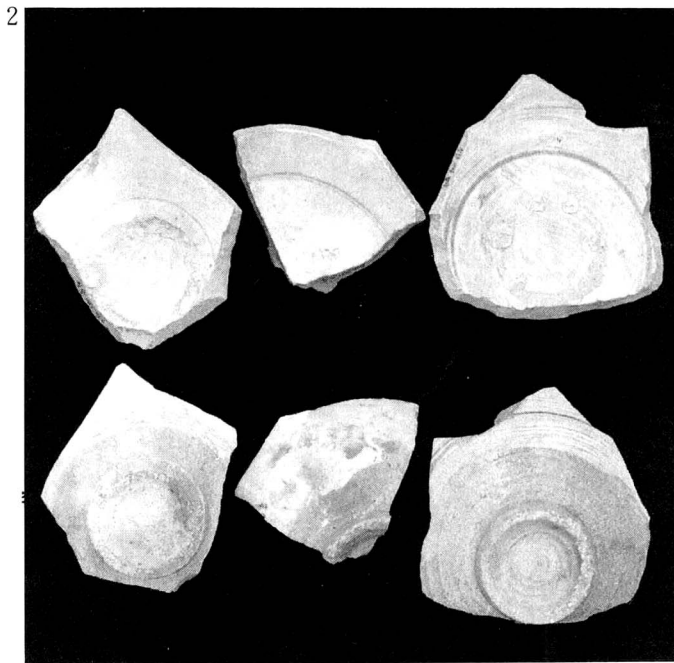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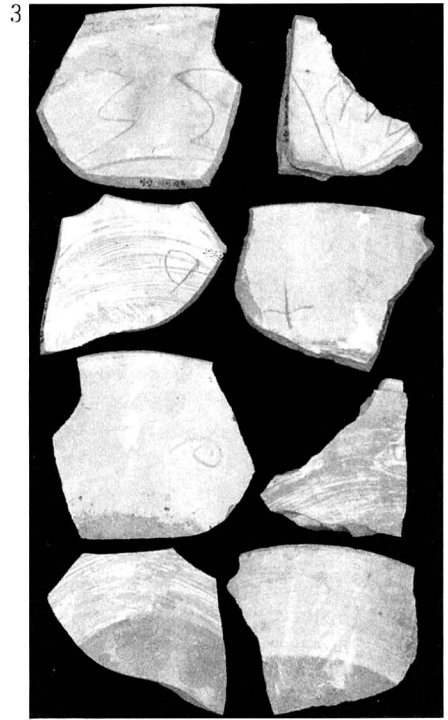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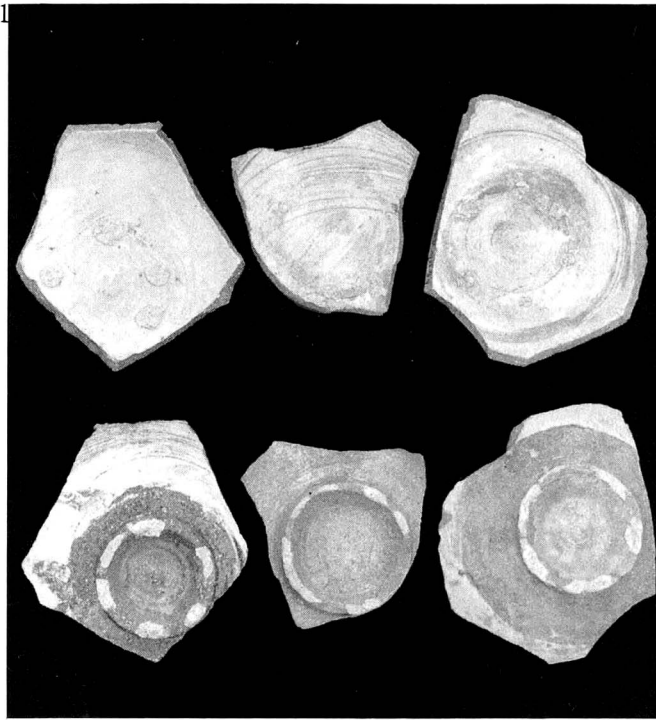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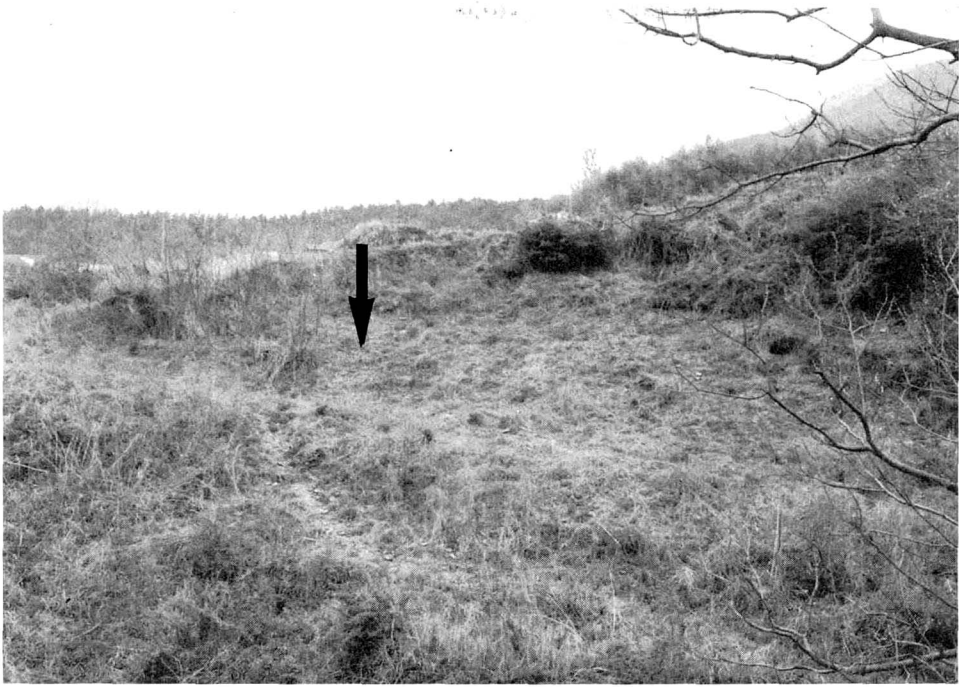
〈사진 27〉 청양 장곡리 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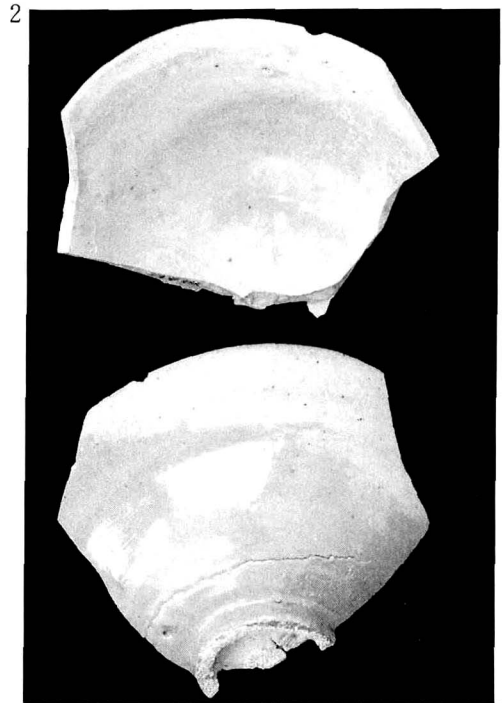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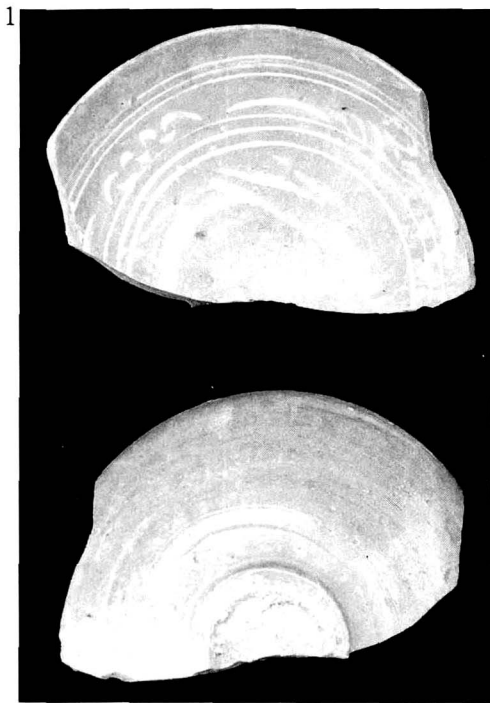
〈사진 28〉 청양 장곡리 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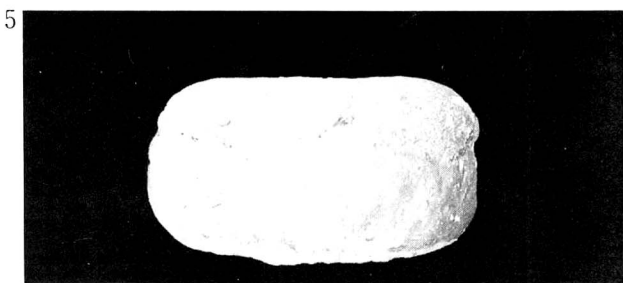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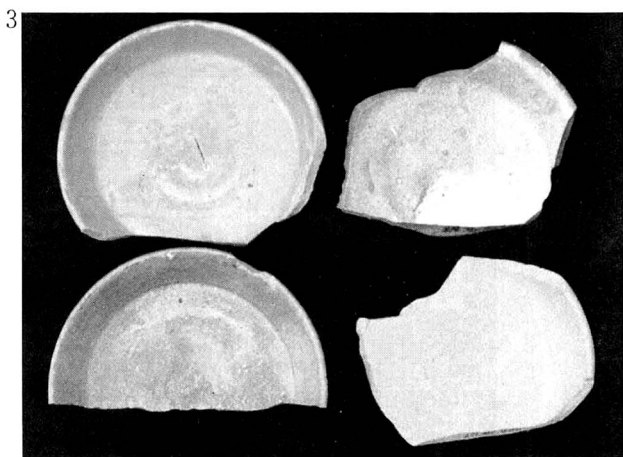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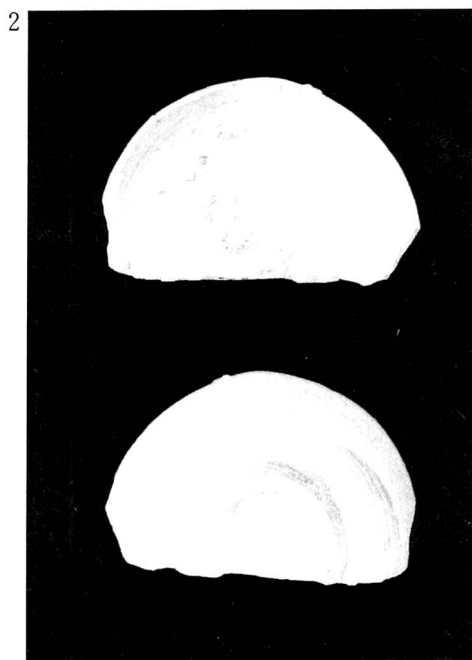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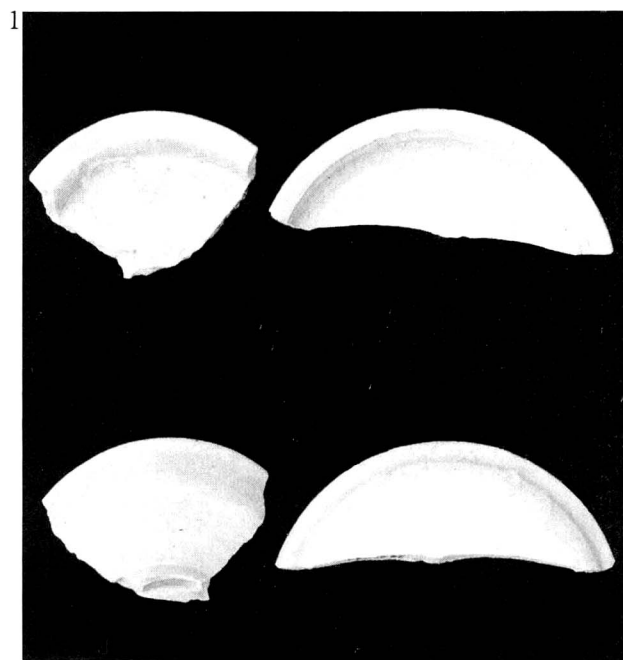
〈사진 29〉 청양 장곡리 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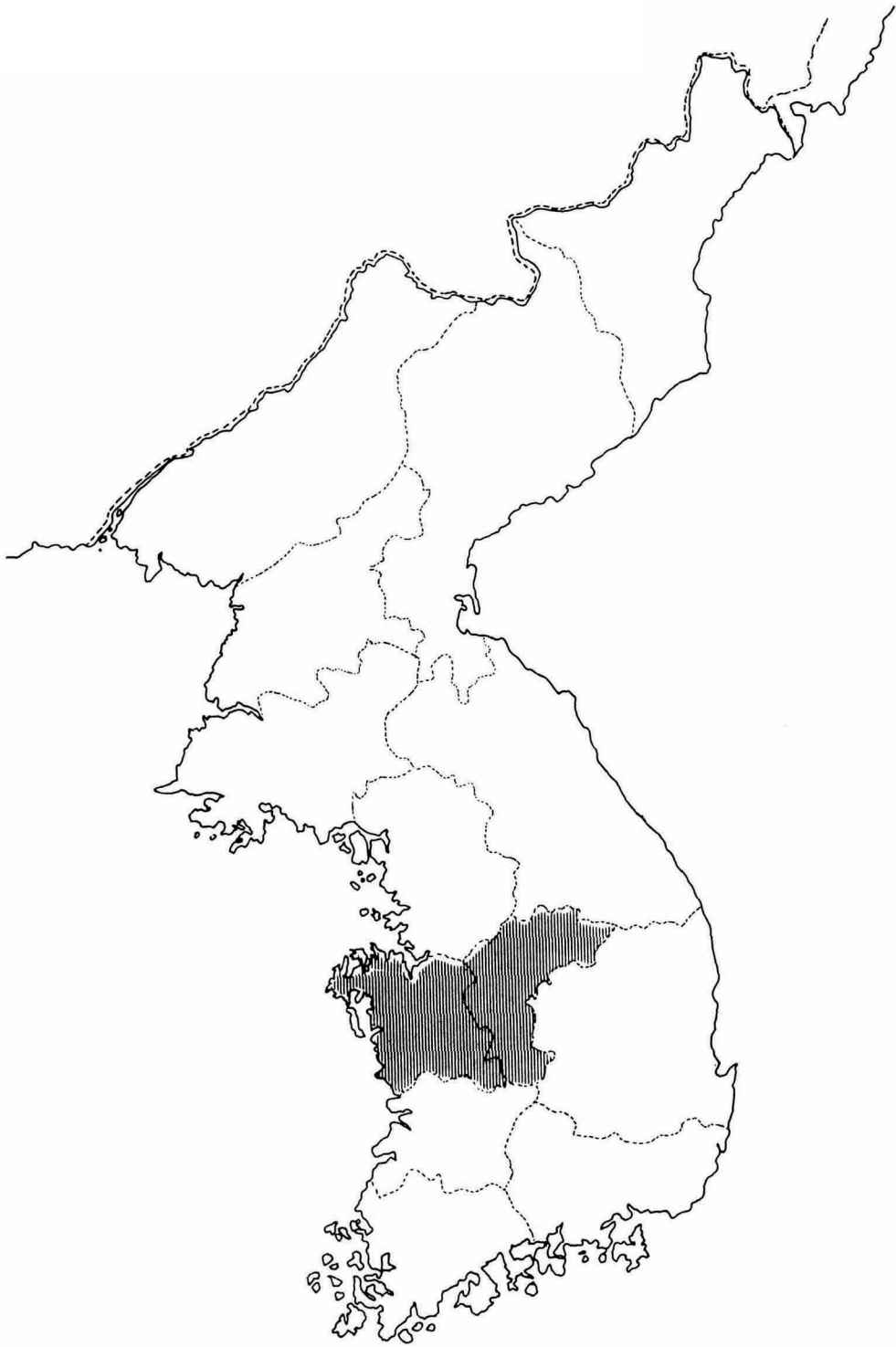
〈사진 30〉 보령 성연리 가마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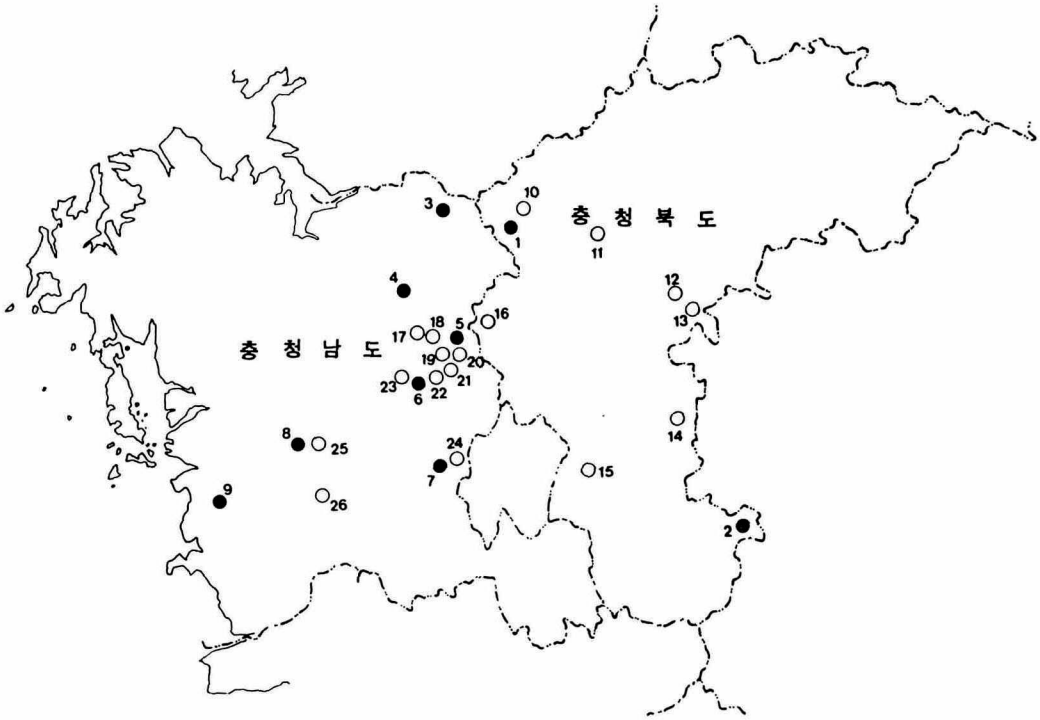
〈사진 31〉 보령 성연리 가마터 수습유물



〈사진 32〉 보령 성연리 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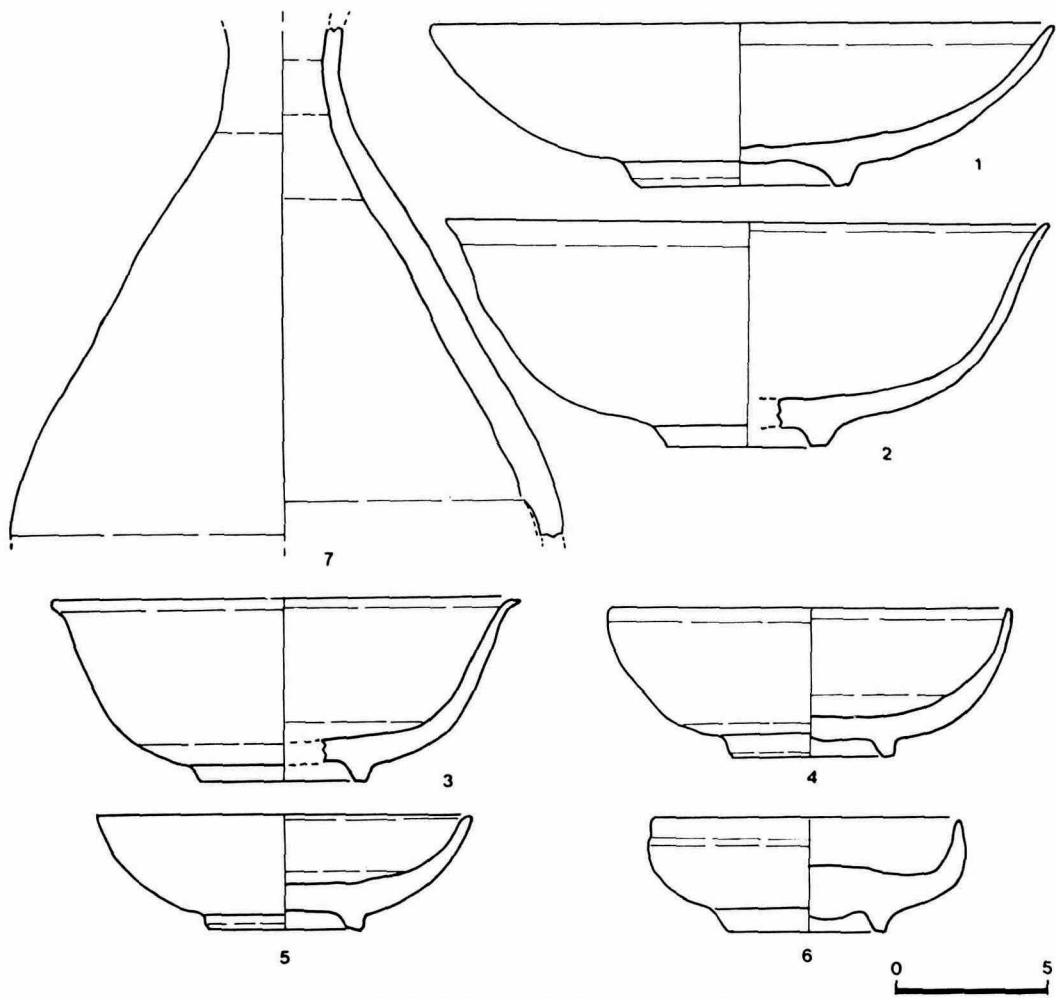
<그림 1> 충청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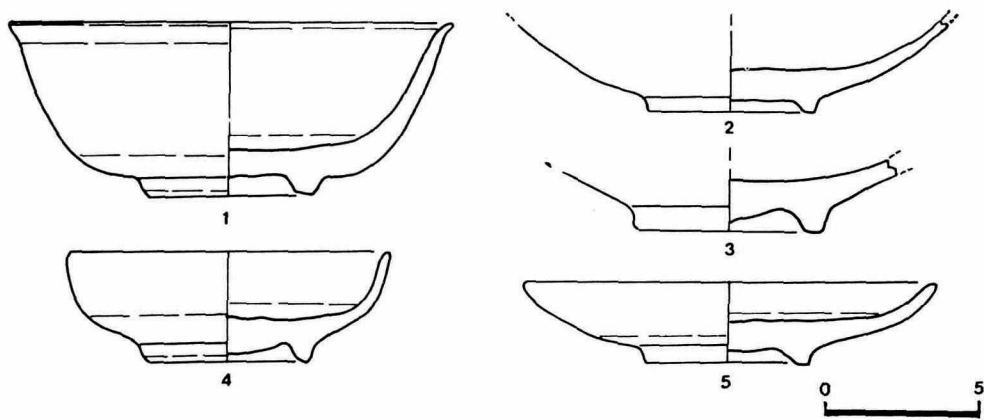
●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 기록 소재지
○ 『세종실록』 지리지 기록에 없는 분청사기 요지

- | | | |
|-----------|-------------|------------|
| 1. 진천 대문리 | 10. 진천 성대리 | 19. 연기 청라리 |
| 2. 영동 사부리 | 11. 괴산 송정리 | 20. 연기 쌍류리 |
| 3. 천안 사담리 | 12. 괴산 사은리 | 21. 연기 신대리 |
| 4. 천안 지장리 | 13. 괴산 사기막리 | 22. 연기 기룡리 |
| 5. 연기 송정리 | 14. 보은 적암리 | 23. 공주 중흥리 |
| 6. 공주 가산리 | 15. 옥천 사정리 | 24. 공주 온천리 |
| 7. 공주 학봉리 | 16. 청원 심중리 | 25. 청양 천장리 |
| 8. 청양 장곡리 | 17. 연기 금사리 | 26. 부여 장벌리 |
| 9. 보령 성연리 | 18. 연기 달전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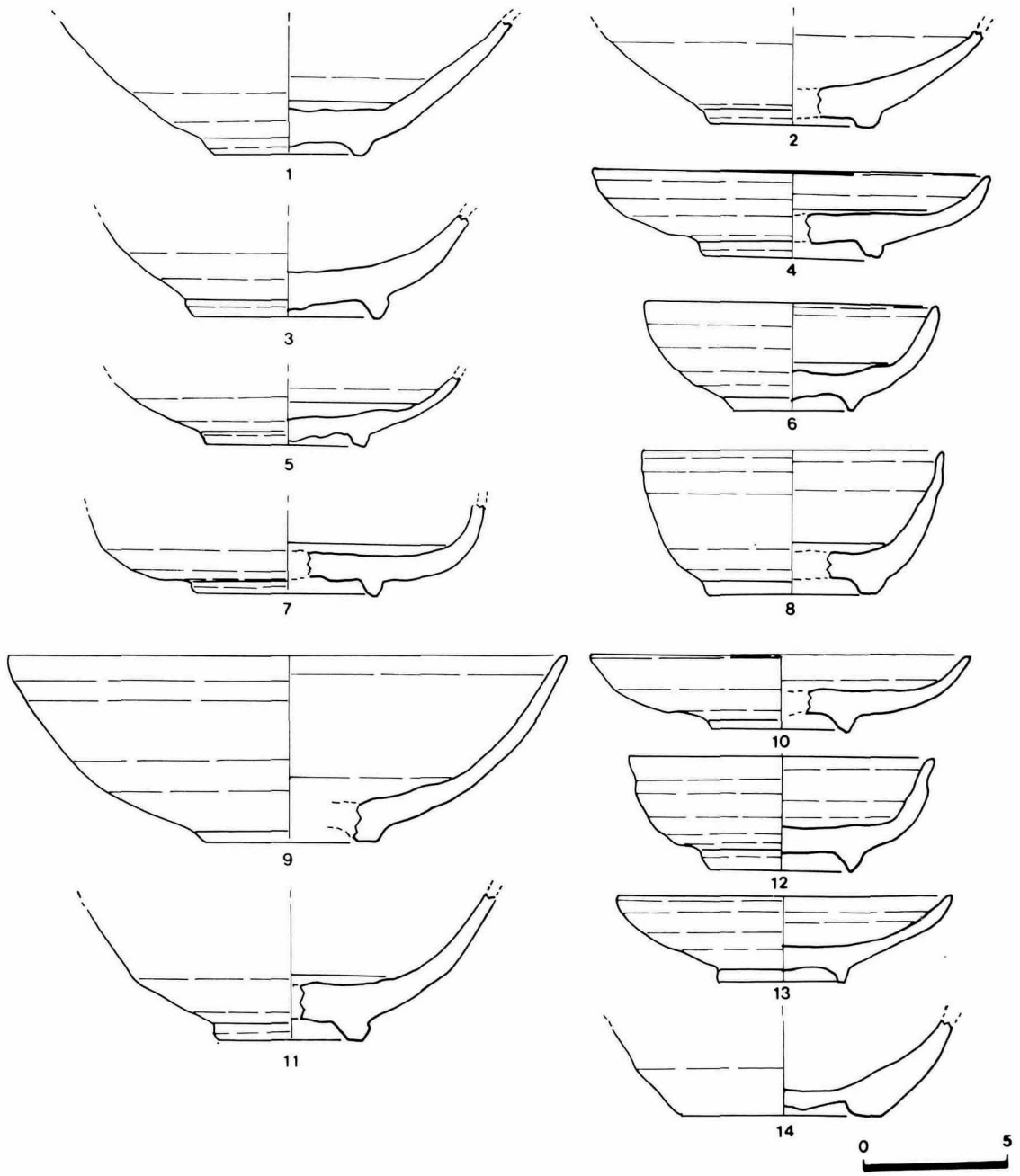
<그림 2> 충청도 분청사기 가마터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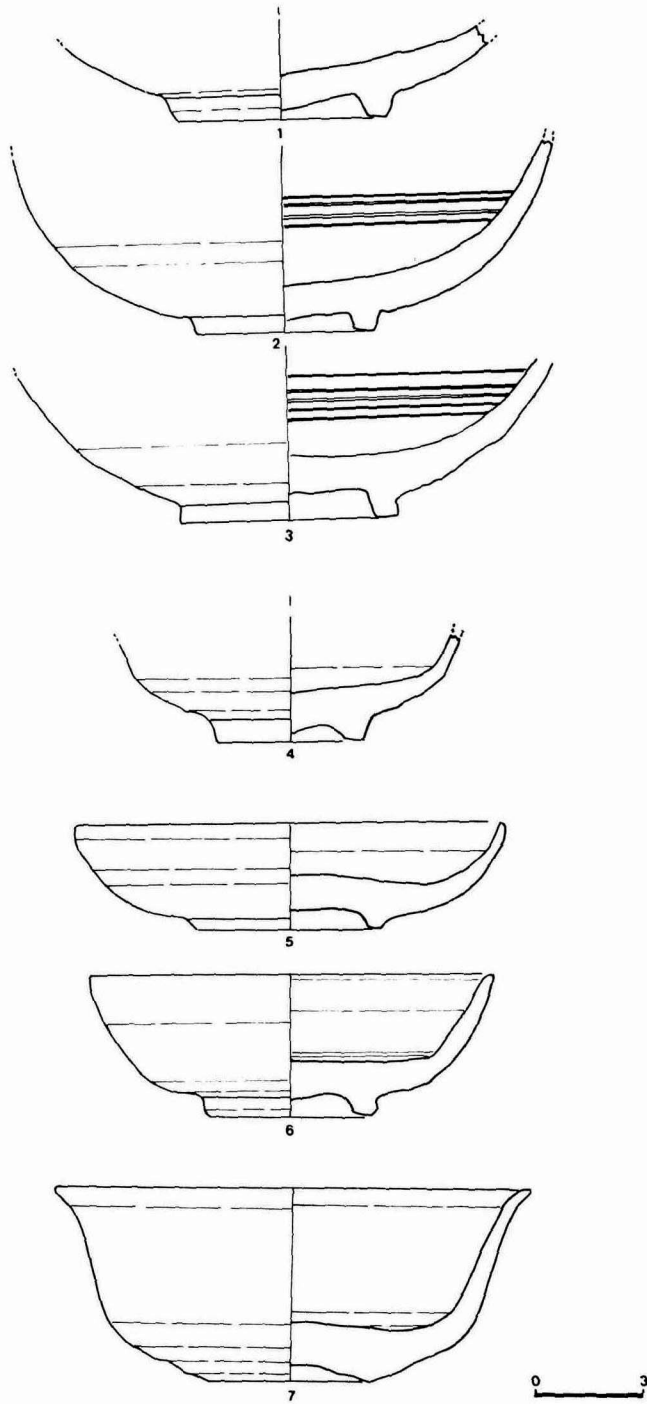
〈그림 3〉 진천 대문리 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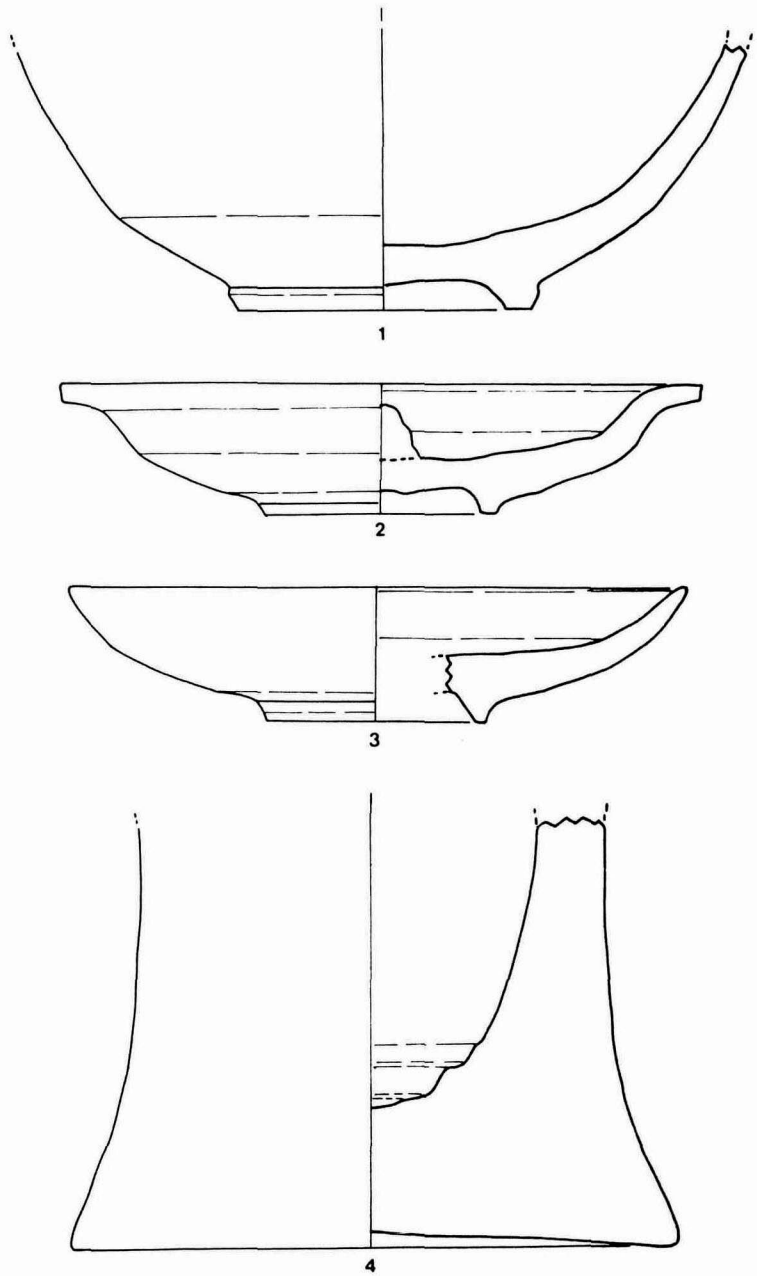
〈그림 4〉 영동 사부리 황보 1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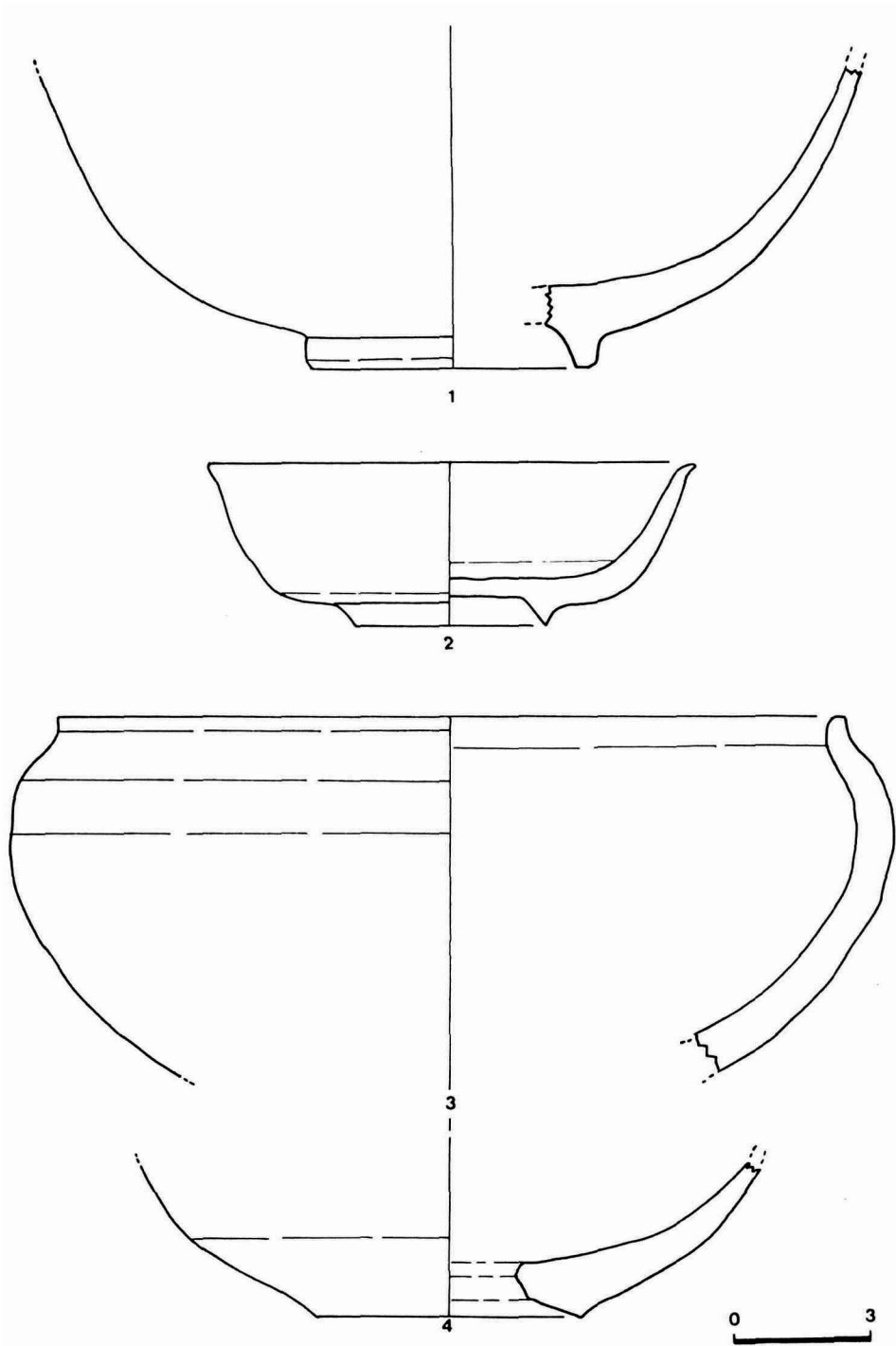
〈그림 5〉 영동 사부리 황보 3호(1~8) · 4호(9~14)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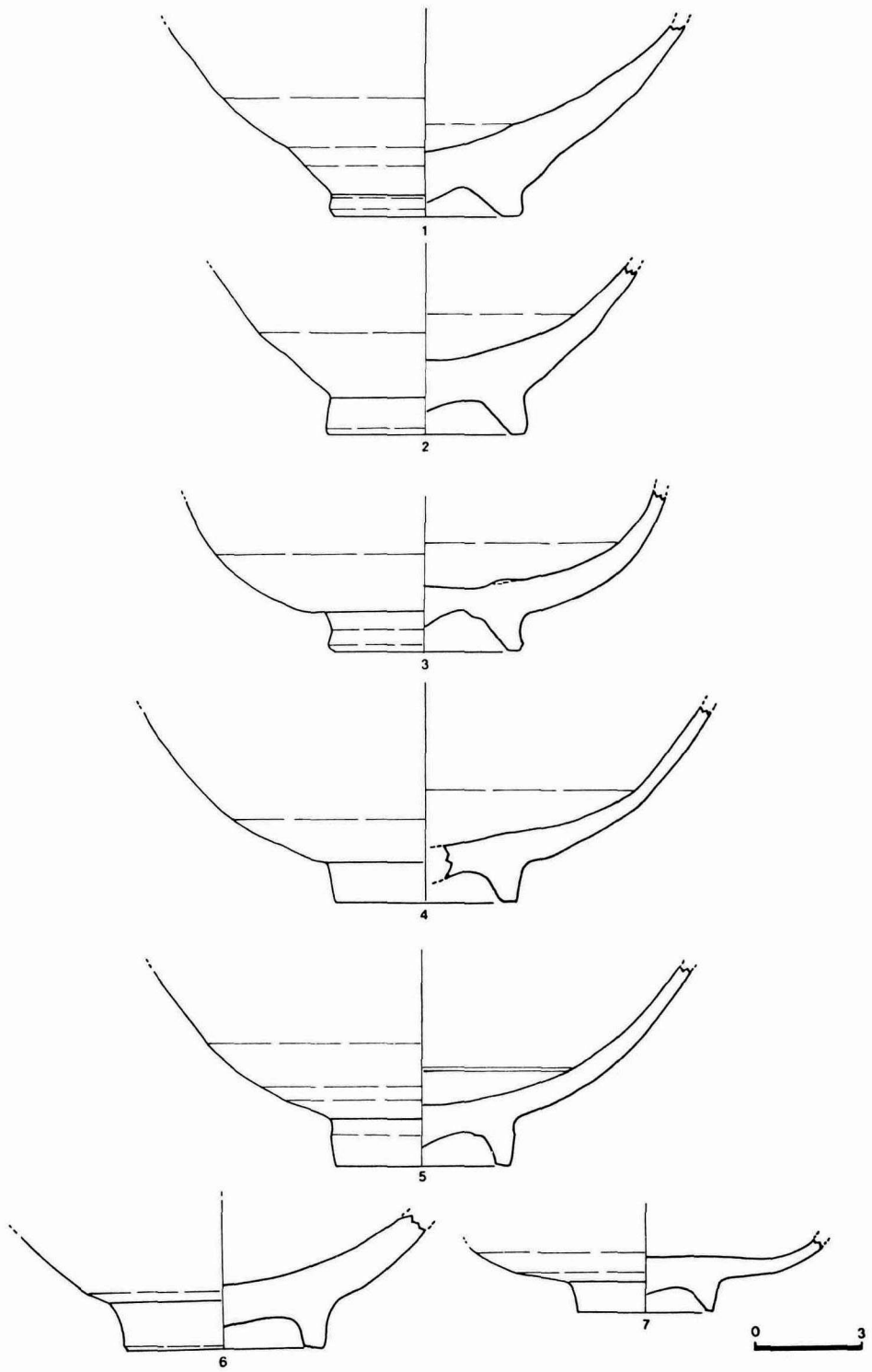
〈그림 6〉 천안 사담리 1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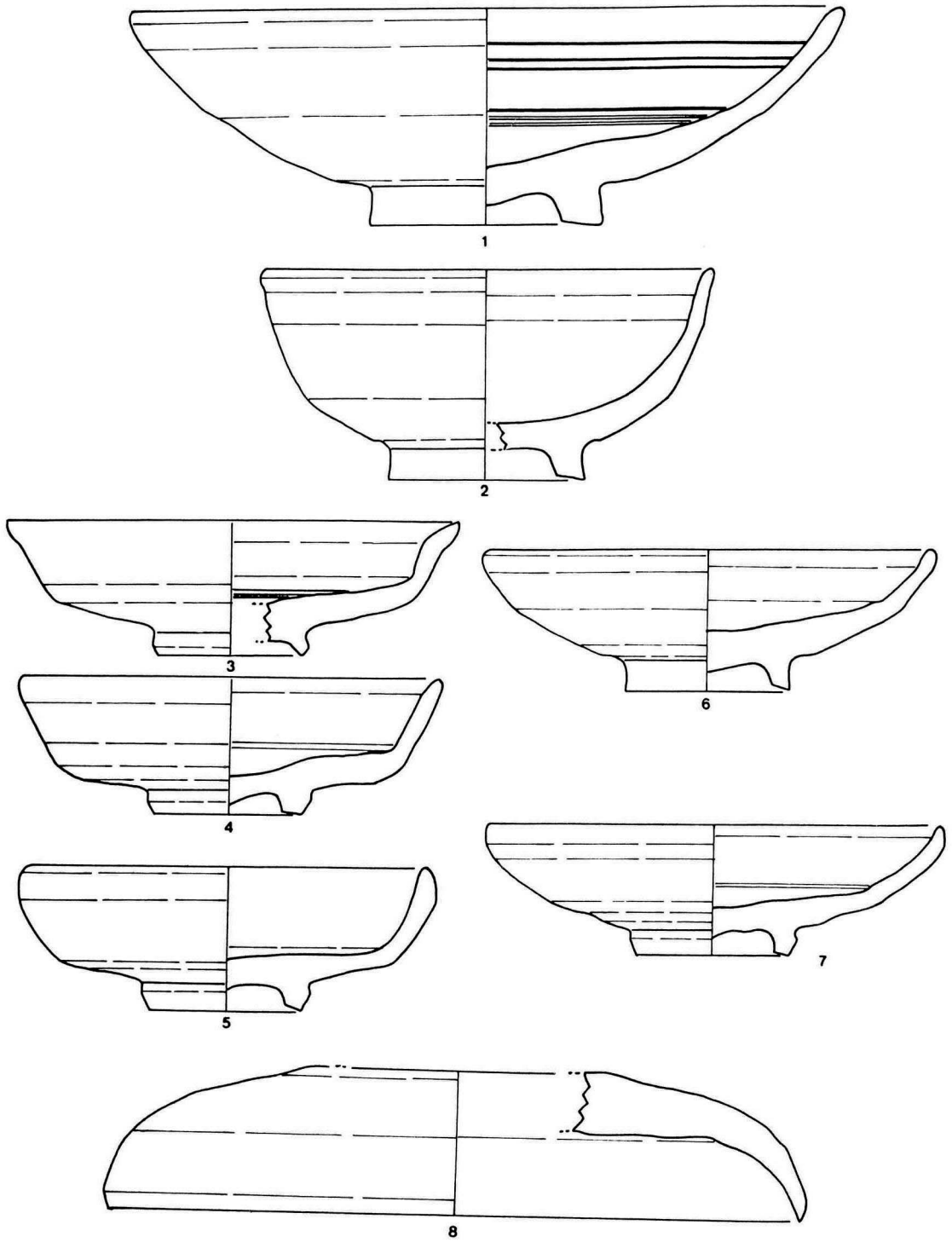
〈그림 7〉 천안 사담리 2호가마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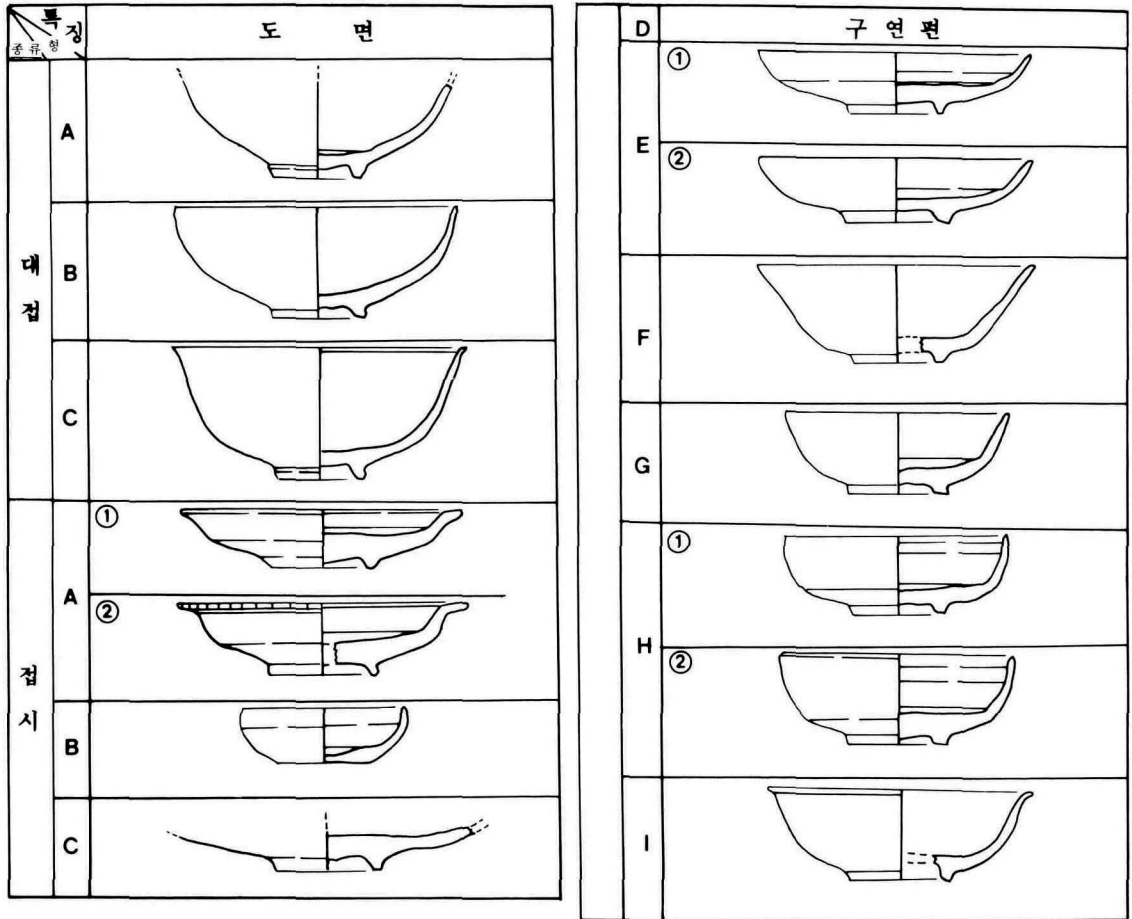
〈그림 8〉 천안 지장리 가마터 수습유물



〈그림 9〉 청양 장곡리 가마터 수습유물



〈그림 10〉 보령 성연리 가마터 수습유물



〈그림표 1〉 연기 송정리 대접접시 기형도 (李愛玲 논문 인용)

종류	기형 배치	대 접				접 시				문 양
		內		外		內		外		
		측면	저면	측면	굽주변	측면	저면	측면	굽주변	
小菊文		○					○	○		① ② ③ ④ ⑤ ⑥
菊花文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국화절지문								○		① ②
연화문			○							① ②
圓文 魚子文		○					○			○○○○○○○○○○○○ ○○○○○○○○○
運瓣文		○			○		○			① ② ③ ④ ⑤ ⑥
唐草文		○				○				① ② ③ ④ ⑤ ⑥
六角文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集圓文		○					○			① ② ③
卍字文			○					○		① ②
草葉文			○					○		① ② ③ ④
물결무늬		○								
浦柳水食文							○			
나비			○							
菊文			○			○				① ②
如意頭		○					○			
重圈文		○		○		○	○	○		
同心圓무늬								○		
雨点文				○				○		
牡丹唐草文		○								① ② ③
牡丹唐草文 變形(?)		○					○			① ② ③ ④

〈그림표 2〉 연기 송정리 대접문양 유형 분류표(李愛玲 논문 인용)